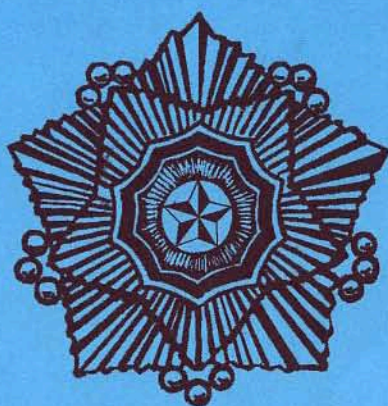


# 조선문학

조국해방 70돌기념  
특간호



8

주체104(2015)

문학예술출판사

항일대전의 위대한 승리,  
조국해방 일흔둘 만세!



##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104(2015)년 제8호

(루계 제814호)

특간호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주체조선의 영상으로  
영원히 우리 인민과 함께 계시며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짊어올  
리신 크나큰 혁명업적은 력사와 더불어 영원불멸할것이다.》

김 정 은

..... 차 례 .....

~~~~~ 조국해방 70돐 ~~~~~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 ~~~~~ 기념특집 ~~~~~

|                         |           |
|-------------------------|-----------|
| 김일성장군찬가(시)              | 리 찬(4)    |
| 우리에게는 김정일동지께서 계신다(시)    | 차 승 수(4)  |
| 김정은동지(시)                | 동 기 춘(36) |
| <b>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b>    | (5)       |
| 생각깊은 개선문(시)             | 서 봉 제(5)  |
| 해방과 우리 문학(묶음편집)         | (6)       |
| <b>주체문학의 대강</b>         | (9)       |
| 8.15와 《조선문학》시편들         | (10)      |
| 백두산에 올라서                | 리 극 로     |
| 조국의 흙                   | 허 남 기     |
| 은 인                     | 김 철       |
| 내가 살던 집                 | 김 상 오     |
| 소원은 해를 따라...            | 오 영 재     |
| 8월 15일은...              | 김 응 하     |
| 전설이 먼저 왔다               | 고 남 철     |
| 《품산휴양단》이 낳은 이채로운 형상(단평) | 서 경 진(15) |
| 못 잊을 그해 8월에(시)          | 곽 명 철(17) |
| <b>단편소설</b> 마르지 않는 샘    | 리 주(18)   |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념원으로 우리 나라를  
천하제일강국, 인민의 낙원으로 일떠세우자!

—공동구호에서—

~~~~~ 조국해방 70돐 ~~~~~ 천추만대에 길이 빛내여나가자! ~~~~~ 기념특집 ~~~~~

◇ 평 론 ◇

경제강국건설의 장엄한 서사시적화폭 ..... 리 창 유(32)

명가사에 비낀 심오한 철학세계 ..... 강 문 혁(37)

**단편소설** 사랑을 보다 ..... 백 명 길(42)

새들이 날아들 때 ..... 한 은 희(63)

인생의 숙제 (실화문학) ..... 송 재 환(55)

뉘을 안고살라(수필) ..... 배 경 휘(39)

~~~~~ 시 ~~~~~

길에 대한 답시 ..... 김 무 림(31)

백두산에 오르리 (가사) ..... 권 오 준(30)

철령의 새 풍경 (가사) ..... 함 영 주(30)

백두산이 보증하리라 ..... 장 명 길(41)

날 개 ..... 박 성 일(62)

평양사람의 금지로! ..... 황 명 성(74)

오, 흥분하구나(고전시) ..... 김 택 영  
최 흥 록 역(79)

네명의 대대 (단편소설) ..... 레오네드 쏘볼레브(쏘련)  
서 진 혁 역(75)

상 서 ..... (54), (80)

# 김일성장군찬가

리 찬

장군이 오시는것은 아, 아무도 몰랐으나  
장군이 오신것은 누구나 알았다  
장군은 가리울수 없는 우리의 빛  
장군은 감출수 없는 우리의 태양

우리의 절대의 환영에 장군은 장군이 아니신듯  
우리의 무쌍의 광영에  
장군은 위원장만으로도 족하신듯  
장군은 인민을 위한 한때도 심히 귀중히 여기고  
장군은 인민속에 특별한 인민됨을  
완강히 거절한다

누구나 장군은 젊다 한다  
그렇다 장군은 젊다  
우리의 장군이 늙어서야 되랴!  
만고풍상 혈전혈투의 과거가 그렇고  
오매불망된 재건조국의 오늘은 더욱!

장군의 따사로운 초양은  
이미 령세한 논밭우에 드리우고  
이제야 중천에 혁혁한 장군의 백광은  
온갖 불순물을 불사르며 불사르며  
얼어붙었던 굴뚝마다 철연을 치솟군다

아, 장군의 씩씩한 보무를 따라  
바야흐로 무르녹으려는  
북조선의 란만한 봄을 보아라!  
장군은 바쁘다 바빠야 한다  
기억하자 장군은 우리만의 장군이 아니요

장군은 남조선도 비칠, 남조선도 비쳐야 할  
아아, 삼천리 전강토의 위대한 태양  
장군은 만민의 령장 인류의 태양  
동방에 솟은 태양 온 누리를 비치리

주체35(1946)년

## 우리에게는 김정일동지께서 계신다

차 승 수

당신은  
인류의 지성이 응축된  
신화적인 두뇌를 지니신분  
미지의 세월을 손금처럼 당겨보시는  
신비경의 해안을 지니신분

당신은  
백두의 담력으로 지구를 놀러딘고  
우주를 호홉하는 심장을 지니신분  
당신은  
인민을 위해 한생을 불태우시는  
태양의 열광을 지니신분

당신의 신념은  
자주의 궤도우에 지구를 들어올린  
만능의 지레대  
당신의 미소는  
만민의 마음속 한점 그늘마저 가져주는  
은혜로운 해빛  
당신의 기상은  
선군의 총창으로  
제국주의렬강의 숨통을 꺾지른

용장의 모습  
그 품에서  
인민의 아름다운 념원이  
꽃으로 피어나 풍성한 열매로 주렁지여라  
그 품에서  
이 행성의 생명들이  
주체의 피와 숨결로 고동치고 영생하여라

당신의 의지는  
백두산  
당신의 존함은  
주체의 조선  
당신의 그 품은  
우리 사는 온 세계

인류여 들으라  
부러워하라  
우리에게는 **김정일**동지께서 계신다

주체91(2002)년



##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이렇게 우리 나라의 해방은 15성상이나 일본제국주의자들에게 강력한 군사적라격을 안겨 그것을 밀뿌리채 뒤흔들어놓은 조선인민혁명군과 각계각층을 망라한 전민항쟁력량의 총동원으로 이룩되었습니다.》

《1930년대와 1940년대 전반기에 우리가 조직한 국내의 항쟁조직들과 무장대들이 조선인민혁명군의 최후공격작전계획에 따라 국내도처에 웅거하고있는 일제의 침략무력과 식민지통치기구들을 제압소탕하고 나라를 해방하였습니다.》

《조선의 해방은 20성상에 걸치는 항일혁명투쟁의 총화인 동시에 해내외의 광범한 반일애국력량이 수십년동안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치며 희생을 무릅쓰고 거족적으로 벌려온 영웅적인 항전의 결산이라고도 말할수 있습니다.》

## 생각깊은 개선문

### 서 봉 제

초가집 사립문 나서시여  
만경봉의 오솔길 내리실 때  
천리길에 무사하기를 바라신 이들  
할아버지 할머니 그뿐이시였다

고개넘어 령을 넘어  
포평나루의 두려운 얼음장 밟으시며  
조국을 찾기 전엔 돌아오지 않으리라  
마음속에 뜨거운 맹세를 다지실 때  
수령님을 바래운이 이 땅엔 없었다

오로지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  
결심품고 댈신 그이 첫걸음을  
투쟁의 활무대로 이끌었다  
혈전의 언덕으로 불러주었다

쌓이어 내리는 밀림의 함박눈  
어깨우 백포자락에 철갑인양 없으며  
광야의 그 거세찬 칼바람을  
령장의 나래에 휘감아 달고 넘으신  
이 나라 빨찌산장군의 길

그 길에서 전디기 힘든  
상실의 아픔 따라설 때마다  
그이께서 더 으스스리게 들어전것은  
총대였다  
참기 어려운 시련의 고비 막아설 때마다  
그이께서 높이 추켜드신것은  
백두의 설한풍에 젖은 붉은기였다

가까운이들 기다리는

만경대고향집에 앞서  
그이앞에는 찾아야 할  
인민의 모든 고향집이 있었고  
지붕없이 찬바람에 헤매이는 겨레들에게  
주인의 아래목을 찾아주어야 했기에  
사선의 언덕을 넘고넘으시여  
해방의 봄날을 안아오신 절세의 애국자

만리광야를 주름잡으며  
뜨겁게 달구어온 백두산총대의 불로  
조국해방의 촉포성 터쳐주시고  
만민의 흠모속에  
개선광장의 연단에 오르신분  
환희로 들끓던 조국인민들은  
그이께 있어서  
그립고 그립던 만경대의 식솔들이였다

만경대프락을 나서실 땐  
바래운이들 몇몇이였어도  
해방을 안고  
조국으로 개선하신 그날엔  
만경대의 한식솔로  
인민이 그이 품에 안겼다  
그이를 민족의 아버지로 받들어

아, 생각도 깊어라  
우리 수령님 떠나셨던 사립문  
전설의 장군으로 돌아오신 개선문  
그것은 정녕 피로 물든 붉은기의 수십만리  
걸음걸음 사생결단으로 헤치신  
우리 수령님 우러러 태양의 해살을 모아 세운  
인민의 집 대문이었다!

# 해방과 우리 문학

해방! 이 나라 겨레가 얼마나 가슴 태우며 기다렸던 빛인가.

찢기고 뒤흔기면서도 어둠속에 빛을 찾던 삼천리가 해방빛에 흠뻑 젖어 격정에 울었다, 반만년이 환희로 함께 울었다.

8월 15일, 암흑에서 광명으로!

70년전 조국해방의 이 역사적사변을 편집부는 수난과 새삶의 두 현실로 비추어 당시의 문학으로 재현시켜본다.

산산이 부서지는 이름이여!  
허공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

선채로 이 자리에 돌이 되여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김소월의 《초혼》(1929)중에서—

님이여 우리 겨레 한데 뭉쳐서  
조선의 영원한 생명 품어주소서

단군 한뼘여 님 잃고 우는 아기들  
두나래아래 모아다가 젖 주소서

—신채호의 《매암의 노래》(1925)중에서—

떨어진 꽃이 날려서  
작은 언덕을 넘어갈 때에  
가없는 그림자가 어디로 가는줄을  
나는 안다  
봄을 빼앗아가는 악마의 발밑으로  
사라지는줄을 안다

—한용운의 《락화》(1936)중에서—

앗을대로 앓아보아라  
네놈들의 잔인한 테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넘려도 없겠고 주저할것도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들은 보복을 하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

그렇지 아니하나  
우리의 희망은 분노는 기쁨은 부르짖음은

모두 우리들의것이 아니냐

—김창술의 《앗을대로 앓으라》(1930)중에서—

밤!  
어둡고 침침한 이밤!  
고통과 몸부림과 신음으로  
길게 누운 칠칠흑야!  
왜 이리 답답하뇨

번개의 비수검으로 이 답답함 가르고  
뢰성으로 호령해 일으켜세우고  
폭우로 네 몸 살살이  
피의 진통을 씻어간들 어떠리!

—장편소설 《고난의 력사》(천세봉)의  
서문중에서—

하늘에도 게으른 흰구름이 돌고  
땅에서도 고달픈 침묵이 까라진  
오, 이런 날 이런 때에는  
이 땅과 내 마음의 우울을 부실  
동해에서 폭풍우나 쏟아져라— 빈다

—리상화의 《폭풍우를 기다리는 마음》  
(1925)중에서—

산비탈 바위우에  
청년 한분 버쩍 올라선다  
후리후리한 키꼴에  
흰두루마기자락이  
대공으로 솟아오르려는  
거센 나래같이 퍼덕이는데  
온몸과 팔과 다리—  
모두다 약진의 서술에 불붙고  
서리발 칼날의 시선으로  
싸움터를 단번에 죽— 가르며

《한놈도 남기지 말라!》

그이는 부르짖었다

...

이는 이름만 들어도

삼도왜적이 치며는

조선의 빨찌산 김대장!

이는 장백을 쥐락펴락하는

큰 산을 주름잡아 한손에 넣고

동서에 번쩍!

천리허의 대령도 단숨에 넘나드니

축지법을 쓴다고—

북천에 새별 하나이 솟아

압록의 줄기줄기에

그 유독한 채광을 베푸노니

이 나라에 천명의 장수 났다고

백두산두메에서 우러러 떠드는

조선의 빨찌산 김대장!

#### —조기천의 《백두산》(1947)중에서—

《해방이 됐어유! 왜놈들이 망했대요.

**김일성**장군님께서 우리 조국을 찾아주셨대유—》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알수 없어 어리벉벉히 서있던 나는 **김일성**장군님이란 말에 귀가 번쩍 띄어서 제잡담 그한테로 달려갔다.

《**김일성**장군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거요?》

내가 그의 두팔을 붙잡고 흔들며 묻는데 그는 너무 감격해서 젖은 두눈을 깜빡거리며 뜻밖에도 희한한 소식을 전하는것이였다.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해서 조선이 완전히 해방되었다는것과 지금 말휘리에서는 면장과 왜놈순사들이 도망치고 면내 백성들이 모여서 면사무소와 주재소를 점령하고 기세충천하다는것이였다.

그 순간의 감격! 감격! 감격! 나는 어쩔줄을 몰랐다.

나는 길복판에서 두팔을 쳐들고 《**김일성**장군 만세!》를 목청껏 불렀다.

기쁨과 감격으로 차오르는 눈물속에 천지가 뿌옇게 보이는가 하면 지지리 놀리우던 눈앞이 눈부신 광명으로 밝아지는듯 하였다.

아, 이 얼마나 기다리던 소식인가! 이 얼마나 일일천추와 같이 고대했던 순간이었는가! 이제에는 하늘도 우리 하늘, 땅도 우리 땅, 모든것이 다 우리의것이 되었구나!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찾아주신것으로 하여 긴긴세월 암흑속에 파묻혔었고 노예의 쇠사슬에 칭칭 얹매었던 이 산천, 저 강과 논밭, 푸르른 하늘과 공중에 나는 새, 눈앞에 보이는 모든것이 바로 이제에는 우리 인민의것, 나의것이다.

희소식이 번개같이 온 마을에 퍼졌다. 남녀로소 할것없이 삼시간에 모여들어 《**김일성**장군 만세!》, 《조선독립 만세!》를 웨치며 열광적으로 들뛰었다.

하늘의 태양도 더 빛나보이고 땅도 더 넓고 밝아진듯 했다.

#### —장편수기 《태양을 따라》

(리기영)중에서—

나라없는 소년들에게는 조국을 찾기 위하여 싸우는 영웅의 이야기가 무엇보다도 재미있는 동화입니다.

나라없던 소년 나에게 당신의 이야기는 가장 통쾌하고 피끓는 동화였습니다.

나는 당신의 이야기를 동화로 삼고 자랐습니다. 내 나이 아직도 여라문살 어렸을 때에 집의 아버지와 동리의 어른들이 신문을 펴놓고 모여앉아 장군님의 이야기를 하며 좋아하는것을 가끔 나는 곁에서 이상스롭게도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엿듣곤 하였습니다.

《또 이겼어! 파연! 조선사람이 상기두 살아있다니까!》

이것은 바로 당신의 빨찌산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신이 지금 조국으로 돌아와계십니다. 우리들속에 같이 계십니다.

...

오늘 얼마나 많은 인민들이 당신이 계시기때문에 재생하고 위안되고 복받고있습니까. 지난날 나라없던 이 땅 사람들은 원수들에게 십전짜리 《장한몽》 한권마저 빼앗기고서도 밤이면 모여앉아 당신의 이야기로 밤을 새우며 말라가는 가슴을 추기지 않았습니까.

#### —백인준의 산문시 《헌시》

(1947)중에서—

도대체 이게 꿈이 아닌가?

아니다, 아니다. 만사는 늘쌍 이렇게 구체적이래야만 한다. 우리 삼천만인민은 오늘이 오기를 얼마나 눈빠지게 기다렸던것이냐. 오늘은 당연히 오고야말 력사의 판결날이다.

아— 통쾌하구나, 오만가지 감정이 가슴속에서 부글부글 끓어번진다.

팔월 십오일!

팔월 십오일!

미친 개, 일본제국주의의 미친 개는 정의의 철퇴에 엉치가 부서져서 허를 가로물고 나가버려졌다.

잔인무도하던 강탈자 일본제국주의자들!



우리의 피와 기름을 여지없이 빨아먹던 비계진 이리, 일본제국주의강도들.

김창화는 오늘 대낮 왕성하게 작열한 태양아래 발전소뒤편 잔등에 올라 네거리로 뻗어내린 철판로를 무연탄가루와 세멘트로 메우는 작업을 하다가 강도 일본이 무조건 항복한것을 방송으로 얻어듣고 작업이고 난장이고 모두 집어치고 고래고래 소리질러 철판로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져 일하는척 하면서 늘 잠수만 보는 동무들에게 알리고나서 맨 앞에서 허둥지둥 산을 내려왔던것이다.

...

《뭘 그리 생각하오. 이 좋은 날에 즐겁게 놀지 않구...》

석호가 어깨를 탁 치는 바람에 창모는 추억에서 깨어났다.

《아니, 우리는 세상에 났던 보람이 있소. 나는 지금 그것을 생각하고 앓았소. 동무들, 이밤은 영광스러운 새 력사의 밤이요. 이 기쁜 밤에 노래 한마디 하리다.》

대표자들은 이 노래를 듣기 전에 손뼉부터 치기 시작한다.

창모는 만감을 가슴에 품고 노래를 부른다.

민중의 기 붉은기는  
전사의 시체를 쫓다  
시체가 식어 굳기 전에  
혈조는 기발을 물들인다  
...

창모는 몇해만에 오늘밤 처음으로 마음껏 소리높이 불러보는것이다.

잇었을상심던 가사는 1절, 2절, 3절, 제 배운 글처럼 똑똑하게 머리에 떠올랐다. 그 노래가 무슨 노랜지 알면선지 모르면선지 대표자들은 좋다 소리를 떠날하면서 손뼉으로 맞추어준다.

어느새 먼동이 터왔다. 노래는 여전히 계속된다. 공청가, 인터나쇼날...

이 노래는 영광스러운 조선의 새 력사가 창조되려는 깨끗한 첫 아침의 청년전주곡이었다.

1945. 8.

#### —단편소설 《전기는 흐른다》 (리복명)중에서—

내가 발갈이한다—

《마라... 마라... 마라... 돌아》

이 가난뱅이 경선이 제 발을 간다

젊은 때도 소작의 멍에에 창이 빠지고

지친 나날이 가난에 얽매여

남의 땅 한 피약에서 가무려져도

제 땅이란 못 쓰고 죽어질 팔자라던

이 영성백이 경선이

...

오늘은 제 발을 가누나—

《외나... 마라... 마라...》

노고지리도 귀 기울여 듣는 이 소리

농부의 가슴을 후련히 띄우는 이 소리

아 아, 나의 어린 때

그 피곤했던 어느 봄날의 상처에서

세월의 봉대를 잡아채는 이 소리

주머니를 뒤지어 털듯이

설움에 맺힌 그 봉분을 헤쳐놓은 이 소리!

#### —조기천의 서정서사시 《땅의 노래》 (1946)중에서—

저녁을 필한 뒤에 담배 한대를 피워물고 문지방앞으로 다가앉으니 바로 마당가 짙난가리우로 달이 떠오른다. 구월 보름 한편모서리도 이지러지지 않은 만월이다. 어느새 모여왔는지 아이들이 짙난가리우에 올라가서 국기를 흔들면서 아우성을 친다.

그들은 달님, 달님 하면서 발돋움을 해서 손을 펴고 일어선다. 달은 지금 그들의 손이 수풀을 이루어 떠받드는 우로 한뼘한뼘 솟아오르고있다.

어느 아이의 입에선가도 모르게 김장군의 노래가 흘러나왔다.

뒤대여 파도가 온 바다우에 번져가듯이 요란한 합창이 되어 퍼져나간다. 노래소리에 문보는 벌떡 일어섰다. 의젓하게 위풍이 도는 환한 얼굴이, 실상 초상에서 본 얼굴이, 이렇게 똑똑히 문보의 머리우에 살아오르는 얼굴— 문보는 자리를 털고 뜰로 내려선다. 지금 삼라만상의 살살을 찾아들고있는 월광 아니, 머리속까지 배어드는 휘황한 빛, 그는 달도 월광도 아닌 오직 우러러뵈옵는 얼굴인것 같은 느낌으로 문보는 노래가 자욱하니 배여오르는 뜰로 한발한발 걸어나간다. 난가리가 우렁이 앞을 막는다. 고개를 드니 난가리가 웅장한 거물처럼 좀더 높아보인다. 이윽고 아이들의 노래소리가 그쳤다. 아쉬운감이다.

잡힐듯 한 물건을 놓친감이다. 문보는 어떻게 해서 이 뛰는 가슴을 풀가!

문보는 난가리우에 손을 뻗치고 《만복아! 만복아, 이리 좀 온, 응.》 만복이를 더듬는다.

만복이를 찾는 그의 손은 어떤 간절한것으로 발발 댄다. 드디어 만복이를 양가슴에 열싸안자 이

## 주체문학의 대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문학의 지성도는 나라와 민족의 문명수준을 표현하는 중요한 척도이다. 문학의 지성도가 얼마나 높은가 하는것만 보고도 그 시대가 도달한 문화수준과 그 나라, 그 민족의 문명정도를 가늠할수 있다. 문학은 사람의 문화수준과 문명정도를 표현할뿐아니라 그것을 끊임없이 높여나가는 선도적역할을 한다. 문학의 지성도를 높이면 그만큼 사람을 높은 지성을 가진 문명하고 고상한 인간으로 만들수 있다.

문학의 지성세계를 높이는것은 현시대 사람들의 절실한 미학적요구이다.》

미 가냘픈 소리가 노래의 선율을 끄는다. 그제 인남이의 목소리인것을 알자 문보는 《그래 인남이 두 왔구나. 자— 또 부르자.》 문보는 서툰 소리로 김장군의 노래를 부른다. 달빛이 반쯤 비낀 문보의 얼굴엔 미어오르는 가슴때문에 그제 눈앞이 번질번질 빛났다.

낭가리우에서는 빼처럼 빼여지는 인남이의 소리가 노래를 끌고나간다. 달을 향해 돌아서있는 웅골찬 모습들이 땅에서 솟아오른것 같다.

문보는 더운 불을 아들의 뺨에 대고 후덕후덕 하는 그 심장을 꼭 껴안는다. 누구 소리나 다같이 복장을 떼고 솟아오르는 소리인것 같이 문보는 제 소리와 만복이 소리를 가리지 못한다. 노래를 타고 달은 사뭇 하늘로 하늘로 솟아오른다.

### —단편소설 《새로운 맥박》 (천세봉)중에서—

차창밖에 달리는 고국산천은 너무도 아름다웠다. 장군의 가슴에서는 만감이 오고갔다. 이 강산을 도로 찾기 위하여 목숨을 내놓고 싸웠고 이제는 이 강산과 이 강산을 지킬 부강한 나라를 꾸미기 위하여 싸워야 할것이였다.

큰길에서 만경대 들어가는 원편 길로 꺾이면서부터 낮고 아담한 산들이 첩첩히 주름잡힌 사이길로 자동차는 오르며내리며 달렸다. 이 산들이 영웅을 낳은 승지 만경대의 울타리를 이루고있는것이다. 산과 산이 조간히 떨어진 그 사이에 있는 조금 너른 평전을 지나 장군 아버님이 세우신 학교 뒤고 개에 올라서니 단풍이 들기 시작한 마치 꽃송이같이 아름다운 수다한 높고낮은 봉우리들이 어떤데는 웅기종기 또 어떤데는 평퍼짐히 들어앉은 그 저어편에 높은 뽕뿌라나무들이 들어선 조그마한 마을이 보였다.

그것이 바로 장군의 옛 마을 만경대였다.

그 마을앞 원편으로 대동강가에 제일 높게 도둑이 솟은 운치있는 다박솔봉우리가 바로 이름높은 만경대봉우리다.

이 산과 봉우리 사이사이에 있는 집집에서 장군이 돌아온다는 꿈같은 사실에 놀란듯 반기며 너도나도 뛰어나와 손을 흔들며 만세를 부르고있었다. 어린애들은 장군의 얼굴을 훔치 놓칠가보아 눈에 초롱을 달아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서로 부르고 달리고 야단법석이었다.

《아이구, 네가 참말 오는구나!》하고 장군을 불러자 눈물부터 앞서는 할머니, 그 주위에 사람들이 촘촘 둘러섰다. 장군은 누구누구를 아잘것없이 또 아이, 어른 할것없이 끌고루 손을 잡고 흔들며 무너지는 웃음으로 인사하였다. 사람도 반갑고 산천도 반가웠다. 이 백성들앞에 언제나 웃음을 주고 싶던 장군이다.

열네살 잡힌 해 이 강산을 떠나며 조선이 독립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라고 장군은 굳게 맹세하였다.

내가 언제 이 땅을 다시 밟을수 있을가, 내가 자라나고 선조의 무덤이 있는 이 땅에 돌아올 날은 과연 언제일가, 조선이 독립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 하고 비장한 맹세를 다지는 장군의 어린 가슴은 못내 아팠다. 그러나 그것은 두말할것없이 반드시 조선을 독립시켜야 하며 그 조국으로 다시 돌아오리라라는 믿음과 결심에서였다. 어린 장군은 벌써 그때에 그것을 이 강산에 맹세하였고 이 앞강물에 약속하였던것이다.

오늘은 바로 그 약속과 그 맹세를 리행하고 돌아오는 날이였다. 장군은 기발이 나뭇기는 옛집 조그마한 대문으로 들어섰다.

1948. 3.

### —단편소설 《개선》(한설야)중에서—

추억의 년대들을 번지며

## 8. 15와 《조선문학》시편들

—조국해방 20주년—

### 백두산에 올라서

리 극 로

망망한 나무바다 이깔나무 배계 쇠고  
가문비 분비 황철 군데군데 쉬엎구나  
꽃방석 퍼놓은듯 각색 꽃이 피어나서  
이때가 여름인데 여기에는 봄이라네

속돌밭 화산용암 그 틈에 흐르는 물  
가다금 고인것이 목추기고 가라하니  
갈 길은 멀어도 물걱정 어데 있으랴

산우에 바다인가 바다가에 산들인가  
화산구로 이루어진 깊고깊은 천지  
아찔한 층암절벽 천지물에 비졌으니  
보아라 공중경치 다시한번 수중경치

머리가 희다고서 백두산이 되었는데  
속돌빛 희거니와 쌓인 눈이 더 희구나  
백두산 안개구름 개였다가 모여드니  
그 위풍 장하여라 백만대령 동원인듯

동방에 우뚝 솟아 태양같은 등대로다  
**김일성**원수님의 빨찌산 전적지로  
조국광복의 요람지로 빛나는 백두산  
절하며 노래하는 정깊은 산이라네

(《조선문학》주체54(1965)년 8호)

—조국해방 30돐—

### 조국의 흙

허 남 기

흙이란 좋구나  
수령님께서 찾아주신  
흙이란  
조국의 흙이란  
한없이 좋구나  
수령님께서 가꾸어주신  
조국의 땅이란  
더없이 좋구나

옛날 우리가  
고향을 등지고  
이국땅 찾아갈 때도  
고향에 기름진 흙이 없어  
간것이 아니고  
고향에 보습땀 땅이 없어  
간것도 아니고

이국땅 거치른 흙이  
조국의 흙보다 좋아서  
간것도 아니고  
그우를 지나는 걸걸한 바람이  
고향의 그것보다 향기롭고  
구수해서가 아니었고

다만 나라를 빼앗고  
겨레를 판 놈들이 있어  
산설고 물설은 이국땅을  
찾지 않으면 안되었고  
갖은 굴욕 다 겪지 않으면  
안되었다네

흙이란 좋구나  
땅이란 좋구나  
수령님께서 찾아주시고 길게 해주신  
조국의 흙이란  
더없이 좋구나

흙냄새 훈훈하게 풍기는  
기름진 조국의 땅을  
두손에 쥐고  
이 땅  
이 흙이  
진정 조선의 땅이고  
조국의 흙임을  
내 몇번이고 몇번이고  
되새기노라

수령님께서 보내주신

특별비행기로  
조국땅 처음 밟고  
수령님께서 찾아주신  
이 흙 이 땅을  
가슴가득 끌어안고

비오듯 앞을 가리는  
두줄기 눈물너머로  
아득하게 안겨오는  
조국의 오늘을  
눈부시게 바라보며

여기서 천리 저 남쪽

어두운 구름속에 떨고있을  
그 고장에도  
이 감격 이 기쁨  
나누기 위하여  
수령님의 만년장수를  
삼가 축원하고  
또 축원하나이다

아 아, 조선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김일성**원수님이시여!

(《조선문학》주체64(1975)년 8호)

# —조국해방 40돐—

## 은 인

## 김 철

배푸신 은혜 바다에 비하려니  
바다의 깊이에 한이 있고  
안겨주신 사랑을 산에 비기려 하니  
산도 높이에 끝이 있어라

노래하러 했노라—  
저 하늘에 무궁한 해와 별에 의탁하여…  
허나 별들에는  
그이 지니신 육친의 정이 없고  
해빛에도  
그이의 안광에 언제나 번쩍이는  
예지로운 사색의 빛발은 없었구나

아, 세상에서 가장 인정깊은분이시며  
세상에서 가장 비범한 위인이신 우리 수령님!  
내 만일 그이를  
한생의 은인으로 맞이하지 못했다면  
어찌됐을것인가…

나를 낳은 어머니를  
《엄마!》 한마디 조선말로 부른탓에  
해저문 교정 차거운 땅에  
죄인처럼 두무릎 꿇어야 했던 나는  
말과 글, 성마저 빼앗겼던 식민지소년

나의 작은 가슴에 그리도 엄청났던  
모멸받는 민족의 슬픔과 아픔을  
이 세상의 그 누가  
덜어줄수 있었던가 가셔줄수 있었던가

없었더라!  
오로지 우리 수령님께서  
눈보라치는 밤 우등불을 돌구시며  
백두산 남쪽의 피울음소리를 들어주시었고

오로지 한분 그이께서만  
만리 빙설천지를 헤쳐오시었더라  
오시여 이 몸을 안아일으키시고  
조선의 첫 연필을 쥐여주시었더라!

쥐여주시었더라  
그 연필 나와 함께 단단히 잡으시고  
해방된 조국땅에 써주시었더라  
저 푸른 하늘도 산과 바다도  
오로지 나를 위하여서만 존재하고있음을  
영원한 진리로 깨우쳐주셨더라

아! 때로 가만히 눈감고 생각하면  
그 모든것 혹시 꿈은 아니었던지…  
그것이 참으로 꿈이 아니었다면  
꿈같이만 흘렀구나 40년세월이어

그 해와 달들에 낮과 밤들에  
언제한번 편히 쉬셨던가 우리 수령님!  
이 땅우에 지지리도 역겨웠던  
마지막그날까지 다 가셔주시고도  
자신을 칭송함에 마땅한 말은  
지금껏 나에게 아니 가르치셨거니

고루고골라도  
달리는 못 고루는 나의 시어여  
해를 따라 깊어만지는  
은정에 달을 말이 없고  
날과 더불어 뜨거워만지는  
사랑 따를 글 짓지 못해  
내 40년전에 필생의 무기로 받아안은  
그 붓으로  
오늘 다시 땅에 가득 이 말을 새기노라

은인이시여! 어버이이시여!  
산이 바다 되고 바다가 산 되도록  
길이 건강하시여  
우리 민족 만대를 보호하시라!  
해와 달이 다하도록 별세계가 끝나도록

자애로운 한품에 인민을 안으시고  
천세만세 영원토록 기쁨을 누리시라  
(《조선문학》 주체74(1985)년 8호)

## 내가 살던 집

김 상 오

시가지를 가로질러 서북쪽 변두리  
가재바우골 못미처 산으로 가는 길목  
아마 여기 어디쯤에 있었으리라  
내가 나서 철들무렵까지 살던 집

일제가 《행복》의 거리라고 이름지었던  
행복이라곤 없었던 성아래동네  
한옆에 더러운 개울이 흘러지나가  
나의 어린 여름철은 감탕속의 미꾸라지였다

고새먹어 끓이 패인 초지붕 키낮은 주너  
우리 집은 포목상 박씨네 기와집에 눌러있었다  
내가 쓸어나오는 아궁앞에서 어머니는 늘 울고  
60전 월사금을 못 내서 쫓겨온 나도 울었다

제국대학을 다니던 기와집 둘째아들이  
고등문관시험에 합격하여 군수로 부임해왔을 때  
《불온》학생으로 감옥을 다녀온 우리 집 둘째—  
나는 방에 들어박혀 《가난이야기》를 읽고있었다

허나 우리 집에도 즐거움이 있었다!  
뜨락의 박우물과 청청한 오동나무 한그루  
새들이 모여들어 나무에서 우짖다가 날아가고  
나는 그밑에 누워 하늘을 쳐다보았다

나는 날아가는 새가 부러웠다 그의 날개가  
그리고 좁고 어두운 나의 집이 진저리났다  
그리하여 오동잎이 우수수 떨어지는 어느 가을날  
나는 우물에서 물 한바가지 퍼마시고 집을 나섰다

허나 슬프게도 나에게엔 날개가 없었다  
그 누구도 그것을 나에게 주지 않았다  
3년, 나는 한스럽게 하늘을 쳐다보며  
이국의 땅바닥에 삶을 짓밟히다 돌아왔다...

아니다! 나는 여기 나의 고향땅 그 어디에  
내가 살던 집을 찾으려고 오지 않았다  
나는 그럴 생각이 없다 꼬물만치도!  
지금 나는 밝고 넓은 집, 나의 공화국에서 살고  
있다

나는 큰사람 아닌 이 땅의 작은 한 시인  
무슨 옛집이라 남길것은 서투른 몇몇 시편들  
어둠던 나의 과거를 매장하고 높이 솟아오른  
너 진실로 행복한 삶의 나래침을 노래부르리

다만 기억의 폐허우에 되살아나 나를 붙잡는것은  
날아가는 새처럼 날고싶던 그 철없던 시절의 꿈  
나는 그때 몰랐다 인간의 자유가 무엇인가를  
그리고 인간이 무엇으로 날수 있는가를

지금 나는 안다 인간에게도 날개가 있다는것을  
날아갈듯 높은 집이 일어선 나의 옛 집터에 서서  
나는 생각한다 해방된 창조력— 바로 이것이  
인간의 날개임을 나에게 가르쳐준 우리의 땅을

(《조선문학》 주체74(1985)년 8호)

## 소원은 해를 따라...

오 영 재

해방되던 그해  
내 나이는 열살

다도해가 가까운  
고향의 작은 마을도  
감격에 겨워 잠들지 못했고  
모기불 피는 마당의 평상에 누워  
조국이 이제 안겨줄 그 모든것을 두고

나는 즐거운 공상의 세계를 날았다

하늘의 별도 따올듯 한  
열살소년의 그 공상  
그 땅에서 그것은 너무도 천진한것이였으니  
높이 날던 희망의 나래는  
때이른 세파에 지치고  
깃털은 찢겨져



락엽처럼 땅우에 흩날려내렸다

흩날려내렸더라

입학금이 없어 못 들어선 교정

쫓겨온 아들을 보며

어머니 눈물짓던 그 작은 프락에

나무지게 지고오르던

절레나무 가시영킨 산길에

항쟁에 의롭던 마을의 젊은이가

뭉이워 건너가던

앞개울 물 얇은 징검다리우에

조국이라 부르는 그 이름이

그대로 고통이어서

설음이고 눈물이어서

보충이 땅에 끌리는 나이에

나는 총을 메었노라

고향을 뒤에 두고

부모형제들과 헤어져

락동강을 건너 태백산줄기를 타고

내 기꺼이 안긴 품은

짓밟힌 열살소년의 그 꿈을 다시 불러

삶의 밝은 길우에 꽃피워준 품

여기서 마음의 기둥을 안고

삶의 뿌리를 깊이 내리며 서든다섯해

나는 알았노라

조국이 한 아들에게

얼마나 많은것을 줄수 있는가를

조국이 그대로

희망이고 기쁨이고 행복이고

둘도 없는 어머니인 이 땅에서

수령님과 당의 사랑속에

나는 젖어사나니

불행으로 고통으로

조국을 부르던 내 어린시절의 쓰라린 추억

참다운 조국을 찾으며

병사시절에 흘린 피가 없었다면

이토록 조국이 나에게 귀중할것인가

그 진심 가슴에 넘칠수록

소원은 해를 따라 자라만 가거니

내 고향 다도해

내 혈육이 있는 그 땅도

이 조국의 빛발아래 밝아지고

민족이 얼싸안고 변영의 큰길로 활개쳐갈

그날을 마련하며

그날을 당겨올

오직 하나 그 생각뿐이여라

(《조선문학》주체74(1985)년 8호)

—조국해방 50돐—

8월 15일은...

김 응 하

머슴살던 형님

《보국대》 갔던 아저씨도

우물집아주머니 가게방령감도

《해방이다!》

눈물속에 울고 웃으며

《김일성장군 만세!》 목터지게 부르며

거리가 메여지게 달려나오던

8월 15일

손바닥에 물집이 생기도록

술뿌리를 캐러

산에 오르지 않게 된것이 기뻐

《빠가야로!》 월사금을 못 가져왔다고

매와 함께 채찍처럼 내리치던

욕설을 듣지 않게 된것이 너무 기뻐

나도 덩달아 만세를 부르며

어른들의 뒤를 따라섰던

8월 15일

그날엔 미처 다 몰랐다

내앞에 얼마나 밝은 세상이

저 하늘 끝까지 열려져있는지

얼마나 큰 시련과

상상할수 없는 희생의 대가로

노예에서 주인으로

놀라운 운명의 전환 재생의 환희가

나에게 차례졌는지

미처 몰랐다

눈보라 밀림속

민족을 구원하시려

우리 수령님 헤쳐오신

장장 수십성상 피의 길—

철이 들어야  
 어버이 수고를 아는가  
 세월이 흘러갈수록  
 더욱 뜨겁게 깨닫게 되는  
 어버이수령님의 한없는 사랑  
 헤아릴길 없는 그 로고—  
 해마다 8월 15일이 오면  
 끝없는 감사의 노래되어  
 가슴에 깊이 더 깊이 젖어들더니

올해는 신번째로 맞은  
 8월 15일  
 못다 바친 효성을 다해  
 이날만은 이날만은  
 어버이수령님께 크나큰 기쁨을 드려  
 자식의 도리를 다하려고 했던만  
 아, 이제는 이날이  
 어버이 그리움에 가슴젖는 날인가

아니여라  
 아니여라  
 어버이수령님 바라신것은  
 우리만의 8월 15일이 아니었으니

온 겨레에게 이날을 주시려고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험한 눈두렁길을 걸으시었으니

8월 15일  
 이날은 깨우쳐주노라  
 재생의 그 은덕  
 그날의 환희 오늘의 행복  
 우리만이 누려서는 안된다는것을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  
 온 민족에게 안겨주실  
 통일의 그날  
 그날을 위하여  
 어버이수령님 찾아주신 이 한목숨도  
 서슴없이 바쳐야 함을  
 못다 바친 효성을 다하는 자식의 도리가  
 그 길에 있음을 깨우쳐주노라  
 8월 15일은  
 8월 15일은…

(《조선문학》 주체84(1995)년 8호)

—조국해방 60돐—

## 전설이 먼저 왔다

고 남 철

항일전의 나날  
 언제나 먼저 왔다  
 우리 수령님보다 우리 수령님 전설이  
 이 나라 거리와 마을마다  
 삼천리강산 그 어디나

가랑잎 하나 띄워놓고  
 압록강도 바람같이 넘나든다는  
 그 전설이 짜하게 퍼지던  
 그 여름에 광복의 봄빛안고  
 항일의 김대장 보천보에 오셨고

한걸음에 천리를 가고  
 하늘땅을 주름잡아 달린다는  
 그 전설을 앞세우고  
 우리 수령님  
 대낮에 갑무장비도로를 행군하셨지

제 눈으로 본듯이 방금 보고 온듯이  
 우리 **김일성**장군이 함흥에 와서  
 리발을 하고 가셨다는 이야기  
 백두산에 걸터앉아

왜놈 《천황》에게 불호령을 내리셨다는 이야기

언제나 전설이 먼저 왔다  
 김대장만 믿고 김대장만 따르며  
 기다리고 그려보는 인민은 마음속으로  
 신화의 거인으로 그려보았건만

개신광장에서 처음으로 뵈옵던 날  
 젊으신 우리 수령님모습 우러러  
 만민은 놀랐구나  
 그 놀라움조차 환희의 전설을 낳아  
 2천만 가슴에 안겨준 창창한 조선의 앞날  
 삼천리강산은 우리 수령님 전설의 삼천리

예로부터 전설은 위인을 칭송하여  
 후세가 위인에게 없어준 빛발이더라  
 허나 항일전의 날과 달은  
 우리 수령님 전설을 언제나 앞세우고 왔어라  
 해빛이 순간에 구만리창공을 비쳐오듯  
 우리 수령님 빛발 우리 수령님 전설은!

(《조선문학》 주체94(2005)년 8호)

# 《풍산휴양단》이 낳은 이채로운 형상

서 경 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없을 뜨거운 동지애의 새 역사를 수놓아가고계시는 오늘 천만군민에게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숭고한 믿음과 의리의 역사에 대하여 가슴뜨겁게 새겨보게 하는 한편의 작품이 있다.

단편소설 《풍산휴양단》(《조선문학》 2015년 4호 허문길 작)은 남반부에 고향을 둔 한 평범한 전사에게 베풀어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대해같은 사랑과 믿음의 세계를 감명깊은 화폭으로 펼쳐보여주고있는 이채로운 작품이다.

그러면 단편소설 《풍산휴양단》이 뜻깊고 이채로운 형상을 펼칠수 있는 근본요인은 어디에 있는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반작품에서는 대체로 거의 모든 장면들에서 주인공을 내세우고 크고 작은 인물선, 사건선을 그와 직접 연결시키군 하지만 수령을 형상하는 작품에서는 수령을 기본선과 잘 연결시키면 된다.》

모든 소설들에서 그러하지만 특히 생활용적이 작은 단편소설에서는 이야기를 작품의 사상주제적내용에 맞게 풍만하게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감칠맛이 나게 엮어나가겠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된다.

단편소설 《풍산휴양단》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무어주시신 3인풍산휴양단이 풍산땅에 내려가 전쟁전적의 2개 대대 력량을 이끌고 공화국북반부의 품에 안긴 일군인 강태무의 신상에 제기된 비정상적인 문제점들을 간파하고 한 인간의 정치적파멸을 막아내는 이야기를 기본내용으로 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도 가르쳐주시바와 같이 일반작품들에서는 대체로 거의 모든 장면들에서 주인공을 내세우고 형상의 모든 초점을 주인공에게로 집중시키지만 수령을 형상하는 작품에서는 수령을 기본선과 잘 연결시켜야 한다.

작품을 보면 알수 있는바와 같이 얼핏 보기에는 강태무라는 인간의 정치적파멸을 막아주는것이 풍산휴양단의 유력한 세 인물인듯싶다.

그도 그럴것이 작품의 전반내용이 강태무라는 인간에 대한 3인풍산휴양객들의 믿음과 보증으로 일관되어있고 또 그 휴양객들의 배경도 이만저만 간단치 않기때문이다.

그 이름만 들어도 왜놈들이 바지에 피오줌을 갈기던 항일의 백전로장 최현이며 김일 제1부주석, 당

중앙검열위원회 책임일군인 한기훈 등으로 이루어진 풍산휴양단은 무시할수 없는 권위를 지닌 어마어마한 휴양단이었다.

그러나 실은 강력한 휴양단을 무어주시고 한번 믿음을 주고 정을 주신 혁명전사 강태무의 정치적파멸을 막아주시기 위해 애쓰신분은 바로 우리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이시였다.

작품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처음부터 로출시키고 들어간것이 아니라 영문도 모르고 때아닌 때 한가한 휴양객이 된 의문을 안은채 《내키지 않는》 휴양의 길을 떠난 3인풍산휴양단의 발자취를 따라 형상의 초점을 맞추어나감으로써 작품의 예술적흥미와 극적전인력을 높여주고있다.

작품의 첫 머리에서 제시되어있는바와 같이 최현은 영문도 모르게 떠난 휴양길에 대하여 풀길 없는 수수께끼를 안고있으며 풍산땅으로 같이 가게 된 김일제1부주석도, 지어는 당중앙검열위원회 책임일군인 한기훈까지도 자기들이 떠나게 되는 휴양길의 내용을 전혀 모르고있다.

때아닌 때의 《내키지 않는》 휴양길이지만 위대한 수령님의 지시라 그들은 두말없이 길을 떠난다.

바로 이때 휴양객들을 마중나온 풍산군인민위원회 일군들속에서 뜻밖에도 옛 시절의 사단장출신인 강태무부위원장이 있는것을 발견한 최현이며 김일, 한기훈 등은 뜨거운 걱정속에 옛 전우와 감격적으로 상봉한다.

그중에서도 강태무의 직속상관이였으며 직통배기성미인 최현은 옛 부하에 대한 뉘그러는 반가움속에서도 자기를 보고 단박에 《군단장동지, 사단장 강태무—》하고는 달려들지 못하는 그를 눈물겹게 꾸짖으며 감격적으로 포옹한다.

그뿐만아니라 김일이며 한기훈도 강태무와 뜻깊은 상봉을 한다.

그러고보니 세명의 풍산휴양객전원이 신통히도 강태무와 뉘러야 뉘수 없는 깊은 인연을 맺고있는 인물들이였다.

최현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강태무사단장의 직속상관으로서 전화의 험준한 산발들을 함께 넘으며 생사운명을 같이한 가장 가까운 전우였고 김일은 군사위원으로 있을 때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을 받고 리승만의 마수로부터 강태무사단장의 가족을 구출하여보낸 인연을 가지고있었다.

한기훈도 전쟁시기 강태무사단장과 함께 문화부

런대장으로, 그후에는 문화부사단장으로 사선을 함께 넘으며 피로써 엮혀진 사이였다.

그들모두는 옛 전우들이 이렇게 풍산골에 모여 들었으니 이것도 천생연분인것 같다고 못내 기뻐들 한다.

그러나 풍산땅에서의 첫걸음부터 그들은 강태무 부위원장의 신상에 떠도는 이상한 분위기를 감촉하게 된다.

한개 군의 호주로서는 지나치게 집형편을 볼품없이 만들어놓고 사는 강태무에 대한 불만이 그 시작이었다.

절반 꺾어져 볼품없는 나무굴뚝과 바람과 비에 고삭아 꺼져내린 지붕이며 변변한 가장집물 하나 제대로 갖추어진것이 없는 구구명만 한 방, 감자만 골짜하니 들어있는 쌀독이 바로 한개군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의 살림의 전부였던것이다.

집형편이 얼마나 처참했던지 좀체로 자기 감정을 쉽사리 드러내는적 없는 김일까지도 화를 참을 수 없어 역증을 낸다.

풍산휴양객들은 직접 팔을 부르짖고 옛 전우의 집수리를 도와나서지만 왕년의 사단장시절의 패기는 가뭇없고 꺼져부정한 몸가짐새에 집안꼴마저 볼품없이 만들어놓은 강태무의 태도에 대한 불만을 삭이지 못한다.

이러한 불만은 숙소를 정하는 문제와 길잡이문제에서 군인민위원회 위원장과 합의를 보지 못하는것으로 하여 더욱 격화된다. 강태무의 신상에 따라다니는 불신의 검은 그림자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강태무일로 축적된 휴양객들의 분노는 드디어 휴양 마지막날에 격노한 폭발을 가져오야만한다.

휴양 마지막날에 최현이 솜씨를 발휘하여 잡아메친 메돼지로 푸짐한 저녁식사를 마련한 자리에 이름까지 꼭 짚어 참가시키게 한 강태무랑주가 또다시 빠진것을 놓고 드디어 참고참던 분노를 터뜨려 놓고야말았던것이다.

최현과 김일, 한기훈 등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아끼고 믿어주시는 강태무라는 인간에게 들쭉위치는 불신의 구름장을 산산이 조각내려는듯 안타까이 절규한다.

《동무들의 가슴이, 심장이 너무 싸늘하단 말이요. 심장이 얼음갈에서는 혁명을 못해. 우리가 어떻게 만주의 수림속에서 장장 스무해세월을 넘여온지 아오? 동지에 대한 믿음, 동지에 대한 사랑—이거요. 사랑과 믿음이 없는 혁명은 오래 지탱 못하고 종당에는 주점이 들고 아예 주저앉는다는것이 수령님의 뜻이요. 명심들 하시오. 이게 바로 우리 혁명의 명맥이요! 백두의 뉘이란 말이요! 우리가 이제 수령님을 뵈오면 여기 이야기를 해야했는데 수령님께서 얼마나 가슴이 아파하시겠는가?!》

이것은 가슴을 두드리며 강태무를 보증해나서는 최현이 풍산군일군들앞에서 터치는 절절한 심장의 웨침이다.

김일도 한기훈도 아버지수령님께서 강태무라는 인간에게 돌려주시는 사랑과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강태무라는 인간의 참다운 사람됨에 대해서 정을 담아, 믿음을 담아 뜨겁게 이야기해준다.

결국 빨찌산출신 로투사들의 견결한 보증과 완강한 노력은 혁명의 길에서 영원히 파멸의 나락으로 굴러떨어질번 하였던 한 인간의 정치적생명을 지켜주었으며 또 사람들로 하여금 주체혁명의 명맥이 무엇이고 백두의 뉘이 무엇인지 똑똑히 알게 해주었다.

풍산휴양객들의 이러한 사업성과는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평가를 받게 되며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듣고서야 그들은 자신들을 풍산땅에 파견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풍산휴양단의 귀환보고를 들으시며 사실 이번에 갑작스레 풍산휴양단을 조직하게 된것은 바로 항일의 백전로장들이 직접 풍산땅으로 가서 강태무동무에게 들쭉위치는 불신의 온갖 허물을 벗겨내고 그를 파멸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였다고 뜨겁게 말씀하신다.

결국 주인공들도 몰랐고 독자들도 몰랐던 풍산휴양길에는 한번 믿음을 주시면 끝까지 믿으시며 영원히 혁명대오에 서도록 이끌어주시는 아버지수령님의 한없이 숭고한 믿음과 의리의 세계가 응축되어있었던것이다.

이처럼 소설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형상을 작품의 인물선, 사건선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지 않으면서도 전반적인 형상의 기본선과 잘 연결시키고 독자들의 기대와 흥미를 돋구어줄수 있도록 이야기줄거리조직을 잘함으로써 작품이 단순한 휴양 이야기로부터 혁명전사의 정치적생명을 위하여 온갖 심혈을 다 바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뜨거운 믿음과 의리에 대한 서사시적화폭으로 승화되도록 하고있다.

이러한 소설의 구성상특성은 작품의 소재로 된 혁명일화의 내용상특성과도 관련된다고 말할수 있다.

창작가는 그 어떤 요란한 정치적평가나 실무적 조치에 의해서가 아니라 피흘리며 함께 싸워온 전화의 옛 전우들이 혁명동지의 당적량심, 정치적생명을 보증해주도록 해주시고 검열단이 아니라 휴양단을 못도록 하여주시는 아버지수령님의 숭고한 뜻과 투사들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지 않도록 사전에 아무런 말씀도 해두시지 않은 수령님의 깊은 의도를 가슴뜨겁게 체득하고 그에 어긋남없이 예술적형상의 나래를 펼치기 위하여 탐구에 탐구를 거듭하는 과정에 이와 같은 독특한 구성형식을

# 못 잇을 그해 8월에

곽 명 철

못 잇을 그해 8월 15일  
조국이 해방되었다는 소식에  
이 땅 어디서나  
약속이나 한듯이 일시에 터져올랐다  
《김일성장군 만세!》

눈물을 흘리며  
서로 부둥켜안으며  
목청껏 만세를 부르고 또 부른 사람들  
그들은 굳이 다른 설명이 없었어도  
이 조국을 누가 해방시켜주셨는지  
너무도 잘 알고있었다

눈에 삼삼히 떠올랐다  
온 삼천리가 항기로 일떠섰으나  
끝내는 뜻을 이루지 못한  
뼈아픈 3.1만세의 그날이  
가슴에 이는 분노의 불 하나만을 안고  
또다시 용을 쓰며 일어섰으나  
끝내는 피흘리며 주저앉고만  
가슴아픈 6.10만세의 그날이

인민들은 것처럼 일구월십 바랐건만  
조선의 해방만은 안아오지 못했다  
당장이라도 왜놈들을 쳐몰아낼것 같던  
의병의 결기있던 만세소리도  
저마다 총을 들고 동분서주하던  
독립군의 의기높던 그 만세소리도

오, 세월속에 사람들은 깨달았더라  
진정한 수령의 령도가 없이는  
어떠한 싸움도

어떠한 투쟁도  
모두가 걸음걸음 실패와 좌절뿐임을  
그때부터였다  
우리 혁명의 려명이 동트던  
력사의 그 첫 기슭  
한별만세가 터져오른 감격의 그날부터  
이 땅에는 압제의 얼음장이 터갈라지기 시작했다

꺼질줄 몰랐다  
《김일성장군 만세!》의 그 웨침은  
첫 무장대오 정렬했던 안도의 밀림을 지나  
조국의 밤하늘을 뒤흔든 보천보의 그 거리를 돌아  
원썬들의 멸망을 단호히 선언한  
무산지구의 그 통쾌한 친구들을 거쳐...

오오, 마침내 오고야만 해방의 그날  
온 삼천리를 진동하던  
《김일성장군 만세!》  
그 눈물젖은 웨침에서  
인민은 알았다  
《김일성장군 만세!》로 안아온  
《조선독립 만세!》를

못 잇을 그해 8월부터  
세월은 흘러 70년!  
인민은 보았다  
수령만세로 승승장구해온  
우리 조국의 력사를!  
그리고 확신했다  
수령만세로 영원무궁할  
우리 조국의 미래를!

~~~~~

탐구하고 이채로운 형상을 창조하였다고 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강태무를 그렇듯 믿으시고  
고 또 자신처럼 믿으시는 전우들이 자신처럼 강태  
무를 건져주기 바라시였던것이다.

바로 이런 점을 놓치지 않았기에 소설에서는 풍  
산휴양단의 휴양과정과 그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세심한 관심과 보살피심에 대한 형상을 웅당한 사  
상예술적높이에서 훌륭히 재현해낼수 있었다.

일심단결은 어제에 이어 오늘과 그리고 래일에  
도 영원히 우리 혁명의 명맥을 이어나가게 하는

혁명의 천하지대본이며 혁명전사들에게 배푸시는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육친의 사  
랑과 믿음을 떠나서 우리 혁명의 일심단결을 생각  
할수 없다.

모든 창작가들은 우리 사회에서 수령과 전사사이  
에서 맺어지는 가장 순결하고 고상한 믿음과 도덕  
의리의 세계를 높은 사상예술적수준에서 형상해내  
기 위하여 고심하고 또 고심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일심단결의 화원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훌륭한 문학  
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해야 할것이다.





# 마르지 않는 샘

리 주

1

주학섭은 무거운 걸음으로 퇴지를 내려섰다. 마당에는 웅기중기 짐짝들이 웅크리고있었다. 인기척이 나자 빙글빙글 버짚타래를 두른 김치독뒤에서 아직 강아지풀을 벗지 못한 검둥이가 살래살래 꼬리를 저으며 기어나왔다.

늦잠을 자다 들킨것이 먼구스러운듯 여느때처럼 어리광을 부리며 달라붙지 않았다.

주학섭이 역시 그놈을 눈에 두지 않았다. 희끄무레 더가는 동천하늘을 잠깐 보고섰다가 울바자틈에 끼워두었던 낫을 찾아취자 쪽대문을 향해 걸음을 옮겨놓았다.

이제 며칠 있지 않아 그는 이 집을 떠나야 했다. 이사집을 꾸리기 전까지도 주학섭은 이 정담긴 집과 알뜰한 트랙을 떠나게 되리라고는 생각 못했었다. 마흔해를 넘긴 군대복무끝에 문득 찾아든 평온이어서 다소 의아쩍은 마음으로 감수하려들었던 이 생활에 이제는 정경이마저 폭 잠그었던것이다. 그는 이곳 군관사택마을에서 여생을 보내려고 작정했었다. 그러나 정작 부닥치고보니 일이란 언제나 자기가 바라는대로만 되지 않는것 같았다. 바랄일만 그런것도 아니었다.

군대시절에는 집안에서도 군물이 꽤 통하는듯 했으나 지금은 되려 로친네의 《훈수》에 머리털이 셀 지경이었다. 아무리 해도 어깨에 붙지 않는 제 깃양복때문에 그러했고 아침에 들로 나갈 때이면 채양이 너른 모자를 군대식으로 꼭 눌러쓴다고

지칭구였다.

그래도 좋았다. 새날을 여전히 군대기상나팔소리로 시작할수 있는것이 좋았고 저녁이면 자기 사단(그는 제대되기 전까지 사단정치위원으로 사업했었다.) 병사들의 우렁찬 군가를 듣는것으로 행복했다. 그리고 보다는 생각날 때마다 부대가까지의 철사묘에 안치되어있는 전우들을 찾을수 있어 좋았다. 지금도 주학섭은 그리로 가는 길이였다. 이사를 가면 자주 보지 못할 봉분들이어서 이제 며칠 남지 않은 날만이라도 번지지 말자고 마음쓰고 있었다.

《아니, 잠깐 예 좀 보시우.》

대문가에 이른 주학섭을 로친네가 불러세웠다.

《샘터엔 안 가시겠수?》

《안 가다니... 바루 그리루 해서 한걸음에 휘둘러 운동장에 갈테네.》

《그럼 됐수다. 이 바가지들을 샘터에 가져다놓으시우.》

《바가지를... 임자가 천천히 가져다놓지.》

《오늘이야 명절 아니유, 샘터에 오는 군대들이 첫아침부터 새 바가지를 쓰면 좋아할거예요.》

로친은 다랑다랑 마른 바가지들을 가져다 어정정해있는 주학섭의 가슴에 듬뿍 안겨놓았다. 주학섭은 난감해져 눈을 흘겼다.

《마을아낙네들이 날 무슨 바가지장수쯤으로 알고 하나씩 내라구 달라붙으면 야단 아닌가....》

《그럼 뭐 어때요, 집으루들 보내시우. 내 하나씩 줘보내지 않으리.》

가족소대장으로 한생을 살아온 드세찬 로킨이 이 좁하면 별도리가 없다. 그는 들기 맞춤하게 몇개씩 겹쳐뭍은 바가지들을 바른손으로 옮겨쥐며 목소리를 낮추어 당부했다.

《성철이가 오거든 렬사묘에 곧장 보내라구.》

《알겠수다. 그런데 군사부사단장동지보구 성철이가 뭐요.… 자기가 아직 사단정치위원인줄 아시우?》

《그 친구두 이제 군복을 벗었소.…》

《?!…》

《나이가 적지 않거던. 임자두 인츰 렬사묘에 오라구.…》

주학섭의 목소리는 새벽어스름속에 잦아들었다. 군복을 벗었다는 말 한마디로 불시에 마음이 서글퍼지는것을 어쩔수 없었던것이다. 신작로에 나서니 바야흐로 뚜렷해지는 하늘밑에서 어둠이 비실비실 쫓기는 모양이 행동했다.

둥이 트고있었다. 푸릿해지는 하늘을 보니 가슴이 후련해지고 어깨가 건뚫 들리는것 같았다. 주학섭은 새벽어스름속에 고즈넉이 드러누운 신작로를 씨엥씨엥 걸었다. 그는 집에서 멀지 않은 샘터까지 매번 이렇게 군대식으로 걷군 했다.

얼마 가지 않아 샘터를 지켜선 미루나무의 충충한 모습이 보였다. 주학섭은 걸음을 늦추었다. 이름할수 없는 회억이 가슴을 덥혀주는것만 같았다.

저 나무는 주학섭의 한생에 생생한 자욱을 남기고있는 조국해방전쟁의 나날들과 잇닿은 소중한 추억을 돌이켜주고있었다.

물맛좋은 샘터가까이에 자리잡고있어 이 고장 사람들이 《샘물집》으로 부르던 자그마한 기와집, 차랑차랑 기슭을 씻는 샘물우에 곱게 굳힌 바가지를 동동 띄워놓고 방석이 웃음을 짓던 샘물집 처녀… 함치르르 윤기가 흐르던 그의 머리에도 어느덧 하얗게 서리가 내리고 보조개가 곱던 량볼도 잔주름에 얹히웠다. 변한것은 그뿐이 아니였다. 키보다 큰 보총을 메고 뜨거운 탄피를 밟으며 전장을 달리던 주학섭이 군복을 벗을만큼 세월이 가버렸다.

샘물집은 지금 없다. 전쟁이라는 거대한 사변이 휩쓸어가버렸던것이다. 그러나 산기슭의 아담한 군관마을에 살림을 편 샘물집처녀는 그 전쟁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젊은 녀인들을 가르쳐왔다. 총대를 메고 한생을 살아오는 남편과 더불어 그도 원썬격멸의 노래 높이 불바다를 헤쳐온 시련 많았던 전화의 나날들을 잊지 않고있었던것이다. 미루나무도 샘터를 지켜 변함없이 서있다. 조금만 바람이 불어와

도 수천수만의 푸른 잎사귀들을 소리없이 흔들며 끝없이 설레이는 미루나무…

문득 주학섭은 걸음을 멈추었다. 샘터의 돌의자에 웅크리고앉은 웬 사람의 모습을 보았던것이다. 주학섭은 눈섭 바투 눌러쥔 모자의 채양을 밀어올렸다.

(이 새벽에 웬 길손이…)

분명 군잠에 노그라든것 같았다. 무슨 일이 있기에 봄날의 산산한 새벽바람도 마다않고 샘터에서 날을 맞는걸가.

주학섭은 발을 저거디디며 샘가로 다가갔다. 터오는 새벽빛이 샘터의 정갈한 모양을 고요히 밝히고있었다. 샘터결의 너럭바위가 눈에 띄었다. 빨간 라크로 획을 둔군 글자들이 마음에 먼저 안겨왔다.

《수령을 위하여!》

주학섭은 입속으로 글자들을 읽었다. 억년 드눌지 않을 바위에 신념의 글발을 새겨놓고 삶과 죽음을 판가리하는 준엄한 싸움길로 서슴없이 떠나가던 잊지 못할 전선길이 눈에 선히 떠오르고있었다. 아무리 많은 세월이 흘러간다 해도 조국을 위하여 청춘도 삶도 아낌없이 바쳐싸워온 그 나날들을 주학섭은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다.…

바위에는 금방 씻어내기라도 한것처럼 싱싱한 들꽃 한뫼음이 정히 놓여있었다. 잠시 꽃뫼음을 보고있던 주학섭은 샘터의 돌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눈길을 돌렸다. 순간 그가 눈을 뜨며 벌떡 일어섰다.

《소대장동지…》

《아…》

주학섭은 손에 든 낫이며 바가지따위들을 저도 모르게 땅에 떨구었다.

《이게 얼마만인가, 영?》

《꼭 두해만입니다.》

현성철은 아귀센 손으로 주학섭의 손목을 꼭 잡아서는 떨어저라 흔들어댔다. 옛 상관을 알아본 그의 주름깊은 눈가에 핑— 물기가 어리고있었다.

《여전하군요, 소대장동지.…》

《여전하다니, 이제 농사군이 되고말았네.》

《농사군이 돼야지요. 그런데 이사를 간다는건 웬 말입니까?》

《나이가 있질 않나. 이제 자식들에게 얹혀살아보려네, 늦긴 했네만 손자녀석들에게 할아버지구실 두 좀 하구.…》

주학섭은 대수롭지 않은듯 웃음을 지었다. 그러나 정녕 손자들에게 못다 해준 할아버지구실을 입

에 올리는 순간엔 저절로 눈귀가 쪼프러졌다. 자기 생의 그늘진 부분이 마음속에 비쳐드는것을 어쩔수 없었던것이다. 그는 군복을 입고있는 현성철을 의아쩍게 바라보았다.

《아직 인계를 끝내지 못했나?》

《어제 오후 군단지휘부에 가서 작별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구…》

현성철은 말을 잊지 못했다. 그는 새삼스런 눈길로 샘터를 둘러보고나서 두손으로 너럭바위를 어루쓸며 무릎을 꿇었다.

《군복을 벗어 걸기 전에 전우들에게 인사를 드리 고싶어 왔습니다. 나까지 제대되었으니 이제는…》

현성철이 무거운 눈길로 주학섭을 보고있었다. 목소리가 갈린듯 했다.

《제대되어가는 전우들을 바래올 때마다 마음의 군복만은 벗지 말라고 애길 했지만 정작 자기에게 닥치니…》

주학섭은 오늘을 마감으로 영원히 군복을 벗어야 하는 현성철의 마음을 알고도 남음이 있었다. 몇해 전 자신이 이 샘터와 전우들의 봉분을 찾아 군인으로서의 마지막인사를 올렸던것이다.

세월은 이렇게 불가항력적인 힘을 지니고 흐른다. 그러나 그 흐름으로써도 결코 달라지게 할수 없는것이 있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이었다.

주학섭은 바가지를 반듯한것으로 꼰라 물에 띄웠다. 나머지는 샘가의 나무죽한 돌우에 얹어놓았다. 손기빠른 녀석은 물우에 뜬 고운것을 먼저 쥔것이고 사려깊은 축들은 얹전을 빼는 돌우의것에 눈이 갈것이다.

짬만 생기면 병사들이 찾아오고 군관가족아낙네들마저 시간을 쪼개어 정갈하게 거두어오는 샘터여서 손떨것이 없었다. 그러나 두 전우는 무던히도 오래동안 쓸고 닦았다. 샘터 주변의 잔자갈들을 물로 씻었고 너럭바위의 글자판에 걸레질을 했으며 미루나무의 처진 잔가지들을 가쁘히 다듬기도 했다.

그들이 일을 끝낼무렵 멀지 않은 부대병영에서 아침일파의 두번째 시간을 알리는 나팔소리가 울렸다. 현성철이 군복저고리에 팔을 꿰며 아쉬운듯 샘터를 둘러보았다.

《한대 태우구 같가요?》

《아니, 더 있고싶네만… 인츰 병사들이 올거네. 그땐 샘터를 거둔 우리들이 먼구스러워지거던.》

《그럼 렬사묘에 갑시다.》

《그러세, 나팔소리를 들었으니 아마 우리 집사 랑도 떠났을거네.》

현성철의 거뭇한 얼굴에 처음으로 웃음이 피어났다.

《참, 인사가 늦었습니다. 샘물집쳐녀동문 잘있 는가요?》

《그 사람은 여전하네. 그런데 하고싶은 얘기란 뭔가?》

《이젠 이 바위에 새겨진 글발과 샘터가 우리들과 어떤 련관이 있는가를 부대의 지휘관동무들에게 알려줄 때가 되지 않았을가요?》

심각한 생각에 잠긴 현성철이 주학섭을 향해 돌아섰다. 주학섭은 그의 두눈에 더없이 간절한 기대가 비껴있는것을 보았다. 그는 빨간 라크가 반짝이는 글발을 이윽도록 들여다보았다.

《수령을 위하여, 1951년 9월…》

마지막 몇글자는 알아보기 어려웠다. 승모아바이의 필체였다. 반생을 땅에 묻으며 고역속에 살아온 사람이여서 삭정이를 부러뜨려 무은듯 획들이 바르지 못했다. 그러나 기어이 자기 손으로 글을 새기겠노라 고집하며 부러진 총창을 정대처럼 틀어잡던 그의 모습이 글자마다에서 안겨왔다.

《이보게 성철이, 술을 가져온게 있나?》

《예? 여느땐 별로 즐기지도 않던 술은 왜 갑자기…》

《왜 그런지… 생각이 좀 나누만. 이제는 동무까지 제대되었다고 해서 그런지… 자꾸 전우들 생각이 나는게… 전선을 넘어가던 날 우리 여기서 축배를 들었지. 승모아바이가 이 너럭바위에 글을 새긴 며칠후였어.》

《그날 샘물집쳐녀가 달바가지로 고뿌마다에 찰랑찰랑 샘물을 부어주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보이는듯 합니다.》

《그랬었지. 그땐 우리가 샘물로 축배를 들었지만 오늘은…》

주학섭의 두눈이 가느스름하게 쪼프러졌다. 멀리 흘러간 세월의 한끝을 되짚어보듯 깊이있는 눈길이었다.

《처음은 소대의 좌상이었던 김승모아바이, 다음은 무산출신의 분대장 광철동무에게, 세번째는 청진이 고향인 부분대장 박창욱, 다음은 개천태생 최영근이, 불도젤운전수 장철혁이, 소대에서 키가 제일 작았던 최일선이…》

주학섭은 마치 살아있는 사람과 마주한듯 또박또박 전우들의 이름을 불렀다. 일곱명의 이름을 모두 외우고나서 군인들이 샘터에서 쓰는 고뿌 두개에 현성철이 가져온 술을 부었다.

《우리 무엇을 위해 들가요?》

《무엇을 위해?... 그거야 그때처럼...》

두사람은 고뿌를 든채 서로 마주보며 소리없이 미소를 지었다. 이렇게 추억에 잠겨드노라니 전우들과 함께 아늑한 엄폐호의 암반에 어깨들을 기대고앉아 마라초를 말고있는듯이만 생각된다. 그 멧에 주학섭과 현성칠은 때없이 이 샘터를 찾곤 하는 것이었다.

멀지 않은 곳에서 승용차의 발동소리가 부르릉 거렸으나 두 로병은 알지 못했다. 진록색풍을 새벽 이슬로 폭 적신 야전승용차 한대가 달려와 미루나무가까이에서 멎었다.

차에서는 두 젊은 장령이 민첩한 동작으로 뛰어내렸다. 두사람은 주학섭이네를 띄어보자 곧추 샘터쪽으로 다가왔다. 주학섭과 현성칠은 어리둥절해져서 한자리에 서있었다. 주학섭과 함께 부대를 이끌던 사단장 김명국과 총참모부의 부국장이었다.

《이 동무들은 뭐요?》

부국장의 날카로운 목소리였다. 그의 모가 선 눈길에 주학섭이 들고있는 범랑고뿌를 거쳐 샘가의 돌우에 놓여있는 술병에 가 멎었다. 장령의 눈빛이 노여움으로 어두워졌다.

《나이가 적지 않은 사람들이 새벽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우린 저...》

《동문 어느 사단에서 복무하는 사람이요?》

부국장이 변명하려드는 현성칠을 향해 따지듯 물었다. 현성칠은 오랜 습관대로 턱을 당기고 허리를 꼴꼴이 폈다.

《린점사단에서 복무했습니다. 얼마전에 직무를 인계하구...》

《규율이 없소, 병영가까이에서... 군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겠는가.》

주학섭은 머리를 떨구었다. 장령의 지적이 옳다고 생각되었다. 순간이나마 마음의 탕개가 풀어진 자기를 깨달았다.

《잘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군복을 벗었다 해도 총대를 들고 조국을 지키던 군인시절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대군관동지들...》

《명심하겠습니다, 장령동지...》

주학섭은 낮을 찾아들고 무거운 걸음으로 돌아섰다. 잠시후 두 장령은 급히 차에 올랐다. 멀어져가는 승용차를 보고있는 현성칠의 두어깨가 곁에서 보기 민망스러울만큼 처져내렸다.

《우린 이제 성쌍고 남은 돌입니다. 군복을 벗어 걸구 대오에서 물러서는게 옳은 처사지요.》

《젊은 사람들이... 부럽소. 그들은 최고사령관동지를 받들어 일을 많이 할거요.》

《최고사령관동지를... 한번만이라도 더 뵈고 싶습니다.》

《그랬으면 오죽 좋겠는가. 하지만 이제 그런 행운을 바란다는건...》

눈부신 아침해가 떠올랐다. 어둠이 드리웠던 샘터가 환히 밝아졌다. 새 이파리들이 무수히 돌아나고있는 미루나무의 가지마다에서 이름모를 새들이 즐겁게 지저귀기 시작했다.

두사람은 묵묵히 하얀 자갈이 박혀있는 길을 걸었다. 샘터에서 퍼그나 멀어졌을 때에야 주학섭은 지금껏 현성칠이 들어본적 없는 그런 놀린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우린 이제 군인이 아니야. 장군님앞엔... 그이께 기쁨을 드릴수 있는 젊구 재능있는 사람들이 나서야 하네.》

《삼년만 젊었다면... 한 일없이 나이만 먹은게 한스럽습니다.》

현성칠은 머리를 젖히고 불길마냥 타오르는 아침노을을 바라보며 탄식했다. 주학섭은 머리를 가로저었다.

《너무 마음을 쓰지 말게. 내 이사를 가기 전에 시간을 내서 부대의 지휘관동무들에게 우리들의 부탁도 전하구 샘터에 깃든 사연도 다시 이야기해주도록 하겠네.》

## 2

조약돌틈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은 찰랑찰랑 가냘을 씻으며 넘쳐나서는 좁게 낸 도랑을 따라 졸졸 소리내며 흐르고있다. 보는것만으로도 땀이 쑥 들어가버릴듯 시원스럽다. 이 샘터의 다감한 모양은 여기에 넘치고있는 따뜻하고 정찬 생활의 흐름을 그려주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샘터의 류다른 정취를 음미하시며 사단장 김명국으로부터 부대의 연혁과 샘터에 깃들어있는 가슴뜨거운 이야기를 들으시었다. 너럭바위에 새긴 글발이며 정갈하게 꾸려진 주변풍경들도 레사롭게만 생각되지 않으시었다. 보이는것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안아온 인민군용사들의 영웅적위훈을 말해주고있어 전선시찰의 길에 겹쌓인 피로마저 잊으시었다.

《한치, 한치의 땅을 지켜 미제와 피어린 결전을 벌려온 우리 병사들의 조국애가 깃들어있는 샘물터를 잘 꾸렸습니다. 적들의 〈추기공세〉를 짓부셔



버틸데 대한 최고사령부의 작전적의도를 받들고 적 후에 진출했던 아홉용사들의 위훈을 소개한 해설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이께서는 말끝을 흐리시며 천천히 자갈이 깔린 휴식터를 거니시었다. 금방 들으신 이야기에서 무엇인가 석연치 않은것이 느껴지시었다. 너럭바위에 새겨진 글발을 귀중히 여겨 누군가가 소박한 들꽃다발을 가져다놓은것도 레사로운 일로만 생각되지 않으시었다.

《여기에 자주 꽃송이가 놓이곤 합니까?》

《예, 부대의 병사들과 가족들이 드문히 꽃송이를 가져다놓곤 합니다. 오늘은 명절이어서 누군가 왔다간것으로 생각됩니다.》

한순간 김명국의 눈에는 심상치 않은 낮빛으로 자기를 보고있던 제대군관-두 전쟁로병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여기 사단에서 정치위원을 하다가 자기가 사단장으로 부임되어온 후 얼마 안 있어 제대된 전쟁로병-주학섭은 퍼그나 깔린 목소리로 말을 건네오기까지 했었다. 혹시 그들이...

《명절이어서 꽃다발을 가져다놓았다?!》

장군님께서는 의문담긴 시선으로 젊은 사단장을 보고계시었다. 꽃은 경우에 따라 여러가지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대체로는 축하와 경의, 추억의 뜻을 담는다. 그렇다면 이 너럭바위우에 놓인 꽃송이들은 누군가의 가슴에 소중한 간직되어있는 어떤 추억의 상징으로도 볼수 있지 않을까...

혹시 이 샘터에서 불타는 조국애를 더 굳게 다지고 전장으로 떠나간 아홉용사들을 잊지 않으려는 이곳 부대군인들의 소행일수도 있었다.

장군님께서는 봄을 맞은 미루나무의 풍만한 아지들을 사뭇 정답긴 눈길로 바라보시었다. 오랜 세월 자연의 온갖 황포에도 끄떡없이 인간세상의 무수한 사변들을 묵묵히 지켜보아온 미루나무, 수십년 전 이 샘터에 둘러앉았던 용사들의 가슴에도 소중한 간직되었을 나무였다.

《적후에 들어갔던 아홉용사들은 그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장군님께서는 사단장에게 다시 물으시었다. 1211고지를 방위하기 위한 아군연합부대의 작전수행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식으로 소박하게 마무리된 해설이 좋게 생각되시면서도 무엇인가 미흡한 점이 느껴지는것을 어쩔수 없으시었다. 전사들의 생사운영과 이어진 하많은 사연과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이 아직 더 있을것만 같으시었다.

김명국이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었다.

《아군연합부대가 공격을 개시하여 적들이 차지

한 계선을 돌파하였을 때엔 그들이 모두 전사하였다고 합니다.》

《모두가 전사했다?...》

당시의 가렬한 전투정황에서 적후에 파견된 습격조원들의 생명은 무엇으로써도 담보될수 없었다. 그것을 잘 알고있었기에 전사들은 격전장으로 떠나기 앞서 이 샘물을 마시며 뜨거운 가슴마다에 원썬격멸의 의지를 더 굳게 다지였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안녕과 조국의 무궁번영을 길이 축복한것이 아니었겠는가...

장군님께서는 그의 대답을 긍정하고싶지 않으시었다. 아홉용사모두가 전사하였다는것만은 아무리 해도 믿을수 없으시었다.

《습격전에 나갔다가 전사한 용사들중에서 일곱명은 렬사묘에 안치되어있습니다.》

장군님께서 무엇인가 석연치 않아하신다는것을 느낀탓인지 사단장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다.

《렬사묘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장군님께서는 김명국의 보고를 들으시고 잠시 생각에 잠기시었다.

《적후에 파견된 용사들은 9명이라고 했는데... 이 샘터는 어떻게 되어 〈7용사샘물터〉로 명명하였습니까?》

《그건 미처... 제가 오기 전부터 샘터를 그렇게 부르고있었습니다.》

사단장은 얼굴을 붉혔다. 장군님께서 이런 문제에 이르기까지 세심하게 물으시리라고 생각 못했던것이다.

《7명의 용사들만 렬사묘에 안치되어있다면 나머지 두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에 대해서는... 부대의 전투기록장에는 시신마저 찾지 못한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시신마저 찾지 못했다?!...》

장군님께서는 혼자말씀처럼 뇌이시었다. 아홉명 용사들중에서 일곱명만 렬사묘에 안치되었다면 나머지 두사람은 어디에 있던 말인가...

장군님께서는 너럭바위에 새겨진 고르롭지 못한 글자며 그앞에 놓여있는 한뭉음의 싱싱한 들꽃다발에서 오래도록 눈길을 떼지 못하시었다.

《이 너럭바위에 새겨넣은 글을 고증한 사람이 누구니까?》

《장군님, 몇해전까지 저의 사단에서 정치위원으로 사업하였던 전쟁로병 주학섭동지인줄로 알고 있습니다.》

《전쟁로병인 사단정치위원이?... 그가 지금은 어



디에 있습니까?》

《년령관계로 제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곳 군관사택에서 살고있습니다. 군인들을 위해 부업농사를 하고 염소도 기르는 등 소소부레한 일들을 도맡아하고있습니다.》

사단장은 오늘 그를 사단지휘부군인들의 모임에 초청한 사실을 말씀드렸다. 장군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었다.

《이제 그를 만나볼순 없을가?》

《예?!》

젊은 사단장의 시선이 짧은 순간 총참모부 부국장의 눈길과 부딪혔다. 부국장이 잠깐 머뭇거리다가 한자욱 앞에 나섰다.

《최고사령관동지, 오늘은 명절이어서 그들이...》

《명절인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소장의 군사칭호를 수여받는지 얼마 되지 않은 부국장은 반듯한 불편에 돌아나기 시작한 땀방울을 흘리며 힘겹게 말씀올리었다.

《얼마전까지 린접부대에서 군사부사단장으로 복무하다가 제대된 동무와 여기서... 술을 마시고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지 않은 소리를 좀 했습니다.》

《제대되었다는 군사부사단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역시 전쟁참가자이고 공로가 있는 동무입니다. ...》

김명국이 현성철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올리었다.

《로병아바이들이 명절을 즐겁게 쇠는건 좋은 일입니다.》

장군님의 존안에 따뜻한 웃음이 피어났다. 그이께서는 저르기 면구스러워하는 두 장령과 수행원들을 보시며 기쁘신 어조로 말씀하시었다.

《한생을 전호에서 보냈을 그들이 언제 마음놓고 명절을 쇠여보았겠습니까. 문제는 그들이 왜 아침 일찍 이곳에 와있었는가 하는건데...》

장군님께서는 다시금 샘터로 다가가시었다. 물위에 뜬 바가지는 용솟음치는 물결에 떠밀리어 춤추듯 샘가를 빙글빙글 돌아가고있었다. 돌판우에 털을 맞춰 엎어놓은 바가지들은 집어줄 때를 앞잡히 기다리고있는듯만싶었다.

장군님께서는 김명국에게 의문담긴 시선을 보내시었다.

《여기에 바가지들을 가져다놓은것도 그 아바이들의 소행이 아니요?》

《그런것 같습니다. ... 정치위원을 하던 아바이네 집에서 바가지농사도 잘하고있다는 얘기를 들었습

니다.》

김명국의 얼굴이 한층더 붉어졌다.

장군님께서는 손수 돌판우에 얹혀있는 바가지를 하나 집어드시었다. 노르끼레한 색깔의 달바가지는 보기 좋고 탐탁하여 물을 푸는데 무척 편할것 같았다. 그이께서는 바가지의 군기를 가늠해보시듯 매끈한 결면을 소리내어 두드려보시었다.

《이 바가지는 오늘 새벽에 가져다놓았소. 보시오, 물 한방울 묻지 않은 새것이거던.》

장군님께서는 동행한 일군들에게 바가지를 넘겨주시었다.

《샘물위에 바가지를 띄운것이라든가 돌우에 줄을 맞춰놓아둔것을 보면 무척 사려깊은 사람의 소행입니다. 내 생각에는 부국장동무가 조금전 여기에서 만났댔다는 그 로병아바이들이 해놓은 일 같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이 샘터에서 성미 매운 장령에게 현지 《포로》가 되었을 로병아바이들에 대한 생각으로 마음이 좋지 않으시었다. 그들이 단지 명절을 맞는 기쁨에서 술을 마시었다고는 생각되지 않으시었다. 얼마전까지도 군복을 입고 런합부대를 이끌어난 전쟁참가자인 로병들에게는 아무에게나 헤쳐보이기 서슴어지는 그들 나름의 생활이 있으리라 생각되시었다.

《로병아바이들을 만나보아야 하겠습니다. 어서 정치위원아바이네 집에 차를 보내시오.》

《알았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샘터결에 꾸러놓은 휴식터를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기시었다. 아침해벌에 무수한 잎새들을 반짝이는 미루나무며 류달리 신선한 분위기에 잠겨있는 샘터머가 그이의 마음속에 오랜 세월 간직되어있는 소중한 추억을 돌이켜주고있었다.

장군님께서는 돌의자에 허물없이 앉으시었다.

《이 샘물터를 보니 언제인가 어버이수령님께서 들려주시던 지난 조국해방전쟁때의 이야기가 생깁니다. 이곳 직동령계선에서 있던 일입니다.》

장군님의 안팎에는 상념의 빛이 떠올랐다.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안으시고 그이께서는 아득히 펼쳐진 푸른 하늘에 눈길을 보내시었다. 로병들을 찾아떠나는 야전승용차의 발동소리가 고요한 대기를 가볍게 흔들어주었다. 그 소리도 인츰 사라져갔다. ...

1951년 9월 하순 어느날 적들의 《추기공세》를 격파하기 위한 작전방안을 구상하고계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 치렬한 공방전이 벌어지고있는 전선동부지구에 나오시었다. 1211고지와 린접인 지

혜산으로 가시는 길이였다.

일행이 직동령어구에 이르렀을 때였다. 적비행기의 폭격을 피해 길옆에 위장해놓은 자그마한 초막에서 경무관완장을 팔에 두른 애젊은 군관이 군용차들을 향해 뛰어나왔다.

《차를 세우십시오.》

차단봉앞에서 선두차가 급히 벗어났다. 9월의 뒷별에 화끈 단 차체들에서는 휘발유냄새와 먼지가 엷섞인 열기가 확 풍겨왔다. 앞차에 앉았던 소좌견장을 단 호위군관이 긴장한 눈길로 경무관을 보며 물었다.

《무슨 일이요?》

《도로가 끊어져 차가 다닐수 없습니다. 그리구 이 령길은 적들의 집중폭격구역으로 되고있습니다.》

《집중폭격?!...》

소좌가 급히 차에서 내려섰다. 경무관완장을 두른 애젊은 소위는 미안한 표정으로 그를 향해 몇 걸음 다가섰다.

《소좌동지, 이 길로는 차가 더 갈수 없습니다.》

《경무관동무...》

뒤쪽에서 우렁우렁하신 음성이 들려왔다. 경무관은 몸에 익은 동작으로 차렷자세를 취하며 돌아섰다. 그러나 뜻밖의 일로 온몸이 얼어붙은듯 입을 열지 못했다.

《최고사령관동지...》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경무관을 향해 자애로운 미소를 보내시었다.

《어린 동무구만, 수고합니다. 그런데 령길이 왜 이렇게 조용하오?》

《얼마전에 적들의 맹폭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들의 폭격이 있었다? 아군부대들의 손실은 없었소?》

《최고사령관동지, 아무런 손실도 없었습니다.》

《적기들이 허탕을 쳤단 말이지. 그런데 아직 길이 열리지 않았소?》

《예, 파괴된 도로를 미처 복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구 놈들이 인츰 또 폭격을 해댈것으로 예견됩니다.》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당돌한 경무관의 어깨를 다정히 두드려주시었다. 말은 임무에 대한 책임성이 높고 적들의 기도에 대하여서도 자기나름의 판단을 가지고있는 그가 무척 기특하게 생각되시었다.

《적들의 폭격이 예견되단 말이지... 하지만 전선에선 병사들이 우리를 기다리고있소.》

수령님께서서는 검붉은 매연이 타래쳐오르는 멀지 않은 령길쪽으로 시선을 보내시었다. 령너머에는 적아간의 처절한 공방전이 벌어지고있는 전선이 있었다. 적들의 폭격과 포격으로 파헤쳐진 아군엄폐호며 일선참호들이 금시 보이는듯싶으시었다. 아무리 멀고 위험하다 해도 기어이 가시기로 결심하신 전선길이 그이앞에 놓여있었다.

《고지에는 총탄과 포탄도 부족하고... 한치의 땅을 지켜 병사들은 피를 흘리며 결사전을 하고있소!》

《최고사령관동지...》

수령님께서서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있는 경무관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달래듯 나직이 말씀을 이으시었다.

《걱정마시오. 높은 령이니 어데 질러가는 길이 꼭 있을거요.》

그날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마중나온 전선군지휘관들의 안내를 받으시며 험한 직동령을 몸소 걸어오르시었다. 한굽이 또 한굽이...

일행이 령마루를 얼마 앞에 두었을 때였다. 누구보다 힘에 부쳐 혈떡이며 맨뒤에서 대오를 따라오던 한 일군이 앞장에서 걸으시는 수령님께로 한달음에 달려왔다.

《최고사령관동지, 샘물입니다.》

《이 령마루에 샘물이라?...》

수령님께서서는 그 일군의 반가움에 겨운 목소리를 들으시고 걸음을 멈추시었다. 저르기 기운들이 치지기 시작했던 수행원들도 물이라는 소리에 즐겁게 수선거리며 멈추어섰다. 목이 마르던 참이여서 누구라없이 물이라는 말을 기쁘게 들었던것이다.

《군무를 교대한 경무관동무가... 물을 길어가고왔습니다.》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가슴에 물동이를 안고 서있는 경무관과 쌍태머리처녀의 땀에 뜬 얼굴을 놀라우신 눈길로 바라보시었다. 령아래에서 여기가 어떻게 된다고 이 멀고 험한 길로 샘물을 길어가지고 온단 말인가....

아버이수령님께 자기들이 떠온 샘물을 드리게 된 젊은 군관과 처녀의 얼굴은 환희로 빛나고있었다.

《최고사령관동지, 샘물이 아직 차집습니다.》

《고맙소, 동무들...》

수령님께서서는 맑은 물이 찰랑찰랑 담겨져있는 달바가지를 손에 드시고 한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었다. 전선의 긴박한 정황이며 지금껏 마음속에 갈았아있던 갖가지 무거운 상념들이 일시에 물러가는것 같으시었다. 이런 전사들, 이런 인민들과

함께 있는 한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리라는 확신이 더욱 굳어지시었다....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그때로부터 얼마후 직동령의 그 경무관에 대한 뜻밖의 보고를 받게 되시었다. 최고사령부의 전략전술적방안에 따라 적후에 습격조를 이끌고 진출했던 그가 부대로 돌아오지 못했다는 가슴아픈 소식이였다.

수령님께서서는 군부대장에게 그의 생사를 다시 확인할데 대한 과업을 주시면서 자신의 심중을 이렇게 더놓으시었다.

《나는 그때 그 동무의 소행에서 큰 힘을 얻었습니다. 이런 전사들과 함께 싸우면서 우리가 미국놈을 이기지 못한다는게 말이 되는가!...》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전후에도 오래동안 그를 잊지 않으시고 자주 외우시었다....

장군님께서서는 너럭바위에 한손을 얹으시고 말씀울 이으시었다.

《총대로 개척되고 총대로 승리를 떨쳐가는 우리 혁명의 길우에는 이런 순결한 마음을 지닌 충신들이 많습니다. 수령님과 조국에 바친 그들의 영웅적위훈을 잊지 않으며 길이 전하고 빛내주는것은 혁명동지들사이에 지켜야 할 고상한 도덕의리로 됩니다.》

장군님께서서는 너럭바위에 새겨져있는 글자들을 한자한자 다시 읽으시었다.

《〈수령을 위하여〉...》 얼마나 뜻이 깊은 글발입니까. 부강번영할 조국의 앞날을 확신하는 굳은 신념이 없으면 생사를 판가리하는 결전을 앞두고 이런 글을 천연바위에 새겨놓을수 없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잠시 생각에 잠기시였다가 나직이 말씀울 이으시었다.

《샘터를 보니 시련많은 적후어로 웃으며 떠나갔던 용사들을 보는것만 같습니다. 그들이 렬사묘에 안장되어있다면 지금껏 샘터와 렬사묘에 진정을 바쳐오고있는 로병들과는 어떤 련관이 있겠는가?》

《아직 그렇게까지는...》

《알아보지 못했던 말이지?...》

장군님께서서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으시었다. 사단장이 모르고있다면 어디에도 이 문제를 해명하는데 도움이 될만 한 자료가 없을것이였다.

승용차의 가벼운 발동소리가 들려왔다.

장군님께서서는 흐리신 안색으로 수행일군만 내리고있는 승용차쪽을 보고계시었다.

《장군님, 주학섭아바이네 집이 비어있었습니다.》

《...》

《옆집에 알아보니 랑주가 새벽일찍 나갔다고 합

니다. 이사준비를 서두르더니 아마 그 일때문인것 같다고 합니다.》

《이사준비라니?》

장군님께서서는 의아하신 눈길로 곁에 선 김명국을 보시었다. 당황해난 낯빛으로 미루어 그도 내막을 자세히 알지 못하고있는것 같았다. 한생 군복을 입고 살아온 사람이 병사들의 곁을 떠나려 한다는것이 믿어지지 않으시었다. 그이께서는 총참모부의 부국장에게 다시 이르시었다.

《전쟁로병아바이들을 꼭 만나야 하겠습니까. 동무가 직접 그들을 찾아 데려오시오.》

《알았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마음이 무거워지는것을 어쩔수 없으시었다. 로병아바이들이 아침부터 샘물터를 찾게된 사연을 알아보지도 않고 편찬을 주었다는 젊은 일군들의 소행도 몹시 서운하게 생각되시었다. 두로병제대군관들에게 스쳐넘겨서는 안될 문제가 있는것만 같으시었다.

### 3

햇잔디는 겨울을 난 지난해의 묵은 이파리속에서 뽕뽕뽕 새싹을 내보이고있을뿐 아직 무성하지 못했다.

그래도 좋았다. 땅에 깊숙이 내린 뿌리의 줄기찬 힘과 짙은 녹색의 이파리마다에 깃들어있는 생의 환희로움을 느껴보는것은 어느덧 자신을 고목쫓으로 치부하고있는 주학섭에게 있어 더없이 기꺼운 일이었다. 그리고 이 잔디는 다름아닌 전우들의 봉분을 덮어주고있는 잔디였다.

주학섭은 어느때와 다른 마음으로 그 야들거리는 이파리들을 여겨보고있었다. 오늘따라 전우들 생각이 더욱 간절해지는것 같았다. 곁에 앉은 현성칠이도 로친네와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를 주고받는듯하나 음성은 무척 갈리어있었다. 죽어도 이 땅에 묻히여 전우들의 넋이 깃든 옛 전장을 떠나지 말자고 약속했던 그들이였다. 그런데 높고보니 일이란 바라지 않는쪽으로만 기울어지는것 같았다. 온 나라가 고난을 겪고있는 지금 더이상 부대에 얹혀살며 부담을 주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도 있었다.

《동무들, 며칠 지나면 난 여기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현성칠동무도 이제 군복을 벗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후대들이 당의 품에서 장군님을 총대로 받드는 군사일군으로 끝끝하게 자라났으니 나와 현성칠인 이제 당장 눈을 감는다고 해도 여한이 될게 없습니다.》

주학섭은 마치 살아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듯 목소리를 낮추어 속삭였다. 이렇게 먼저 간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있느라든 어느덧 마음은 진정되고 부대를 떠나게 되는 서운함도 조금씩 물러가는 것을 느끼는 그였다.

《세월이 흘러 나와 성철이도 땅에 떨어진 락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 가든… 우린 동지들을 잊지 않을것입니다. 그리구 이제부터는 우리가 복무하던 근위부대의 병사들이 나와 성철이가 한 것처럼 동지들을 찾아 자주 여기에 와줄겁니다.…”》

주학섭의 눈가에 그렇하니 물기가 차올랐다. 그는 눈이 시게 안겨오는 봉분의 새파란 잔디밭을 더듬다말고 안해를 찾았다.

《이보라구, 샘물집.…”》

주학섭의 마음은 어느덧 멀리 가버린 전화의 날들을 더듬고있었다.

《51년도 9월 직동령을 오르시는 어버이수령님을 뵈옵던 그 꿈갈던 일을 로친넌 잊지 않았겠지?》

《…》

《그날 수령님께서서는 당신이 떠올리는 샘물을 달게 드신 후 고맙다고, 물맛이 참 좋다고 하시면서 산 좋고 물 맑은 우리 조국 삼천리강토를 한치도 미국놈들에게 빼앗겨서는 안된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였지. 그후 우리 소대의 9명용사들은 뜻깊은 샘터에서 최고사령관동지의 건강과 안녕을 바라며 샘물로 축배를 들고 전선을 넘었지. 유감스럽게도 현성철이와 나… 이렇게 둘만이 살아서 이 자리에 왔어.》

《그날 샘물집처녀가 따라주던 물맛을 잊을수 없습니다. 숨이 지는 마지막순간에도 승모아바이는 그 샘물을 찾았지요. 남아있던 얼마 안되는 물을 밥통에 따라주니… 소대장동지에게 주라고, 샘터에서 다진 맹세를 잊지 말고 꼭 살아서 최고사령관동지를 잘 모셔달라고 우리에게 부탁했지요.…”》

현성철의 목소리가 울먹해졌다. 지나간 세월이 남겨준 소중한 추억들을 가슴에 품고 전화의 그날처럼 당을 받들어 깨끗하게 살아온 그들이었다.

《소대장동지는 지금까지 전우들의 당부를 잊지 않았습니다. 지혜산에 어버이수령님의 현지도사적표식비를 세우구 전우들의 뜨거운 마음이 깃들어있는 샘물터도 알뜰하게 꾸려놓았지요. 군단으로, 총정치국으로 소환되라는 권고를 다 물리치고 이 궁벽한 산골의 최전연사단에서 한생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난 알수가 없습니다.》

《?…》

《샘터와 전우들의 묘소를 돌보며 이곳에서 여생을 보내겠다구 약속한 소대장동지가 왜 갑자기 이사를 가겠다고 하는지…》

《허, 그게 이 늙은것의 팬한 걱정인줄 몰랐으니… 여기 군인동무들이 여간만 극성스럽지 않아. 이 묘소가 얼마나 깨끗한가 보라구.》

《소대장동지가 이사를 간다는건… 불속에서 맺은 전우들과의 의리두, 조국을 지켜 한생토록 총대를 메고 살아온 전쟁로병의 본분두 모두 잊구…》

현성철은 더 말을 잊지 못했다. 주학섭은 자리를 털고 일어섰다. 그가 엇드레질을 한다고 탓할수도 없었다. 아침해가 어느덧 미루나무의 정수리를 비칠만큼 높아졌다. 부대의 병사들과 약속한 시간이 가까와지고있었다.

《자, 이젠 집에 가서 늦은대로 아침을 먹고 운동장에 나가세. 부대지휘관들이며 병사동무들이 우릴 기다리고있을걸세.》

《예익, 소대장동지가 왜 갑자기 이사할 결심을 하게 되였는지 모르는줄 아십니까. 사단건물관리를 하는 녀석이 군관살림집문제를 가지고 애길 했지요?》

주학섭은 뜻밖의 반격에 할말을 찾지 못했다. 현성철은 묵은 잔디의 누렇게 황이 든 이파리를 한줌 쥐어뜯었다.

《소대장동지가 전쟁시기 이 근위부대에서 피흘려 싸운 로병이라는걸 벌써 알려주었더라면 이런일이 없었을텐데.…”》

《허허, 이 사람아, 로병인 우리들이 군관들과 병사들을 하나라도 더 위해주지 못할망정 부담을… 그런일이 있을것 같아서 우리가 아직까지 누구라는 말을 안하구있는게 아닌가.》

《이 현성철이나 소대장동지가 그래 여기에 잠들어있는 영웅렬사들의 전우였고 그들과 같이 군공을 세웠다고 해서 그 덕을 보려 할 사람입니까? 그렇게 웅졸한 심장으로 전쟁을 이긴 우리가 아니지요!》

현성철의 얼굴이 노여움으로 붉어졌다. 그러나 주학섭은 여전히 웃고있었다. 그는 누렇게 말라버린 지난해의 묵은 덩불속에서 파랗게 새싹을 피고있는 자그마한 이파리들을 소중히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다.

《이 잔디를 보게, 묵은 이파리는 추위가 덮쳐들세라 새싹을 소중히 품어자래우고는 그것이 무성해질 때이면 자취를 감추어버리네.… 우리도 이젠 물러설 때가 되었던 말일세.》

현성철의 목소리가 한층더 높아졌다.



《그게 지금껏 사단정치위원으로 사임해온 주학섭 대좌동지가 하는 말입니까. 내 다 알고있습니다, 갓 부임되어온 젊은 사단장이 군물을 세운다면서 걸핏하면 목소리를 높이고 정치위원이 나이가 많아 일하기 힘들어한다는 제기를 했다는것까지두...》

《힘에 부쳤던 건 사실이지. 동무두 나이를 먹으니 병사들과 같이 행군하기가 벅차다구 말하던 때를 잊지 않았겠지?》

주학섭이 이쯤 배포유하게 이야기를 시작하면 아무리 든장질을 한다 해도 움직여내기 쉽지 않다는 것을 현성칠은 알고있었다.

《에익, 사단정치위원으루 사임하면서 성미두 바꾸었수다. 젊어서 날 다불러댈 땐 꽤나 눈물을 흘리게 하더니...》

자리를 털고 일어서던 그는 말끝을 삼키며 주학섭의 어깨를 건드렸다.

《저길 좀 보시우. 총참모부의 부국장동지가 여기루 오고있수다.》

렬사묘로 올라서는 좁은 길로 몇사람이 오고있었다. 앞에서 걷고있는 군복입은 사람은 샘터에서 자기들이 술을 마신다고 좋지 않게 말하던 총참모부의 젊은 장령이었다.

주학섭은 그가 무슨 일로 오고있는지 알지 못했으나 어떤 예감으로 심장이 방망이질하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장령은 급한 걸음으로 두 로병을 향해 다가왔다.

《주학섭로병동지가 아니십니까?》

주학섭은 무척 진중하게 묻고있는 장령앞에서 이제는 퍼그나 몸에 배인 경감홍내를 말끔히 잊고말았다. 목소리마저도 군대시절처럼 경쟁하게 울려나왔다.

《예, 제가 제대군관 주학섭입니다.》

장령은 두사람에게 깍듯이 거수경례를 하고나서 말을 이었다.

《로병동지들, 아침에 제가 좀 지나쳤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아니, 저희들이 그만...》

당황한 주학섭은 젊은 장령의 진지한 사죄를 미처 받아들이지 못했다. 부국장은 소리없이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노여움을 푸시고 저와 함께 가십시오, 군사부 사단장동무도...》

《저도 인젠 제대되었습니다. 얼마전에 직무를 인계하구...》

《알고있습니다. 그러구 어머니...》

장령의 눈길이 곁에 선 녀인에게 가뒀었다.

샘물집처녀는 소곳이 고개를 숙이었다. 주학섭은 로친에게 일렀다.

《로친넌 집에 가있으라구...》

《아니, 어머니도 함께 가십시오.》

승용차는 미끄러지듯 달렸다. 길옆 야산기슭에는 진달래가 붉었다.

주학섭은 선홍으로 점점이 산야를 물들이고있는 진달래의 그 이채로움을 감상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사람들의 관심에서 어쩔수없이 멀어져가고있던 자기들이 바야흐로 그 어떤 환희로운 사변을 앞에 두고있다는 감격스러운 예감에 심장이 뛸뛸하는것을 느낄뿐이었다. 지금 그의 마음은 멀리로 흘러가 버린 전쟁의 잊지 못할 하루를 더듬고있었다...

《샘물을 길어가지고 나와 함께 령으로 올라가자구.》

《?!...》

놀라움과 의혹으로 커진 처녀의 두눈이 매연에 잠겨들고있는 험한 령길을 더듬고있었다, 미국놈들의 야수적인 폭격으로 불타고있는 직동령에 무슨 일로 샘물을 길어가자고 하는지...

주학섭은 안타깝게 주먹을 부르짖었다.

《시간이 없소.》

마침내 처녀는 머리를 끄덕였다. 음성은 높지 않았다.

《군대일이라면 가겠어요.》

젊은 군관의 간절한 눈빛과 열렬한 호소에 감동된 처녀는 아무것도 더 묻지 않았다. 물을 퍼담자 주학섭이 물동이를 안고 일어섰다.

《날 따라오라구...》

《아니, 잠깐... 호박잎을 덮어야 해요.》

《?!...》

《그래야 물이 더워지지 않아요. 그러구... 물동인 이고가야 해요.》

처녀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넓고 싱싱한 호박잎을 따다 물동이아귀를 정히 덮고는 치렁치렁한 쌍태머리우에 올려놓았다.

길은 험했다. 폭격에 넘어지고 불에 타다만 나무들이 무시로 앞을 가로막았다. 그러나 물동이를 머리에 인 처녀와 앞에서 길을 헤치는 주학섭은 잠시도 월념을 하지 않았다. 그날 령길이 얼마나 멀게만 생각되던지...

《고맙소, 샘물이 참 시원하고 물맛도 좋구만...》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동행한 일군들에게 바가지를 넘겨주시면서 우렁우렁하신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어서들 물을 마시시오. 이 동무들이 우릴 위해



저 령밑에서부터 길어가지고온 샘물ियो.》

자애로우신 미소, 예지로 빛나는 안광....

《다 왔습니다. 어서 내리십시오.》

나직이 일러주는 귀에 선 목소리를 듣고서야 주학섭은 정신을 가다듬었다. 그는 서둘러 열려진 차문으로 한발을 내려놓았다.

다음순간 샘가의 너럭바위앞에서 자기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내고계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인자하신 모습을 뵈오며 우뚝 굳어지고말았다.

《최고사령관동지. ...》

장군님께서는 그를 향해 손을 흔들어주시었다. 세월의 흐름을 거슬러 소중한 추억속에서만 뵈운 군 하던 아버지수령님과 똑같이신 모습이였다. 주학섭은 잊어가고있던 군인의 절도있는 몸가짐을 순간에 되찾았다.

《최고사령관동지, 예비역 대좌 주학섭...》

장군님께서는 활달하신 걸음으로 주학섭을 향해 다가오시였다.

《건강한 로병아바이들을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어떻습니까. 군복을 벗어서 서운하진 않습니까?》

《장군님, 군복은 벗었지만 언제나 마음속에 총대를 안고 살아가자고 우리 약속을 했습니다.》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늙지 않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주학섭과 현성철이며 샘물집녀인의 손들을 따뜻이 잡아주시였다. 잠시후 그이께서는 나직이 말씀을 이으시였다.

《아홉용사들의 조국애가 깃들어있는 샘터를 보고 그들의 위훈담을 들으니 가슴이 후터워집니다. 옛이야기들에도 나오지만 우리 선조들은 외채침략자들을 물리치려 전장으로 떠날 때이면 고향의 샘물을 가져가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싸움이 어렵고 힘들 때이면 정히 간수해가지고다니던 그 샘물을 마시며 힘과 용기를 돋구곤 하였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사색깊으신 눈길로 쇠- 소리쳐 설레이는 미루나무의 우듬지를 더듬으시였다. 이 땅 위에 흘러간 유구한 세월과 더불어 길이 전해지고 있는 유명무명의 영웅들은 모두 자기의 고향산천과 거기에서 자라나는 한그루의 나무, 한포기의 풀에도 깨끗한 정을 바칠줄 아는 사람들이였다. 이 샘터의 억년 드눌지 않을 바위에 《수령을 위하여...》라는 신념의 글발을 한자한자 쪼아박은 아홉용사들, 뽕뽕 솟아나는 맑은 샘물을 뜨겁게 나누며 원쑤격멸의 의지를 가다듬고 싸움길을 떠났던 그들은 아버지수령님의 품속에서 지상락원으로 꽃피나게 될 자기들의 고향산천을 그려보았으리라. ...

《주학섭동문 전쟁기간 군사복무를 어디서 했습

니까?》

장군님께서는 다정히 물으시였다. 주학섭은 한순간 포연자욱한 전화의 날들이 눈앞으로 흘러지나는것만 같았다.

전선동부지역에서 벌어졌던 가렬처절한 공방전이며 생사를 가늠할 길 없는 싸움길을 떠났던 아홉용사들. ...

《1951년 10월까지의 전선동부의 이 지역에서 싸움을 했습니다. 그후 부상을 당하고 군의소신세를 지다가 전쟁승리는 서해안의 방어진지에서 맞았습니다.》

주학섭은련합부대의 반타격전이 승리로 끝나는것을 보지 못하고 후방병원으로 후송되였던 사실들을 간추려 말씀드렸다.

《51년도 가을이면 혹시 알수도 있겠는데...》

장군님께서는 기대어린 시선으로 주학섭과 현성철을 보고계시였다.

《이 샘터를 보니 아버지수령님께서 오래도록 잊지 못하시던 한 젊은 군관이 생각납니다. 그는 적들의 〈추기공세〉를 짓부셔버리기 위한 중요한 전투임무를 받고 적후로 들어간 아홉용사들의 지휘관이였습니다.》

《!...》

《아버지수령님께서는 전선시찰의 길에서 잠깐 만나셨던 그를 오래도록 잊지 않으시였습니다. 그는 험한 직동령을 걸어서 오르시는 수령님께 시원한 샘물을 드리려고 녀동무와 함께 물을 길어가고 먼 령마루에까지 달려올라갔다고 합니다. 그 동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도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생존해있다면 아마 주학섭동무 나이쯤 될것 같은데. ...》

《으흠...》

주학섭은 더 참지 못하고 어깨를 떨었다. 장군님께서는 한자욱 다가서시며 주학섭의 손을 다정히 잡아주시였다.

《말해보시오. 아홉용사들의 위훈을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동무로서는 무엇인가 잊혀지지 않는 추억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장군님. ...》

현성철이 눈물젖은 목소리로 보고올리였다.

《우리 아홉명습격조의 지휘관이 이 주학섭소대장동무였습니다.》

《그렇습니까!》

장군님께서는 환히 미소를 지으시였다. 수령님께서 잊지 못하시던 전사, 전장에 영영 쓰러져 일어서지 못한줄로 아셨던 습격조의 지휘관을 만나게 되

신것이 더없이 기쁘시었다. 그이께서는 수행원들을 둘러보시었다.

《샘터를 꾸려놓은것을 보며 생각되는것이 있습니다. 조국을 위해 자기의 청춘을 아낌없이 바쳐싸운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좋은 일을 할수 없습니다.》

《장군님, 이 샘터에서 전우들과 함께 어버이수령님과 조국앞에 다진 맹세를 어길수 없었습니다.》

《전우들의 생전의 뜻을 잊지 않는것이아말로 가장 숭고한 동지적사랑이고 혁명적의리로 됩니다. 우리 일군들의 관심이 부족했습니다.》

조금만 더 노력했다라면 아홉용사들중에서 이렇게 두사람이 생존해있는줄을 벌써 알수 있었던것을…》

장군님께서 주학섭을 이제야 찾게 되는것이 못내 아쉬우시었다. 그를 어버이수령님앞에 내세워주었다라면 얼마나 좋았으랴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지시었다. 그리고 주학섭이며 현성칠과 같은 전쟁로병들에 의하여 전화의 나날에 꽃핀 가슴뜨거운 동지애의 이야기가 오늘에로 계속 즐기치게 이어져왔음을 확신하시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전쟁시기와 전후 여러차례에 걸쳐 주학섭동무를 찾으시였습니다.》

주학섭은 오열에 어깨를 떨었다. 전화의 불구름을 헤쳐오며 이제는 말라버렸으리라고 생각했던 뜨거운 눈물이 수십년이라는 또아리를 허물며 샘처럼 솟구쳐올랐다.

《장군님, 용서해주십시오. 제 어버이수령님앞에 차마 홀로는 나설수 없었습니다.》

미처 다 헤아릴수 없는 위대한 사랑이 지금껏 자기들을 소중히 품어주고있음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주학섭이며 현성칠이었다. 군복을 벗게 되었다고 잠시나마 마음이 나약해졌던것이 죄송스러웠다.

《동무들은 전장에 쓰러진 전우들의 넋원이 새겨진 너럭바위와 샘터를 알뜰하게 거두고… 좋은 일을 많이 하였습니다.》

장군님께서 총대와 함께 한생을 살아온 전쟁참가자-로병들에게 무엇인가 크고 귀중한것을 안겨주고픈 마음이었었다.

《전쟁로병들은 전쟁시기뿐만아니라 전후에도 우리 당의 사회주의건설로선을 받들고 일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들은 한치의 땅을 지키기 위하여 피흘리며 싸워오는 과정에 그 누구보다도 조국의 귀중함을 뼈에 사무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물러서지 않고 자기의 온 심혼을 바쳐 이 땅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노력해오

고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천만금을 안겨주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장군님, 한 일도 없는 저희들의 한생을 그토록 높이 평가해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주학섭이 목이 메여 말쑹물리었다.

장군님께서 힘을줄이 불거진 그의 두손을 따듯이 잡아주시며 나직이 물으시었다.

《주학섭동무, 이 너럭바위에 신념의 글발을 정히 새겨놓고 싸움길을 떠났던 용사들은 아홉명인데 샘터는 〈7용사샘물터〉로 부르고있으니… 무엇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주학섭은 대답을 올릴수 없었다. 장군님께서 아직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모든 사연까지 다 헤아려주실줄은 미처 몰랐던 그였다.

장군님앞에 현성칠이 한자욱 나서며 정중히 말쑹물리었다.

《장군님, 이 샘터의 이름을 〈9용사샘물터〉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주학섭동무가 〈7용사샘물터〉로 주장했습니다. 조국을 위해 고귀한 생명을 아낌없이 바친 전우들의 위훈에서 자기 몫을 찾아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끝내…》

《보시오. 그런 순결한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어떤 위훈도 세울수 없습니다.》

그이께서는 깊은 가책에 잠겨있는 김명국이며 총참모부의 젊은 장령을 돌아보시었다.

《동무들, 이제부터 이 샘터를 〈9용사샘물터〉로 부르도록 합시다. 최고사령부의 작전적의도를 실현하는데 기여한 용사들의 위훈속에는 명실공히 주학섭동무와 현성칠동무가 세운 공로도 있습니다. 이 동무들은 전우들의 붉은 피가 스며있는 옛 전장에 한생을 묻고 지금껏 병사의 자세로 살아온 우리 당에 충직한 참된 총대전사들입니다.》

《장군님, 저희들이 뭐라고…》

장군님께서 주학섭의 설핏해진 어깨를 다정히 쓸어주시었다.

《수령님께서 속사리 안마을에 차를 세워두고 폭격에 파헤쳐진 직동령을 걸어오르시며 적들의 〈추기공세〉를 짓부실 작전방안을 구상하시느라 머리가 복잡하였는데 동무들이 걸어온 맑은 샘물을 마시고나니 거뜨해지더라고, 참으로 고마운 동무들이었다고 자주 말씀하시었습니다.》

어버이수령님을 대신하여 내가 감사를 드립니다.》

《장군님. …》

주학섭은 흰서리가 불린 머리를 떨구고 가슴을 들먹였다.

장군님께서 한동안 아무 말쑹도 없이 바람을

맞아 설레이는 미루나무를 보고계시었다. 가지마다에서 한창 돋고있는 무수한 이파리들이 아침햇빛에 파랗게 반짝이고있었다. 하많은 생각을 불러주는 봄날의 푸른 잎사귀였다.

전쟁의 불구름을 헤쳐온 주학섭이며 현성철, 샘물집쳐너....

장군님께서는 전선시찰의 길을 이어가시던 나날 최전연전호가에서, 외진 섬방어대에서 그리고 공장과 농촌마을들에서 만나셨던 수많은 주학섭이네들을 생각하시었다.

아버이수령님과 자신과 그리고 이 나라 수천수만의 심장들을 하나로 이어주며 영원한 푸른 잎사귀로 생을 빛내여주는것은 천금을 주고도 살수 없는 동지의 사랑, 혁명적의리심이었다.

그이께서는 감동깊은 눈길로 수행일군들을 둘러보시었다.

《전쟁로병들인 주학섭동무나 현성철동무들이 가슴에 품고 살아온 불보다 뜨겁고 진실한 동지적사랑, 당과 조국을 량심으로 받들줄 아는 것처럼 고귀한 감정이 없었다면 오늘과 같은 기쁨을 우리는 그 어데서도 찾아보지 못했을것입니다.》

장군님께서는 주학섭이며 수행일군들을 향해 우렁우렁하신 음성으로 말씀을 이으시었다.

《뜻깊은 태양절을 아버지수령님의 전승업적이 깃들어있는 옛 전장에서 맞고보니 만만시련을 헤쳐오신 수령님 생각이 더욱 간절해집니다. 어서 지혜산으로 오릅시다. 지혜산에서 아버지수령님께 인사를 드립시다.》

그날 지혜산마루에 건립되어있는 아버지수령님의 현지도사적표식비앞에는 전선시찰의 길에 계시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와 수행일군들이 정중히 열을 지어 서있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몸소 대오에 《차렷!》구령을 내리시고 태양절을 맞이하여 아버지수령님께 거수경례를 삼가 드리시었다.

며칠후 주학섭과 현성철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소장의 군사칭호가 달린 군복을 전달받았다. 그리고 샘물집쳐너는 샘터의 달바가지 하나를 이사집속에 더 넣어가지고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강사로 부임되어가는 남편을 따라 기차에 올랐다.

정갈한 샘터에는 미루나무가 예전그대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설레이고있었다.

나무의 무수한 잎사귀들은 햇빛을 받아 한모양으로 파랗게 빛을 뿌리고있었다....

## 가 사

### 백두산에 오르리

권 오 준

백설이 날리고 몰아칠수록  
불타는 내 마음 끝없이 달려가네  
칼바람눈보라로 더운 피 끓여주는  
《가리라 백두산으로》 노래 높이 부르며  
백두산에 오르리 백두산에 오르리

기발도 그날의 붉은기 들고  
《적기가》 부르며 계승의 이 길 가리  
혁명열 투쟁열로 이 심장 불태우는  
《가리라 백두산으로》 노래 높이 부르며  
백두산에 오르리 백두산에 오르리

선군의 등대로 누리에 빛나  
혁명의 앞길을 찬란히 비쳐주는 곳  
우리의 **김정은**원수님 따라서  
《가리라 백두산으로》 노래 높이 부르며  
백두산에 오르리 백두산에 오르리

### 철령의 새 풍경

함 영 주

백리라 청춘과원 선군13경이라면  
령너머 동해의 물고기풍년 몇경일까  
아 철옹성의 봉우리 철령기슭엔  
새 선경 하도 많아 그 끝을 모른다오

세포라 새 풀판에 양떼바다 그 몇경  
아이들 웃음궁전 별세상은 또 몇경  
아 구름우에 봉우리 철령기슭엔  
새 절경 하도 많아 그 끝을 모른다오

장군님념원 꽃핀 인민의 무릉도원  
원수님구상 꽃핀 사회주의별천지  
아 온 나라로 펼쳐갈 철령풍경은  
빛나는 선군송리 새 풍경이라오

# 길에 대한 답시

김 무 림

어느 4월의 봄명절 아침  
곧추 뻗은 도로를 따라  
급히도 달리던 야전차 한대  
문득 멈춰섰네  
푸른 동해 출렁이는 항구도시 입구에

앞에는 해안광장  
벌써 소년단행사가 시작되었는가  
바다의 물결처럼 넘실대는 아이들  
저것 바라!  
큰길까지 차넘치는데

어이하여 차를 멈추게 하셨는가  
이 도로만 지나면  
굽이굽이 철령...  
준엄한 나날에 정든 초소  
사랑하는 병사들을 그려  
갈길을 재촉하시던 아버지장군님

천천히 차에서 내리시네  
그리고는 허리에 두손을 얹으시고  
대견하신듯  
만시름 잊으시고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네

—저것 보오 소고대가 제법이요  
군대맛이 나거던 히히...

대오앞엔 소년단기발  
《항상준비!》 우렁찬 웨침  
잠시 먼 하늘가로  
눈길을 주시는 아버지장군님

발을 동동 구르는 아이들에게  
두팔을 맡기시고  
붉은넥타이를 날리시며

설맞이모임에도  
소년단대회에도 꼭꼭 나오시여  
이런 때가 제일 좋다고 늘 외우시던  
수령님의 그 영상을 그려보시는가

아동단의 붉은넥타이 목에 두르고  
씩씩하게 행진해가는  
만경대원아들의 모습에서  
걱정의 눈물 쏟으시며  
혁명의 피줄기를 곳곳이 이어가라고  
뜨겁게 당부하시던  
어머님의 그 모습을 떠올리시는가

《소년단행진곡》 구절구절  
입속으로 조용히 불러보시며  
생각에 잠겨계시던 그이께서  
조용히 물으시여라  
—운전사동무  
저 광장을 에돌아가는 길이 없을가?

—장군님!  
뒤길이 하나 있기는 한데  
몹시 험합니다

운전사는 망설이는데  
장군님께서서는 호탕하게 웃으신다  
—그럼 됐구만  
왕들의 행사인데  
우린 제꺽 뒤길로 에돌아갑시다

아, 구불구불한 좁은 뒤길을 따라  
야전차는 들추며 전선으로 달리는데  
넓은 광장 대통로엔  
차고넘쳤네  
따스한 봄날의 햇빛이  
창창한 조국의 미래가...

## 경제강국건설의 장엄한 서사시적 화폭

—총서 《불멸의 향도》 장편소설 《2009년》에 대하여—

리창유

지나간 2009년은 우리 나라 경제건설에서 변이 난 해로 불리우고있다.

세계를 진감시킨 인공지구위성 《광명성 2》호의 성과적인 발사와 주체철생산체계의 완성, 내화물생산의 주체화실현, 세계를 뒤흔든 또 한차례의 지하핵시험, 첨단을 돌파한 우리의 CNC기술...

이 경이적인 사변의 갈피마다에는 경제의 자립도를 높이는데 기본방향을 정해주시고 그해 정초부터 연말까지 성진제강련합기업소와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황해제철련합기업소와 재령광산, 대흥광산(당시)을 비롯하여 무려 수백여개나 되는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공장, 기업소들과 련관단위들을 현지지도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와 불면불휴의 로고가 깃들어있다.

장편소설 《2009년》(송상원, 김용환 작)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성진제강련합기업소 일군들과 기술자들, 로동계급의 정신력을 폭발시켜 세계에 유일무이한 비폭스체철법에 의한 주체철생산체계를 완성하게 한 특대사변을 중심에 놓고 이 한해동안에 우리 나라에서 강성국가건설의 만년토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가슴뜨겁게 보여주고있다.

### 몸소 경제강국건설의 돌파구를 여시어

장편소설 《2009년》이 커다란 사상미학적감화력으로 독자들을 매혹시키는것은 무엇보다먼저 작품에 무게있는 형상과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수령형상소설의 생리에 맞게 잘 풀어보임으로써 위대한 장군님의 탁월한 령도풍모를 잘 그려보인데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수령의 풍모를 격이 있게 형상하자면 무엇보다도 수령의 위대성에 어울리는 무게있는 형상과제를 내세워야 한다.》

작품이 제기하고있는 형상과제는 수령, 당, 군대와 인민이 혼연일체가 된 우리의 일심단결이야말로 혁명승리의 원동력인 정신력의 터전이라는것, 따라서 수령을 따르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높은 정신력을 총폭발시킬 때 경제건설에서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기적을 가져올수 있다는것이다.

이 형상과제는 2009년 한해동안에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아래 우리 나라에서 경제강국건설의 돌파구가 어떻게 열렸는가 하는 작품이 제기하고있는 기본문제를 풀어보이는 열쇠로 된다.

위대한 장군님의 여러차례에 달하는 가르치심을 받고 내각에서 비상전투를 벌려 세운 2009년도 인민경제계획은 부분별로 볼 때 그 장성비율이 전해보다 1.5배, 지어는 2배에 달하였다.

그것도 강철, 전력, 석탄, 기계를 비롯한 관건적인 지표들이였다.

당시 나라의 경제형편은 매우 어려웠다.

미제와 제국주의련합세력의 검질기고 악랄한 경제제재와 고립압살책동이 가중되고 여기에 련속 겹치는 자연재해로 하여 서부지구의 주요광산, 탄광들이 침수되어 가동을 못하고있었다.

미제와의 장기적인 경제전쟁을 해야 할 엄혹한 환경속에서 천리마대고조시기 경제장성속도를 넘어서야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두고 적지 않은 경제일군들은 불안을 감출수 없었다. 그 누구도 내각전원회의에서 이렇다할 방도를 내놓지 못하였다.

하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이 계획안을 받아보시고 두리뭉실한 표현들은 명확히 알수 있도록 수정가필해주시면서 아직도 경제의 자립도를 높일 문제에 중심이 서있지 못하다고 하시면서 그 문제를 더 토론해보라고 그리고 빠른 기간내에 경제건설을 다그쳐 강성국가의 대문을 두드리자면 현재계획을 3분의 1정도 더 높이 세워야 한다고 가르치시면서 이에 대한 새로운 목표를 제시해주시였다.

높은 목표를 내걸고 경제건설의 대고조를 마련하 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천리혜안의 예지는 당과 수령을 따르는 우리 군대와 인민, 일군들의 불굴의 정신력을 총발동시킬것을 기초로 한것이였으니 이것이야말로 사상의 힘으로 세기적변혁을 일으킬것을 예견한것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2009년 새해를 앞둔 2008년력사적인 12월 24일 천리마의 고향인 강선의 로동계급을 찾으시여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봉화를 몸소 지펴주시면서 온 나라 근로자들에게 보내는 이들의 편지에 《전당적인 총공격전... 전국가적인 총동원전... 전인민적인 총결사전...》이라는 문구를 쏘아박도록 하신다. 그리고 이어 전체 당원들에



게 보내는 당중앙위원회 편지를 통하여 온 나라의 당원들을 혁명적대고조의 앞장에 나서도록 불러일으키신다.

어찌 그뿐이라,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의 성과적인 발사와 황홀한 축포의 불야경으로 전체 군대와 인민들의 정신력을 더한층 높이 발양시켜 주신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편이어 우리 인민이 150일전투에 과감히 진입하도록 이끄심으로써 온 나라 인민들의 드높은 사상정신적위력을 발동시켜 2009년 인민경제계획수행에 박차를 가하여 빛나는 결실을 맺도록 하신다.

이러한 경이적인 사변앞에서 오래동안 경제사업을 해온 부총리 강민혁은 감탄하여마지않는다.

《특출한 실력으로 정치강국, 군사강국을 건설하신 김정일동지께서는 경제강국건설의 첫걸음부터 또다시 비상한 예지를 보여주고계시었으니 그것은 항상 경제사업만 해온 오랜 경제지도일군으로서도 도저히 따를수 없는 새로운 경지였다.

정신력이 강성국가의 대문을 열기 위한 혁명적대고조의 추동력이라는 그이의 선포는 얼마나 독창적이며 정당한것인가!》

장편소설 《2009년》의 높은 사상미학적감화력은 또한 위대한 장군님께서 돌려주시는 인민에 대한 크나큰 믿음과 사랑에 대한 감명깊은 이야기가 작품의 형상전반을 관통하고있다는데 있다.

소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니신 인간적품모의 위대성을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펼쳐보이면서 온 나라 인민들을 한품에 안으신 아버지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심장으로 느끼게 하고있다. 그 믿음과 사랑은 숭고한 혁명적의리와 동지애를 바탕으로 한 믿음이고 사랑이다.

가식으로써는 믿음과 사랑을 지어낼수도, 표시할수도 없다. 오직 심장으로 이어진 믿음과 사랑만이 진실한것이다.

아직 한번 만나보신적 없는 성진제강련합기업소의 오랜 로동계급인 리대원과의 관계만 놓고보자.

어제는 그가 보낸 편지에서 고무를 받았다고 하시면서 당과 인민의 드높은 정신력으로 대고조의 돌파구를 열 결심을 다지신 위대한 장군님.

오늘은 또 그날을 회상하시면서 《나의 마음이자 그의 마음이고 그의 마음이자 나의 마음입니다. 나는 이 마음을 정책에 담으려고 합니다....

인민의 마음속에 땅이 있고 땅의 마음속에 인민이 있는 한 우리의 일심단결은 더욱 굳게 다져지고 우리의 정신력은 더욱 백배해질것입니다.》라고 뜨겁게 말씀하시는 아버지장군님.

인민의 의사와 요구를 정책에 담고 인민의 높은 정신력에 의거하여 경제건설의 돌파구를 열어제끼 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에 대한 믿음과 사랑

은 그이의 형상세계전반을 관통하고있는 핵이라고 할수 있다.

수령형상소설에서 수령의 위대한 인간적품모를 보여주기 위하여서는 수령과 전사, 수령과 인민사이의 혈연적인 관계를 풍만한 생활속에서 펼쳐보여야 한다.

소설에서는 아버지장군님께서 늘 자신을 인민의 아들로 여기시고 그들속에 들어가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시였으며 혁명과 건설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기 위하여 불철주야로 현지도도강행군의 로고를 바쳐가시는 감동적인 장면들을 폭넓게 펼쳐 보이고있다.

함흥지구의 공장, 기업소들을 현지도하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숨죽은 홍남비료련합기업소와 2.8비날론련합기업소를 살려 주체비료, 주체섬유를 우리 손으로 팡팡 생산해내기 위하여 이곳 로동계급을 불러일으키시였다. 당장 급한것이 주체비료생산에 쓰일 1만 5천립방짜리 대형산소분리기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그길로 평양으로 향하던 차를 되돌려세워 천여리 떨어진 락원기계련합기업소를 찾으시여 어떤 일이 있더라도 빠른 기간내에 대형산소분리기를 만들데 대한 과업과 방도를 찾아주시였으며 이어 또다시 천여리 떨어진 갓 완공된 녕원발전소로, 그다음 또다시 산세 험한 희천발전소건설장을 찾으시여 언제까지 위치까지 확정해주시였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일제가 100년공사라고 손을 들었던 희천발전소건설을 군대가 맡아 처음에 예정된 10년이 아니라 3년내로 건설할데 대한 새로운 과업을 주시였다.

근 2천여리나 되는 현지도의 길, 한순간의 휴식도 없이 눈덮인 가파로운 곳으로 오르신 장군님.

참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도로정은 때로는 아슬아슬한 벼랑길도 뚫으셔야 했고 때로는 쪽잡과 췌기밥으로 지내셔야 했지만 그 길은 고생을 락으로 여기시는 인민에 대한 끝없는 헌신의 길이였다.

이런 로고속에서도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성강의 기술자들과 일군들, 로동자들이 150일전투에 이어 100일전투기간에 마지막공정인 정련로까지 건설하여 주체철생산체계를 완성하였다는 보고를 받으신 즉시로 차를 달려 이 기업소를 찾으시였다. 일군들이 아직은 생산정상화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여서 주체철생산장면을 화면으로 보여주셨으면 하는 청을 드리자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수령님의 평생소원이었던 주체철을 화면으로만 볼수 없다 하시며 출강에 여념이 없는 정련로현장에 들어가시여 로동자들의 작업모습을 기쁨에 넘쳐 바라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그들이 이미전에 출강한 철더미를 손수 살펴보시며 이곳 일군들에게 로동당시

대와 더불어 길이 전해갈 기념비적위훈을 세운 성강의 로동계급은 금방석에 앉혀도 아까울것이 없는 나라의 귀중한 보배들이라는 최상최대의 높은 평가와 치하의 말씀을 주시였다.

이보다 더 높은 신임과 평가가 어디 있겠는가.

몇달전에는 이들이 만든 주체철시편을 받으시고 또 하나의 인공지구위성을 쏘올린것과도 같은 승리를 이룩하였다고 하시며 금수산기념궁전(당시)을 찾으시여 이 기쁨의 소식을 아버지수령님께 보고드리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아버지수령님, 수령님을 찾아뵙자고 저와 함께 우리 인민이 드리는 선물을 가지고왔습니다.

수령님께서 그렇게도 소원하시던 주체철입니다....

우리 인민이 고맙습니다, 수령님을 찾아갑시다라는 저의 말 한마디에 열화와 같이 호응하는 우리 인민입니다. 그 인민을 수령님께서 바라시던대로 세상에서 제일 잘살게 할것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주체철생산체제를 완성한데 기여한 로동자, 기술자, 일군들 모두를 평양으로 초청하시였으며 여기에 참가하지 못한 련관단위일군들과 로동자들을 렬차식당에 부르시여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면서 이들이 부르는 노래도 들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에 대한 믿음과 사랑, 그것은 이 세상 그 무엇에도 비할수 없는 뜨겁고도 열렬한것이였다.

이 사랑의 품에서 물길굴공사장에서 입은 심한 부상으로 생사기로에 놓인 인민군중위 권혁이가 아버지장군님께서 보내신 직승기에 실려 유능한 의료진의 긴급수술로 생명을 다시 찾고 완치되어 또 다시 초소에 나섰고 그의 애인인 김책공업종합대학 연구사 강선경이 시험로 출강시 폭발원인을 해명하려 하다가 한쪽눈을 크게 다쳐 실명될수 있다는 의학적감정을 받았지만 즉시 평양으로 올라와 성과적으로 눈수술을 받게 된다.

아버지장군님께서 자신의 아픔과 피로움은 심중깊이 물어두시고 오히려 부총리 강민혁이 현지에 나가있다보니 부인의 장례식에도 못 참가했다는 사실을 보고받으시고 국방위원회 군사위원인 차철군을 시켜 위로의 술까지 보내주신다.

어찌 그뿐이라.

주체철생산시험을 하다가 실패하고 정치적생명까지 잃은 한 기술자를 자신의 보증으로 입당시키고 재생의 길을 열어주신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

아버지장군님께서 우리 일군들과 인민들에게 들려주신 크나큰 믿음과 사랑의 이야기는 헤아릴수 없이 많다.

참으로 소설에서는 위대한 장군님과 전사, 장군님과 인민사이의 인간적인 관계를 숭고한 혁명

적의리와 동지애를 바탕으로 하여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그려내고있다.

소설은 한결음 더 나아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니신 인간적품모의 위대성을 보여주면서 형상을 격식화, 기정사실화하지 않은 점에서 좋은 경험을 시사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렬차식당에 소박한 연회상을 차리게 하시고 주체철완성을 위하여 기여한 일군들과 로동자들을 초청하시였을 때 이들이 노래와 춤으로 즐기는 세부 하나만 살펴보자.

칠순에 나는 어느 한 로인이 스스럼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고망년적에 익힌 노래를 부르는데 그를 지켜보는 책임비서 전진광은 속이 조마조마해서 굳어진다. 그것을 알길 없는 로인은 《새가 새가 날아든다》하고 목청을 뽐으나 그 가사마저 잊은듯 같은 구절만 반복할뿐이였다.

이때 아버지장군님께서 《책임비서, 이리 오시오.》 하시더니 《제강소에 새가 날아오는것이 얼마나 희한한 일이기에 이렇게 우거지상이요?》라고 하시며 그의속마음을 풀어주신다.

이 세부 하나를 놓고서도 소설에서는 우리 장군님이시야말로 가장 소탈하고 다심한분이시며 인정미가 넘치는 위대한 인간이심을 형상적으로 느끼게 된다.

작품에서는 이렇듯 아버지장군님의 숭고한 믿음과 사랑의 세계가 생활적으로 뜨겁고 진실하게 안겨오게 하고있다.

여기에 이 작품의 높은 사상예술적품격이 있고 아버지장군님의 한없이 고매한 덕성과 사랑의 세계에 독자들이 매혹되는 요인이 있다.

이렇듯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속에 높이 세운 2009년 인민경제계획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정신력을 총발동시켜 150일전투에 이어 100일전투를 거쳐 훌륭히 완수되었으며 경제강국건설의 돌파구가 열리게 되였다.

#### 다장면구성형식의 활용과 특색있는 이야기조직

장편소설 《2009년》은 2009년 한해동안에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아래 우리 나라 경제건설에서 세인을 경탄시키는 변이 일어나고 그것이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련합세력과의 대결에서 통장훈을 부른 세계사적의의를 가진다는것을 형상과제의 하나로 내세운만큼 이것을 풀어보일수 있게 비교적 많은 인물들을 등장시키고있다.

작품에서는 내각을 대표하는 부총리 강민혁, 사무국장 오영진, 국방위원회 위원 차철군, 내각부국장 림태섭 등과 성진제강련합기업소 책임비서 전진광, 지배인 리철, 오랜 용해공인 리대원, 그의 아들 금속공업성 부상 리성민, 인민군중위 권혁, 그

의 애인인 김책공업종합대학 연구사 강선경 등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현지지도의 길에서 만나신 락원 기계련합기업소 지배인, 대흥광산 초급당비서, 재령광산 지배인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작품에 열핏 등장하였다가 다시 나타나지 않는 인물들도 적지 않다. 이런 등장인물까지 합하면 총 70여명이나 된다.

지어 적대세력은 미국대통령 오바마, 미국무성 차관보 코난, 국무장관 힐러리, 은퇴한 전 미국대통령 클린턴 등 무려 10여명이 잡힌다.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동안에 벌어지는 역사적 사실을 재현함에 있어서 수많은 인물들을 등장시키는 경우 자칫하면 작품의 구성이 평면성과 단순성을 면치 못하게 된다. 그것은 동일한 시간에 서로 다른 장소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들이 밀접한 내적련판을 가지기 힘들게 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설에서는 매 인물들과의 내적련계를 밀접히 하면서 그 모든 인물들의 형상선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형상선을 주축으로 하는 주선에 튼튼히 맞물려지게 함으로써 어느 한 인물선도 들어내거나 바꾸어넣을 수 없게 유기적으로 튼튼히 맞물려져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여기에 이 작품의 구성이 립체적으로 짜여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등장인물들은 많으나 구성이 산만하지 않은 비결이 있다.

이 작품의 구성상특성은 또한 짧은 시간동안에 벌어진 이야기를 여러 인물들과의 관계속에서 자주 엇갈아가면서 수령형상선인 주선을 보장하는 위치에서 이야기를 펼친 다장면구성형식을 취한데서 독특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장면구성형식은 이야기를 늘어놓지 않고 집약화하여 속도감이 있게 펼쳐보일 수 있는 유리성을 가지고 있다.

다장면구성형식은 영화문학에서 흔히 쓰이고 있는 창작기법으로서 최근년간 소설창작에서 눈에 띄이게 나타나고 있다.

작품에서는 이 구성형식을 효과적으로 받아들여 이야기를 산만하지 않게, 속도감이 있게 잘 펼쳐 보이고 있다.

작품은 총 37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개개의 절들을 살펴보면 이야기가 한개 절에서 보통 3~4번, 적어서 2번, 많아서 5~6번씩 장면들이 바뀌어 펼쳐지고 있다.

특히는 협의회, 사고심의회와 같은 회의적성격을 띠는 장면들은 집약시켜 이야기를 펼치고 여기에도 특징적인 사건을 인입하여 매개 장면의 이야기가 재빠르게, 극성이 있게 펼쳐진다. 따라서 독자들로 하여금 예술적흥미를 가지고 시작부터 끝까지 재미있게 감동적으로 읽어내려가게 하고 있다.

여기에 이 작품의 사상예술적품격이 있고 작가의

고심어린 탐구의 흔적이 있다.

작품의 임의의 장을 펼쳐보자. 35절에는 당중앙위원회 회의실에 모인 당과 군대, 국가의 지도일군들이 150일전투결속과 관련한 보고문초안을 토의하는 장면, 성장지배인 리철이 150일전투기간에 주체철생산을 위한 철생산공정을 꾸려놓고 부문별 시운전에 성공하여 거기서 생산한 두개의 시편을 가지고 올라와 위대한 장군님께 해당 경로를 통하여 전달한 사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회의실에 모인 일군들에게 이 시편을 보이시는 장면 그리고 그길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와 함께 금수산기념궁전(당시)을 찾으시어 아버지수령님께 보고드리시는 장면 등 4개의 장면들이 설정되어 있다.

15절에는 내각전원회의에서 공장, 기업소 지배인들이 토론하는 장면은 다시 성장으로 파견된 금속공업성 부상인 리성민과 부총리 강민혁이 만나는 장면, 강민혁의 딸 강선경이 어렸을 때 있는 사실을 서술한 장면, 내각당위원회 책임비서 윤진병이 내각에서 집필한 《우리 수령님과 내각》이라는 덕성도서를 강민혁에게 가져다주면서 이야기하는 장면, 강민혁이 사무실에서 잠간 눈을 붙였다가 초저녁부터 전기전압과 주파수가 떨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인민경제책임일군들을 비상소집하여 모이게 한 다음 그 대책을 시급히 취하는 장면 등 무려 5개의 장면으로 서로 바뀌면서 이야기가 펼쳐진다.

다장면적구성은 매개 장면들에 극적사건이나 지나간 생활을 집약시켜 보여줄 수 있는 의의있는 생활세부들이 인입되어 이야기가 펼쳐져야 독자들이 예술적감흥을 갖고 읽어내리게 된다.

이 작품에는 극성이 있는 사건, 생동한 생활세부들이 적지 않게 인입되어 예술적흥미를 돋우고 있다.

20절만 보더라도 열두삼천리별 아이들이 주변산에 올라가 나무를 심는 장면을 바라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고난의 행군시기 자강도의 일부 일군들이 나무와 쌀을 바꾸려고 베푼 것은 원목더미를 보시고 이곳 책임일군들을 호되게 비판하신 사실, 안주지구를 지나시다가 고압선을 끄지 않고 송전선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을 바라보시며 그 안전대책을 문의하시는 장면, 그로부터 며칠후 평양에서 진행된 태양절 축포야회장면을 글로 적은 차철군의 종군기 등으로 서로 엇갈아가며 서술되고 있다. 여기서 세번째 장면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극성이 있는 장면이다.

작품에서는 또한 주요인물인 국방위원회 위원인 차철군의 종군기를 도간도간 삽입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형상을 간접적으로 형상하는 수법으로 이야기를 펼쳐나간 것도 하나의 구성상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측근인물인 차철군의 종군기의 삽입은 작품의 기

# 김정은동지

## 동 기 춘

인민의 아버지로 우리에게 오실적에  
걸으시는 그 모습 수령님 같으시고  
말씀하시는 모습은 장군님 같으신분  
환하게 웃으실 때는  
그대로 수령님이신듯  
어찌 보면 또 장군님이신듯

경사난 새집들이에 몸소 오시여  
잊지 않고 풍습대로 성냥도 가져오시고  
늙은이를 존대하여 폐의를 차리실 때는  
한없이 겸손한 조선의 아들

열점수역 섬초소를 찾아  
격동하는 군인들 가족들에 싸이시여  
보조개핀 어린애를 높이 추켜올리실 때는  
마치 전선시찰이 아니라  
그 귀염둥이를 보러 오신 친아버지이런듯

풍치수려한 대동강반  
육아원 애육원의 따뜻한 요람에  
만사를 제치고 들리시여  
매여달리는 철부지들을 한품에 안으실 때는  
다심하고 정겨운 나라의 어머니

인민의 아들 되시여 부모가 되시여  
진길 마른 길 모르시다가도  
적들을 제압하는 철령을 넘으실 때는

옷자락에서 백두의 칼바람 일고  
안팎에 벼락의 불줄기 번뜩이는  
무적의 최고사령관

그이 찾아오시면  
이 강산 어디나 해빛같은 그 미소에  
바다향기 사과향기 넘쳐풍기고  
그이 안아주시면  
평범한 방직공처녀들이  
나라의 귀공녀 되어 하늘높이 받들리고  
그이 손길 뻗치시면  
폭음을 울리는 비행대 참매같이 날으고  
포화력의 강타에 적진이 거덜나라

매일같이 하루같이 오늘도 어제같이  
전선길 구내길 걸으시는 빠르신 걸음  
그 보폭을 따라  
단숨에의 정신에 무릉도원이 펼쳐지고  
아침노을같이 꿈과 리상  
웃으며 마중와라

행복과 운명의 수호자이시며 령도자  
인민소원의 모든것 다 풀어키우시는  
태양이시여 위대한 인간이시여  
이 땅우에 인민사랑의 새 폐지를 쓰시는  
그이는 우리의 **김정은**동지이시다!

본이야기와는 별도로 위대한 장군님의 우리 인민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부각시키면서 기본이야기에 다 담을수 없는 생활적내용을 보충, 보강하는 역할을 한다.

례를 들면 32절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인민군중위 권혁이가 생사기로에 놓여있을 때 중앙의 의료일군들도 그를 살릴수 있다는 확답을 못 주는 그 시각 너무도 안타까우시여 당중앙위원회 청사정원에서 친히 권위있는 학자들과 의논하시는 장면에서 병원의사들이 전화를 걸어오자 《최고사령관이 명령하는게 아니라 사정한다고 하시오. 알겠소? 사정한다고... 안되오, 안돼. 내가 못 견디오. 내가...》하시며 송수화기를 떨어뜨리시는 장면 등이 그러하다.

우리 인민모두의 운명과 미래를 한품에 안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바다같은 사랑을 부각시키는 장면들이다.

그리고 종군기삽입은 작품의 기본이야기와는 별도로 작품의 사상주제를 깊이있게 풀어보이고있으며 위인의 내면세계를 일층 부각시키면서도 최대한의 함축과 비약으로 그 내용을 명확히 알수 있게 하여주고있다.

작품의 대사들도 간략화되고 최대한 함축되어 쓰이고있다.

이밖에 주요인물들의 형상에 대해서도 그 우점을 두고 론의할바가 적지 않으나 이 짧은 글에서 다 언급할수 없다.

작가들은 수령형상소설에서 거둔 이러한 성과에 토대하여 소설창작에서 보다 훌륭한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여야 할것이다.



# 명가사에 비친 심오한 철학세계

—가사 《가리라 백두산으로》를 두고—

강 문 혁

내 조국의 방방곡곡 그 어디서나 위대한 **김정은**시대에 태어난 또 한편의 가요 《가리라 백두산으로》(리지성 작사, 우정희 작곡)의 장엄한 선율이 천지를 진감시키고있다.

불러볼수록 되새길수록 명가사에 담겨진 심원한 진리와 독창적인 형상세계가 천만심장을 세차게 울려주며 최후승리를 위한 투쟁과 전진의 전역들에 끝없이 메아리친다.

가리라 백두산으로!

가사의 제목에도 있는것처럼 이 가사는 백두산으로 가는 길에 대한 심오한 철학적해명을 통하여 혁명가들의 가슴속에 혁명승리의 참된 진리를 다시금 뚜렷이 새겨주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은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가는 완강한 공격정신이며 백번 쓰러지면 백번 다시 일어나 끝까지 싸우는 견결한 투쟁정신입니다.》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밝혀주신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삶과 투쟁의 좌우명으로 삼고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총공격전에서 기적의 폭풍을 일으키고있다.

이 위대한 혁명정신은 바로 선군력사의 시원이 열리고 백두의 칼바람으로 천만군민의 마음에 필승의 신념과 의지를 버려주는 태양의 성산—백두산으로 가는 그 길우에서 발현되는것이다.

하다면 가사에 맥맥히 흐르는 길의 철학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백두산으로 가는 길은 그 언제나 영원히 가야 할 승리와 영광의 길, 태양을 따라가는 우리 인민의 운명의 길이라는것이다.

가사는 백두산으로 가는 길에 대한 이 심오한 철학을 가사의 구절구절들에서 세련된 시적형상으로 밝혀내고있다.

무엇보다도 가사는 백두산으로 가는 길은 우리 인민이 그 언제나 영원히 가고가야 할 운명의 길이라는 철학을 매 절의 첫행들에서 가사적체시으로써 암시하고있다.

봄날에도 가리라 겨울에도 가리라

... ...

꿈결에도 가리라 그 언제나 가리라

... ...

한생토록 가리라 대를 이어 가리라

... ...

가사는 가사의 매 절들의 첫행들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백두산으로 가는 길은 봄날에도 겨울에도 가고 꿈결에도 그 언제나 가며 한생토록 대를 이어 가야 할 길이라고 형상함으로써 백두산으로 가는 길은 즐거울 때에도 곤난할 때에도 가고 낮이나 밤이나 그 언제나 가야 하며 가다가 중도반단하는 길이 아니라 영원히 대를 이어 가야 할 길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백두산으로 가는 길은 결코 자연의 산으로 가는 길, 날이 좋을 때 기회를 보아가며 찾아가는 등산길이 아니라 우리 인민이 준엄한 력사의 시련을 맞받아헤치며 목숨을 걸고 가야 할 운명의 길이다.

천지풍파가 몰아친대도 백두산마루에 생의 피줄기를 잇고 사는 사람만이 그 어떤 역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념의 인간, 의지의 강자가 될수 있으며 생의 순간순간 자신의 모습을 백두의 맑은 천지물에 비추며 사는 사람만이 승리와 영광의 길을 걸을수 있는것이다.

가사는 이러한 사상감정을 매 절의 첫행들에서 의미깊게 제시함으로써 백두산으로 가는 길이 바로 우리 인민들의 운명의 길, 인생길이라는것을 감명깊게 시사하였다.

여기에 바로 길에 대한 이 가사의 심오한 철학세계가 있고 백두산으로 가는 이 운명의 길에서 최후의 승리자로 영광떨칠 우리 인민의 숭고한 사상감정이 비껴있는것이다.

다음으로 가사는 백두산으로 가는 길에 대한 심오한 철학을 매 절들에서 함축된 가사적형상으로 깊이있게 밝혀내고있다.

가사는 매 절의 가사적전개에 있어서 백두산에 대한 상징적인 정의를 주어 왜 우리 인민이 삶의 순간순간 백두산으로 가야 하는가를 명백히 천명해주고있다.

가사는 1절에서 백두산에 대하여 《폭풍에도 굽힘없는 의지를 주고/신념을 버려주는 혁명의 전구》라고 명명함으로써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의 혈전속에서도 오로지 백두산을 바라보며 미래를 확신한 우리 혁명의 1세들의 투쟁업적으로 빛나는 백두



산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있다.

우리 혁명의 시련에 찬 역사를 돌이켜볼 때 혁명의 충신들은 누구나 백두산을 우러르며 백두산에 삶을 정하고 살았지만 혁명의 배신자, 역적들은 어느놈이나 다 백두산에 오르기 주저하며 백두산을 가리워보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백두산은 언제나 충신과 배신을 가르는 심판관이 되어 혁명가들에게는 신념과 의지를 키워주는 용맹의 파스한 바람을 일으켰으며 변절자들에게는 억척의 철추를 내리는 무서운 돌풍을 일으켰다.

이렇듯 조선의 혁명투사들에게 신념과 의지를 버려주는 백두산은 주체의 조선을 일떠세우는 성스러운 투쟁에서 혁명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올라야 할 혁명의 산이었으며 백두산으로 가는 길은 바로 혁명하는 길이였다.

가사는 1절에서 백두산에 비끼는 이 혁명적삶의 진리를 함축된 시적형상으로 보여줌으로써 심오한 철학세계를 심도있게 밝히었다.

가사는 2절에서 《이 땅위에 기적들과 행운을 불러/영웅조선 승리의 길 향도하는 곳》이라고 백두산을 칭송함으로써 기적과 행운의 산, 승리의 산으로서의 백두산의 숭엄함과 거룩함에 대하여 구가하였다.

우리 나라에 백두산처럼 자연의 천지조화가 많고 인민들의 마음속에 신령스러운 산, 전설의 산으로 깊이 자리잡은 산은 없으며 그래서 예로부터 우리 인민은 백두산을 조종의 산, 신성한 산으로 우러러 바라보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동아의 맹주라고 떠들던 일제의 백만대군을 천변만화의 전술로 통쾌하게 쳐 물리치신 항일의 전구 백두산, 우리 인민들은 백두산장수의 신비한 전설로 한밤을 지새우며 백두산을 희망의 등대로 바라보았다.

백두산에서 주체의 전법을 터득한 투사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백두의 지략과 전술로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를 쳐부시고 인류력사우에 영웅조선의 존엄과 영예를 펼치였다.

하기에 백두산은 수령이 위대하여 존엄높은 산, 수령의 업적으로 빛나는 산이었으며 백두의 혁명전통, 백두혈통을 곳곳이 이어 이 땅위에 기적과 행운을 주는 승리의 산, 영광의 산이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그토록 사랑하시고 그처럼 자주 오르시며 마음속에 안고사신 백두산은 산이기 전에 조선의 뉘이었고 승리의 상징이었다.

이처럼 가사는 2절에서 우리 인민들의 마음속에 승리의 상징으로 억척같이 자리잡은 백두산의 의미를 함축된 가사형상으로 보여줌으로써 백두산으로 가는 길이 승리의 길이라는 혁명철학을 밝히고 있다.

가사는 3절에서 백두산을 《당을 따라 끝까지 갈 영광의 길에/필승의 념을 주는 태양의 성산》으로 형상함으로써 혁명의 성산, 위대한 수령님들의 산

으로서의 백두산의 지위를 밝혀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항일혁명업적이 깃들어있고 우리 혁명의 역사적뿌리가 내린 백두산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탄생하신 곳이며 우리 인민의 마음의 고향이다.

하기에 우리 인민의 마음의 태양은 언제나 백두산에서 먼저 솟았으며 이 태양의 빛발로 조국강산에는 한점 그늘도 없이 세상에 보란듯이 만복을 누려가는 인민의 노래가 울려 퍼질수 있었다.

혁명투쟁의 거세찬 폭풍우속에서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폐부로 절감한 우리 인민은 수령을 모시고 따르듯 백두산을 우러르며 삶의 순간순간 백두산으로 오르고올랐다.

진정 백두산은 곧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엄한 모습이며 백두의 혈통을 곳곳이 이어 이 땅위에 영원한 빛을 주는 태양의 성산이다.

가사는 이렇게 3절에서 백두산에 담겨진 이 심원한 진리를 감명깊게 형상함으로써 백두산의 상징적 의미를 보다 부각시키고있다.

이처럼 가사는 매 절들에서 혁명의 전구, 승리의 향도봉, 태양의 성산으로서의 백두산에 대한 정서적주장을 명백히 천명함으로써 백두산으로 가는 길에 대한 철학을 집약적으로 명백하게 해명하였다.

다음으로 가사에서 밝힌 백두산으로 가는 길에 대한 심오한 철학세계는 독특한 예술적형상으로 하여 더욱 부각되고있다.

가사는 그 예술적형상에 있어서 다양한 형상수법들의 활용과 세련된 가사어들의 탐구로 심원한 철학적주장을 명백하고도 깊이있게 밝히고있다.

우선 가사는 반복법을 리용하여 감정의 색채를 뚜렷이 하면서 운율적효과를 높이고 정서적주장을 강조시키고있다.

가사에서는 시어 《가리라》를 여러번 반복하여 줌으로써 백두산으로 영원히 가고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석같은 신념의 맹세를 보다 확신성있게 형상하고있다.

봄날에도 가리라 겨울에도 가리라  
백두산 백두산 내 마음의 고향에  
폭풍에도 굽힘없는 의지를 주고  
신념을 버려주는 혁명의 전구  
가리라 가리라 백두산으로 가리라  
우리를 부르는 백두산으로 가리라

꿈결에도 가리라 그 언제나 가리라  
백두산 백두산 내 마음의 고향에  
이 땅위에 기적들과 행운을 불러  
영웅조선 승리의 길 향도하는 곳  
가리라 가리라 백두산으로 가리라  
우리를 부르는 백두산으로 가리라

한생토록 가리라 대를 이어 가리라  
백두산 백두산 내 마음의 고향에  
당을 따라 끝까지 갈 영광의 길에  
필승의 넋을 주는 태양의 성산  
가리라 가리라 백두산으로 가리라  
우리를 부르는 백두산으로 가리라

보는것처럼 가사는 매 절의 전렴에서는 《봄날에도 가리라 겨울에도 가리라》, 《꿈결에도 가리라 그 언제나 가리라》, 《한생토록 가리라 대를 이어 가리라》와 같이 교차반복의 형식으로 반복을 주고 후렴에서는 《가리라 가리라 백두산으로 가리라》와 같이 련속교차의 형식으로 반복법을 보다 증폭확대시키면서 정서적주장을 강조시키고있다.

이와 함께 가사에서는 반복법을 리용함에 있어서 시어의 반복과 함께 매 절의 두번째 행인 《백두산 백두산 내 마음의 고향에》를 반복하여 시행의 반복적효과를 줌으로써 백두산으로 향한 인민의 마음을 하나의 시적화폭으로 련결시키였다.

또한 가사에서는 반복법을 리용하면서 여기에 어순전도법과 대조법, 점진법과 같은 다양한 시어형상수법들을 배합하여 활용함으로써 그 정서적효과를 높이고있다.

실례로 매 절에서 첫 두행들은 어순의 순서에 따르면 《내 마음의 고향 백두산 백두산/봄날에도 가리라 겨울에도 가리라》로 되어야 한다.

그러나 가사에서는 어순전도법을 리용하여 《봄

날에도 가리라 겨울에도 가리라/백두산 백두산 내 마음의 고향에》로 형상함으로써 작품에서 밝히려는 백두산으로 가는 길에 대한 철학적주장이 명백히 안겨오도록 하였다.

그리고 1절의 첫행은 《봄날》과 《겨울》이라는 대조를 주어 대조법과 반복법의 결합을 실현하였고 2절과 3절에서는 《꿈결》과 《언제나》, 《한생토록》과 《대를 이어》와 같이 점차적으로 승화되는 점진적어휘들을 리용하여 점진과 반복을 결합하여 매 절들이 상대적인 독자성을 가지고 작품에서 제기한 철학적문제를 정서적으로 해명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또한 가사에서는 《폭풍에도 굽힘없는 의지》, 《신념을 버려주는》, 《기적들과 행운을 불러》, 《태양의 성산》과 같이 은유적이고 상징화된 시적언어표현들을 적극 활용하여 가사의 정서적효과를 더욱 높이고있다.

이처럼 가사 《가리라 백두산으로》는 작품이 제기한 철학적문제의 심오성과 명쾌한 해명, 세련된 형상미로 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을 따라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향해 과감히 나아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참된 운명의 길을 밝혀주는 시대의 명작으로 빛을 뿌리고있다.

모든 창작가, 예술인들은 가사 《가리라 백두산으로》가 이룩한 창작성과를 적극 본받아 심오한 철학세계를 가진 명가사들을 더 많이, 더 훌륭히 창작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할것이다.

## 수 필

# 넋을 안고살라

## 배 경 회

《할아버지, 증조할머니가 저 산우에 있나요?》

《그래, 저우에 계신단다.》

경사가 어지간한 산임에도 탁아소생인 손자애는 씩씩거리며 잘도 올라갔다. 산으로 증조할머니를 찾아온다는 말의 의미도 모르면서 신이 나서 오는 저 애를 본다면 땅속의 부모님도 펍 대견해하시리라.

정말 세월이 흘렀다. 철없다고 꾸중을 듣던 내가 어느덧 할아버지가 되고 세상떠난 부모님이 증조할아버지, 할머니로 불리우게 되었으니.

나의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아들과 손자에게 해주려고 한다. 조부모님들에 대해 너무도 아는것이 적은 자식들이다.

이제는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 다 체구실을 한다고 하지만 어느 자식도 할아버지, 할머니

에 대해 묻지 않는다. 젊은 시절에는 다 앞을 바라보지 뒤를 돌아보게 되지 않는 모양인지 오늘의 행복과 앞으로의 전망만 생각할뿐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것인지는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소원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생각하려 하지 않는 것이다.

해방이 된지 어언 70년! 기쁨과 감격으로 그날을 맞이했던 세대는 거의다 떠나가고 해방에 대해 말로만 들었던 내가 60이 지났으니... 그동안 이 땅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기를 몇번이나 거둬들었는가? 세상을 놀래우는 변혁은 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파아란 햇풀이 드문드문 돌아났을뿐 거의나 누렇게 마른 잔디로 덮인 묘소앞에 서고보니 그림고그리운 부모님의 얼굴이 눈앞에 어려오고 정다운 목소리들이 들리는것 같았다.

나라의 해방을 위해, 조국의 통일을 위해 위대한 수령님만을 따라 한생을 곳곳이 걸어온 부모님들. 언젠가 한 오랜 녀성일군이 하던 말이 떠올랐다.

《19살 꽃나이처녀로 서울서대문형무소에서 1년 이상 독감방생활을 한 녀학생은 너의 어머니밖에 없었다.》

나의 어머니를 못 잊어서 하는 추억의 말이었다. 자기의 하급생으로 리화녀전시절 수재생으로 널리 알려졌다.

그 고마운 추억의 말을 들으며 나는 어머니를 회상했다.

나의 기억속에는 자식들에 대한 다심한 애정과 높은 요구성을 지닌 가정부인으로, 문학을 지향하는 소원을 품고 아글타글했던 한 녀인으로 새겨졌을뿐인 어머니였다. 그렇다. 나는 어머니의 투쟁사에 대해 너무도 모른다, 그 시절의 이야기를 피상적으로 알뿐. 이따금 어머니가 하던 회상담을 통해 형무소에서의 생활을 단편적으로 들었을 뿐이다. 어머니가 리화고보와 리화녀전에서 소문난 수재생이었다는것도 그 당시 동창생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뿐이고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관심하게 된것이 리화녀전 교원들이 너무 칭찬했기때문이라는 정도로 알뿐이었다. 어머니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의 가르침을 받아 혁명의 길에 나서게 된 이야기도 펴 후날에야 알게 되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기들이 조국을 위해 바친 모든것을 너무도 웅당한것으로 여겼기에 구태여 자식들에게 말하지 않았다.

아마 그 세대는 누구나 그러했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망각의 락엽에 묻히고 력사의 갈피속에 사라져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애국의 녀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아마 이 땅만이 알것이다.

인간에게서 청춘도 한때, 목숨도 하나라고 할 때 그것처럼 귀한것이 없다는것은 자명한 일이니 그 고귀한 청춘과 생명을 서슴없이 바친이들, 그러고도 그것을 웅당한것으로만 여긴 그들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무슨 말로 표현할수 있겠는지?

이제는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해주는 사람도 없다, 어머니를 아는 사람들은 거의다 세상을 떠났으니까.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나도 늙어가게 되니 어머니와 아버지가 조국에 바친 고결한 생애에 대해 날로 생각이 깊어진다. 그 무엇도 바람이 없이 오직 조국의 해방과 룡성번영을 위해 자기를 바치는것을 더없는 기쁨으로, 보람으로 여긴 그들의 삶에 대해 더듬게 되고 그 세대의 아름다운 정신세계에 대해 새로이 되새겨보게 되는것이다.

지난날 스쳐버리고말았던 그들의 참된 생의 자취가 날로 새로운 의미를 안고 나의 가슴을 두드리는것은 늦게나마 그 녀의 고귀함을 더 깊이 깨닫게 되고 그 세계의 숭고함을 리해하게 되어서인

지도 모른다.

그래서 자식들에게 꼭 이야기해주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것이다. 자식들이 어렸을 때는 어리다고 해서 그랬고 커서는 서로가 다 바빠서 이야기할 틈이 없었다. 이제는 더 미루지 말아야 할것이다.

세대교체가 확인해진 나의 가정의 그것을 바라고 있고 시대가 요구하고있다.

오늘날 날로 가증되는 미제와 온갖 원썩들의 발악속에서도 끄떡없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인민사랑의 해빛속에 인민대중중심의 아름다운 화원이 꽃피는 이 강산을 보면서 내가 느끼는바가 오늘의 행복을 위해 청춘과 생명을 아낌없이 바친 전세대의 고결한 생애에 대해 경건히 추억만 할것이 아니라 후대들에게 그 정신을 넘겨주어야 한다는것이다.

부모님의 한생은 해방전엔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 끄신 항일의 거세찬 격류속에서 흘러갔고 해방후에는 남조선사회의 민주화와 조국의 통일을 위한 투쟁에 바쳐졌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 땅에 조국해방의 해발을 비쳐준 1945년 8월 15일은 민족재생의 날, 우리 인민이 암흑속에서 광명의 세계로 들어선 운명전환의 날이었다.

그런데...

북반부에서는 자주와 독립의 새 세상을 만나 인간의 참된 삶을 맛보기 시작하였지만 이 나라 남쪽땅에서는 《해방자》의 탈을 쓴 미제가 인민의 자유를 칭칭 동여매며 남반부인민들은 다시금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강요당해야 했다.

이 나라의 절반만으로 만족하지 않은 미제는 전쟁의 불을 질러 푸르른 땅을 인간의 피와 채터미로 뒤엎었고 쓰디쓴 패전을 당하고도 남쪽에 틀고 앉아 세계제패의 야망을 실현해보려고 갖은 발악을 다하고있다.

그속에서 북반부에서는 인민의 세상이 꽃피고 우주정복의 로케트가 날고 자위의 핵무기가 자기의 위력을 세상에 알리었다. 허나 남조선에선 미국의 비위에 맞지 않는 모든것은 사멸되어야 하는 처지에서 벗어날수 없었으니 미국에는 그 땅의 진보가 아니라 오직 충실한 노복과 침략수단으로서의 존재만이 필요했기때문이었다.

이렇게 우리 민족은 북과 남이 한하늘아래서 상반되는 정치아래 상반되는 력사가 흘러오며 세계에 유일하게 분렬된 민족의 수난과 아픔을 날로 깊이 새겨왔다.

나는 잠간 우리 부모를 비롯한 선렬들의 마음속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본다.

항일의 투사들을 비롯한 우리의 선렬들이 청춘과 생명을 바치며 간절히 바란것은 북녘만의 해방이 아니였고 민족과 강토의 분렬이 아니였다.

그래서 우리 수령님께서 늘 남녘의 인민들을 생

# 백두산이 보증하리라

장 명 길

여기선  
모든것이 레사롭지 않구나  
솟아오르는 대연제들도  
언제우에 뜨고지는 별들도  
웃자락 흔드는 바람결도

돌격대원들이여  
그대들은 지금 어디서  
값높은 구슬땀을 흘리고있는가  
춘하추동 내 나라의 사계절을  
이 백두대지에서 그 몇몇해 보내고있는가

내 오늘  
그대들이 맞고보낸 해와 달들을 세여보며  
그대들이 남긴 청춘의 자욱자욱을  
다 안아보고싶다  
그대들의 이름을 한사람 한사람  
다 불러보고싶다

물노니  
백두가 간직한 혁명선렬들의 삶이  
오랜 세월을 총잡고 싸워서만  
이 땅에 영생하던가  
설한풍에 얼며 피흘려 싸워서만  
세월이 가도 우리가 못 잊는것인가

10대에  
20대에  
나라를 빼앗긴 아픔을 안고  
민족의 태양을 웅위해 서슴없이 내댄 그 생이  
영원한 별무리로 비껴있는 백두대지

믿노라  
혁명의 뿌리가 내린 백두성지를 지켜  
이 언저리에 다만 혼합물이 아니라

자기 심장을 쌓고있는 그대들을  
10대 20대 항일빨찌산의 그 청춘들처럼  
조국의 앞날을 어깨무거이 떠메고 나선  
**김정은**청년전위들의 불같은 지향을

여기서  
이 백두대지에서  
그 어떤 량심에 대해 의리에 대해  
다른 말을 더 고르라  
우리가 쉽고 험한 길만 골라달고 산다면  
이 땅에 묻힌 선렬들이  
자리를 차고 일어나리니

간직하라 소중한 추억으로  
청춘이 흘리는 땀방울을  
어찌 투사들이 흘린  
진하디진한 선혈에 비기랴만  
바로 오늘에 흘리는 위훈의 구슬땀이  
새 발전소의 전기가 되어 흐르리  
이 성스런 백두대지에  
밝은 불빛이 되어 흐르리

잊지 말자 선렬들의 념원이 꽃핀  
부강조국의 눈부신 모습속에  
그대들의 값높은 삶의 자욱이 남는것이다  
그대들의 이름이 남는것이다  
그대들의 아름다운 추억이 남는것이다

우리 당이 키운 백두청춘이여  
원수님께 승리의 보고드릴 그날까지  
더 바짝 조이자 마음의 신들메를  
항일선렬들처럼 값있게 산 그대들의 청춘시절을  
만년대계의 이 언저리가 소리치며 보증하리라  
성스런 백두산이 보증하리라

각하며 잠 못이루시였고 자신께서 우리 인민에게  
줄 가장 큰 선물은 조국의 통일이라고 하시였던  
것이다.

그러나 어버이수령님의 그 념원은 아직도 이루어  
지지 못하였다.

원썬들의 악랄한 도전에 부딪칠수록 날로 더욱  
더 강렬히 타번지며 더는 미룰수 없는 시대의 의  
무로 우리의 심장을 두드리고있으니 민족의 그 절  
절한 숙원이 어느덧 일흔번째 년륜을 새기고있다.  
거의 한세기에 가까와가는 세월의 흐름속에 민족  
의 고통은 깊고깊어져 참을수 없는 분노의 웨침을

터치고있다.

정녕 통일을 이제 어떻게 더 미룰수가 있느냐?  
우리는 결코 분열된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것이  
아니다!

선렬들의 피타는 웨침이 부모님들의 간절한 목소  
리로 들려온다. 때없이 가슴을 치군 하는 그 목소  
리에 나는 승엄한 감정으로 귀를 기울인다. 그러면  
피곤도, 힘겨움도 잊게 되고 절로 불끈 주먹이 쥐  
여진다. 그날을 위해 설수가 없고 잠들수가 없음  
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오늘은 꼭 이야기를 하려 한다.

# 사랑을 보다



백 명 길

2014년 12월 1일 오전 9시 20분

군사임무수행중 한 인민군군관이 뜻밖의 사고로 한쪽눈이 실명되는 불상사가 생겼다. 군관의 이름은 김진혁, 나이는 30살, 군사칭호는 소좌, 참부한다면 그는 군단적으로 진행한 사격경기에서 단연 1등의 영예를 쟁취한 명사수라는 것이다.

2014년 12월 1일 오전 9시 40분

시인민병원 안과과장 박형기는 입원실에 들러 환자들의 상태를 료해하고 의사실로 돌아왔다. 어느 때없이 마음이 흥그러워졌다. 이틀전에 수술한 두 명의 환자들의 상태가 아주 좋았던 것이다.

박형기는 책상위에 놓인 병력서들중의 하나를 집어들었다.

《과장선생님, 한가지 물어도 됩니까?》

문득 앞에서 서른을 갓 넘긴 과의 녀의사가 묻는 말이였다.

《어서 물어보오.》

《저, 과장선생님은 이제 한건의 수술을 성과적으로 치르면 8 000건의 회수를 기록한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박형기과장은 병력서에서 눈길을 떼며 주름진 얼굴에 흐뭇한 미소를 담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다. 과장은 40여년간 안과의사로 근무하면서 크고

작은 수술을 합하여 거의 8 000건이나 성공시켰던 것이다.

《야!》

녀의사는 온몸이 감탄과 부러움의 덩어리가 된듯한 황홀한 표정으로 과장을 바라보았다.

《과장선생님의 손에 치료될 8 000번째 환자는 누구일가?》

녀의사는 혼자소리로 말했다. 그가 내비친 생각은 그대로 박형기과장의 생각이라고도 할수 있다. 하다면 박형기과장의 수술칼에 회복될 8 000번째의 환자는 과연 누구일것인가?...

2014년 12월 1일 오전 11시 10분

김진혁소좌는 시인민병원으로 후송되어왔다.

박형기과장은 즉시 부상당한 환자의 눈을 진찰했다. 상처는 치명적이었다. 유리체가 터져나가 이미 눈알이 뚫어진 상태였다. 손맥이 풀렸다. 전신이 와들와들 떨려났다. 한창나이에 한쪽눈을 잃는다는것은 환자는 물론이고 주위사람들도 억이 막혀말문이 딱 막힐 기막힌 일이다. 아니, 그럴수가 없다. 어디 다시한번 살펴보자....

박형기는 심호흡을 크게 하며 다시 투시경을 켰다. 그리고는 환자의 눈꺼풀을 조심조심 뒤집었다. 모여선 사람들은 손에 땀을 쥔채 숨소리마저 죽이고 과장을 지켜보았다. 긴장한 한초한초가 흘렀다. 이때 과장이 전류에라도 감전된듯 흠칫 몸



을 떨어니 주위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아니, 소리쳤다.

《신경이 살아있다!》

귀청이 찢 열리는 소리였다. 맥없이 누워있던 소좌가 용수철에 튕겨난듯 벌떡 일어나앉았다.

《과장선생님, 제발 저의 눈을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앞으로든 군복을 입게… 전, 전…》

소좌는 박형기과장의 손을 짝 잡았다. 그의 하소연은 그 깊이를 대중할수 없게, 그 열렬함을 미처 표현할수 없게 과장의 심장을 광광 때렸다. 모여선 사람들도 안도의 숨을 내쉬며 기뻐했다.

《진혁동무의 눈을 살릴수 있다니 이젠 됐소.》

《소좌동지! 흑, 흑.》

김진혁을 후송해온 군인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뻐어쩔줄을 몰라한다.

하지만 박형기과장의 마음속에는 일순 찬서리가 얹혀졌다. 불시에 숨막힐듯 한 안타까움과 괴로움이 산같이 쌓여 천근만근으로 그의 몸을 내리눌렀다.

(소좌의 눈을 살릴 방도는 오직 하나밖에 없다. 누군가의 먹물이 담긴 유리체를 떼내어 환자의 눈에 이식해주어야 한다. 그것도 40시간전으로 말이다. 아! 그렇다면 누구의 눈을?...)

박형기과장은 피가 나오도록 입술을 깨물었다.

## 1

의사실을 나온 박형기과장은 손전화기의 전원을 켰다. 그리고는 주소록에서 누군가의 번호를 찾아냈다. 급히 호출단추를 누르려던 과장은 흠칫 몸을 떨며 맥없이 손을 떨구었다. 그는 다시 손전화기를 주머니에 넣고 느릿느릿 입원실로 들어갔다.

입원실에는 한쪽눈에 붕대를 감은 환자만이 잠든듯 누워있었다. 이미 군의들은 환자의 눈을 살릴수 있다는 한가닥 위안을 안고 부대로 떠나간 뒤였다.

과장은 환자에게로 다가가 그의 머리맡에 놓여져 있는 한장의 종이장을 손에 들었다. 그는 첫머리의 글을 읽고서야 그것이 환자의 고향에서 보내온 어머니의 편지라는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속으로 편지를 읽어내려갔다.

《…진혁아, 탈곡의 실참에 이 편지를 쓴다. 올해농사를 마감짓는 때여서 얼마나 바쁜지 너에게 편지 쓸 새도 없구나. 사실 이 편지는 결산총회나 끝내고 쓰려 했다만 그전에 너에게 꼭 알려야 할 일이 있기에 짧시간을 내어 이 글을 쓴다. 진혁아,

넌 요전번에 색시감이 없는가고 쓴 어머니의 편지에 머느리감은 부모님들이 정해야 한다고 회답을 써왔었지. 그래 아버지와 토론하고 색시감은 고향에서 고르기로 작정을 했단다. 뭐니뭐니해도 농촌 처녀들이 근면하고 성실하기 이룰데가 없지. 너도 농사군의 자식이니 그걸 탓하지 않을게고… 그래 총각대대장에게 시집갈 담이 있는 처녀가 있으면 어서 나서보라고 아들자랑을 곁들어 동네방네에 큰 소리를 쳤지. 그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문돌찌귀에 불이 일도록 사람들이 찾아왔다만 어떤 처녀가 너에게 적합할지 선을 긋지 못해 번마다 도리머리를 하였단다. 아버지가 너무 문턱을 높이 지 않는가고 말하더라만 옆집 금단이 어머니의 말따라나 그 집 아들은 이목구비도 그쫘하고 총각시절에 대대장의 견장을 달았으니 장차 장령은 문제가 없겠다고 들 하는데 뭐가 모자라 문턱을 낮춘단 말이나. 그러던 참에 한 처녀가 리사람들이 다 모인 농장총회에서 그것도 아버지에게 자기를 머느리감으로 받아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했단다. 이견 당돌하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풍수가 없다고 해야 할지… 그래 누굴것 같으냐?…

그는 3작업반에서 1분조장을 하는 로명화라는 처녀이다.

진혁아, 그 처녀가 누군지 아니? 우리 앞집에서 살던 축산반장을 하던 로익화아주버니의 딸이다. 오줌싸개라고 불리우던 그 명화 말이다. 어릴 때 키를 쓰고 야장아장 우리 집에 소금을 얻으러 왔다가 물벼락을 맞고 울면서 집으로 쫓겨가던 사내 번지기 명화.

그때 넌 물벼락을 들썩우며 오줌전사도 제바로 못한다고 욕사발을 퍼붓는 이 어머니에게 성이 나서 대들다싶이 했지.

〈어머닌 너무해요. 명화가 뭘 잘못했다고 물벼락을 들썩우나요? 우리 집에 많은것이 소금인데. 씨… 어머닌 나빠.〉

그때 난 웃음을 겨우 참아가며 너에게 설명해줬지.

〈호호… 진혁아, 그건 명화 어머니와 약속을 하고 그런거란다. 옛사람들이 하는 말이 잠자리에 오줌을 싸는 애들에게는 키를 썩워 잘 아는 집으로 소금을 얻으러 보낸다누나. 그럼 그 집에선 오줌싸개가 화뜰 놀라게 물벼락을 들썩우면서 욕사발을 퍼붓지. 그러면 그 오줌싸는 버릇이 똑 떨어진다. 이견 예로부터 내려오는 민간풍습이란다. 호호.〉

그제서야 넌 성이 풀려 뒤더수기를 벽적벽적 긁었지. …

굴이 길어진다면 명화분조장이 만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런 청을 들이댄것은 그럴만한 일이 있어 그런지다.

올해 정초에 농장에서는 최고수확년도를 돌파하기 위한 농장원컬기모임이 열렸단다. 컬기모임에서는 리적으로 실농군으로 소문난 아버지의 분조를 시범단위로 정했단다. 그런데 로명화분조장이 만장에서 아버지네 분조를 따라앞서겠다고 도전해나서지 않았겠니. 그때 주석단에 앉았던 관리위원장이 로명화분조장에게 이렇게 물었지.

〈정말 자신있소?〉

〈승패는 가을에 가서야 결정되겠지만 꼭 따라앞서겠습니다.〉

어찌나 여돌차게 대답했든지 회의장은 일순 물뿌린듯 조용해졌지. 그러자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 로명화분조장에게 이렇게 말했단다.

〈결심은 좋은데 그렇게 될가?〉

〈분조장동진 토끼와 거북기와의 달리기경기에서 누가 이겼는지 아시겠지요. 그러니 자만하지 마시고 앞서기나 하십시오.〉

그러자 회의장에 폭소가 터졌단다. 벌써 두 분조가 쌍벽을 이루고 경쟁을 시작했으니 말이다. 관리위원장이 흐뭇해하며 아버지에게 물었지.

〈중소. 명화분조장이 덕수분조장에게 도전해나섰으니 만일 명화분조장이 경쟁에서 이기면 어쩐다?〉

관리위원장이 느물느물거리며 아버지에게 묻자 아버지 뭐랬는지 아니.

〈명화분조장, 동무가 우리 분조를 따라앞서기만 하면 내 동무가 요구하는것을 다 들어주겠소. 그러니 어디 요구조건을 대보오.〉

진혁아, 회의에 참가했던 농장원들모두가 또다시 숨을 모두고 두 분조장을 지켜보았단다. 그때 로명화분조장이 별로 생각해보지도 않고 이런 요구를 들이대더구나.

〈중습니다! 우리 분조가 아바이네 분조를 따라앞서면 절 며느리로 받아줄 용기가 있습니까?〉

순간 회의장은 바람맞은 갈솔마냥 와슬렁대고 아버지 꼴떡은 병어리마냥 입이 떡 벌어붙어 대답을 못하고... 판이 이쯤되니 아버지 벌써 처녀분조장에게 한코를 단단히 때운셈이 되였단다. 뒤자리에 앉았던 내가 하도 답답해 자리에서 일어나 만장에 대고 말했단다.

〈명화분조장, 그런 요구라면 식은죽먹듯 받아줄터이니 어서 우리 령감 분조를 앞서보오. 그러지 않아도 며느리감을 물색할래 굴이 아픈 참인데.〉

이 엄마가 이렇게 말해서야 네 아버지인 어절싸하고 맞장구를 쳤지.

〈웁거니, 하지만 명화분조장! 명심하라구. 우리 분조를 따라앞서지 못한다면 우리 집 대문밖에도 얼씬하지 못할줄 아오. 으흠.〉

그러지 않아도 사실 아버지와 어머니 농장적으로 일잘하기로 소문난 로명화분조장을 우리 집 며느리로 점찍고 속으로 날가리를 썰던 참이었으니 마침 잘된셈이었다.

진혁아, 이렇게 되어 온 농장사람들의 관심속에 아버지의 분조와 로명화네 분조가 서로 경쟁을 하게 되였고 두 분조원들모두가 성수가 나서 온 한해를 논벌에서 살다싶이 하며 풍년이삭을 가꾸어 오고있단다.

진혁아, 난 지금도 명화분조장이 아버지네 분조와의 경쟁에서 이기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있다. 명화네 분조원들도 어떻게 하나 농사를 잘 지어 자기네 분조장을 총각대대장에게 시집을 보내자고 이악이 발발해 일하고있고... 또 아버지네 분조원들은 또 그들대로 언제나 1등자리를 양보하지 않던 기준 분조의 명예를 지키자고 풍요한 대지에 망심의 팟방울을 아낌없이 묻어오고있고. 그래 수확고판정에서 두 분조가 최고수확년도를 돌파할수 있다고 대단한 호평을 받았지만 아직 탈곡을 마무리하지 못했으니 어느 분조가 앞섰는지는 알려줄수가 없구나. 하지만 오래지 않아 승부가 날테니 그땐 품을 놓고 너에게 소식을 전하겠다. 진혁아, 작업시작을 알리는 너의 아버지의 목소리가 울리니 이젠 일손을 잡아야겠다. 그럼 몸성히 어머니의 편지를 기다리거라. ...》

편지를 읽고난 박형기과장의 얼굴엔 알릴듯말듯 엷은 미소가 어려돌았다.

벼이삭을 안고 환히 웃는 환자의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당돌하고 영악하기가 이틀데 없는 로명화분조장의 모습이 마치 구면지기들처럼 눈앞에 생동한 모양으로 서물서물 안겨들었다. 그는 편지를 펼구었다.

(아, 얼마나 성실하고 근면한 사람들인가. 한생을 전야에서 묵묵히 일해가는 땅같이 진실한 사람들. 아, 이런 사람들앞에 어떻게 실명된 아들을...)

박형기과장은 설레설레 머리를 저었다. 일순 그의 눈가에 근엄한 빛이 어렸다. 가슴속에 묵중한것이 들어앉으며 심장이 형언하기 어려울만큼 벅차게 뿔뛰기 시작하였다. 입원실을 나선 그는 다시 손전 화기를 꺼내 주저없이 전화를 걸었다.

도인민병원에서 안과의사로 근무하는 박형기의 외동딸인 박은경은 아버지가 걸어온 손전화를 받고 서둘러 버스주차장으로 나가 영주행버스에 몸을 실었다. 아버지가 자기에게 한시가 새로우니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절히 부탁했던것이다. 그러되 도착 하거들랑 집에 가지 말고 곧장 병원으로 와달라는 것이다. 아버지는 영문을 묻는 딸에게 《그럴 사정이 생겨서 그런다.》 하며 손전화를 꺼버렸다. 박은경은 종잡을수 없는 위구심을 품은채 즉시 휴가승인을 받아 내려왔던것이다.

그는 아버지의 의향대로 어머니가 계시는 집을 지나쳐 곧장 병원으로 찾아갔다.

은경은 병원정문앞에서 자기를 기다리는 아버지를 똑똑히 보았다. 껍두룩한 키에 꺾여부정한 자세로 서있는 아버지를 보는 순간 은경은 웬일로해서인지 눈물이 쿵 솟았다. 여느때없이 허름하고 초라해보이는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아버지는 칠순을 넘긴 년로한 몸이지만 아직도 소독수냄새가 풍기는 의사복을 벗지 않고있다.

박형기는 은경이가 코앞에 다가온줄도 모르고 멀리 주차장쪽만을 멀거니 바라보고있다. 은경은 그러는 아버지에게로 다가가며 정깊게 불렀다.

《아버지!》

형기는 흠칫 놀라며 은경을 바라보았다.

《어이쿠, 은경이로구나.》

《아버지! 날씨도 추운데 왜 밖에서 기다리세요?》

은경은 장갑을 벗고 아버지의 손을 감싸잡았다. 아버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오랜 시간 밖에서 딸을 기다려 서있었것이 분명하였다.

《일없다. 방금 나온 참이다. 어서 들어가자.》

아버지는 무뎌 반가와하는 표정이었다. 은경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2층에 자리잡은 안과과장방으로 갔다. 어슬렁이라 방안은 어둑어둑했다. 형기가 레드등 스위치를 켜자 사무실은 일시에 밝아졌다.

한쪽벽에 《정성》이라고 쓴 서예작품이 눈에 확 안겨들었다.

형기는 먼저 화독우에 놓여있는 주전자에서 더운 물을 따라 은경에게 권했다.

《어서 마셔라. 인츰 몸이 녹을게다. 그래 아이들은 잘있냐?》

《예.》

《용케 시간을 냈겠구나. 버스에 사람은 많지 않더냐?》

《아니요.》

《빨리도 날아왔구나. 헌데...》

《아버지, 무슨 일이 생겼어요?》

은경은 물고뿌를 받아든채 마실념을 얹고 의문질은 눈길로 아버지를 뵈히 바라보았다. 아버지는 대답은 않고 두손을 마주 비비며 서성대었다. 어색하게 갑작스러우나 슬며시 딸의 눈길을 피하기까지 하였다. 거동 하나하나가 커다란 근심덩이를 안은 사람처럼 부자연스럽기 이룰데 없다.

《자, 앉아라.》

은경은 속이 한줄만 해져 아버지와 마주앉았다.

《오, 배고프겠구나. 여기 과자가 있다.》

형기는 책상빼람을 열고 과자봉지를 꺼내놓았다. 하지만 은경은 그에는 개의치 않고 지긋은 눈초리로 아버지를 지켜보기만 하였다. 그러나 아버지는 여전히 말머리를 꼬집어내지 못하였다. 바재이던 은경은 더 참아내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다그쳐 물었다.

《아버지! 어서 말씀하세요. 난 아버지의 전화를 받고 속이 조마조마해서 달려왔어요. 그러니 어서 말씀하세요. 아버지인 딸의 방조가 요구돼서 불렀지요?》

《...》

형기는 길게 숨을 내쉬며 숙였던 고개를 들어 간절한 기대감이 담긴 눈으로 딸을 바라보았다. 그러면서도 선뜻 입을 떼지 못하고있다.

착각, 착각, 전자벽시계의 초침소리만이 두사람의 심정을 더욱 다우치는듯싶었다.

《은경아, 정말 생각을 많이 하고 널 불렀다. 헌데...》

아버지는 채 말끝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얼버무리더니 책상빼람에서 담배를 꺼내 피워물었다. 그러니 은경의 속이 더 바글바글 끓어났다.

(아, 아버지, 어서 터놓으세요. 아버지가 딸에게 말 못할게 뭐가 있어 그렇듯 바재이시나요?)

뒤모금의 담배연기를 깊숙이 빨고난 형기는 무겁게 입을 열었다.

《은경아, 예돌것없이 말하자. 아버지 한쪽눈을 바치기로 결심했단다.》

《?!...》

은경은 어마지두 놀라 화다닥 자리를 차고 일어났다. 형기는 그러는 딸을 태연히 다시 앉히며 근엄한 어조로 말했다.

《이 아버지의 말을 마저 들어라. 몇시간전에 우리 병원에 한 인민군군관이 한쪽눈이 실명된채로 실려왔단다. 환자의 상태는 치명적이다.

난 처음에 실명된 눈을 살릴수 없겠구나 하고 손

맥을 놓았었다. 헌데 다시 진찰해보니 가느다랗게나마 신경이 살아있더구나. 그 군관의 눈을 살리자면 실로 큰 대가를 치르어야 한다는것을 너도 안파의사니만치 모르지 않으리라 본다. 그런데 은경아, 그 군관은 아직 장가도 안 간 총각대대장이다. 사람의 몸이 천냥금새면 눈이 팔백냥이라는건 너도 잘 알지. 그런데 너무도 젊고 전도가 양양한 군관이 순간에 팔백냥을 잃는다는건 정말 가슴아픈 일이다. 처음엔 환자도 실망했던 모양이다. 그러다 눈을 살릴 가망이 있다고 하자 벌떡 자리를 차고 일어나 내 손을 덥석 잡고 제발 군복을 벗지 않게만 해달라고... 휴— 은경아, 정말이다. 생각을 많이 하고 결심했다. 내가 이제 살면 얼마나 더 살겠냐. 이젠 손에서 수술칼을 놓을 때가 되었으니... 더 원이 없다.》

은경은 너무도 놀라운 사실이어서 얼어붙은듯 앓아만 있었다. 지금껏 무슨 급한 일로 아버지의 긴급호출을 받았는지 제 나름의 생각은 많이 굴러봤지만 이런 엄청난 일이 자기를 기다릴줄은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한 그였던것이다.

《아버지!...》

은경은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를 불렀다.

《은경아, 너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안파의사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하리라 본다.》

불타는듯 한 아버지의 눈동자에서 뿜어져나오는 강렬한 기대감이 은경의 온몸을 파갑게 지저렀다. 하지만 그 열기도 은경의 마음을 덥혀줄수가 없었다. 은경은 피가 나오도록 입술을 짓씹으며 머리를 흔들었다.

《안돼요. 난 사정이 어떻든 아버지의 눈에 수술칼을 댈수가 없어요.》

은경은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쳐 몸까지 부르르 떨었다. 숨이 꺾 막혀왔다. 그러는 그에게 아버지가 다가와 다정히 손을 잡아주었던만 은경은 슬며시 손을 뺐었다.

《은경아, 진정해라. 시간이 없다. 환자의 눈은 40시간이내로 이식수술을 하지 않으면...》

은경의 두눈으로 대줄기같은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그는 야속함과 원망감으로 그득찬 차거운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며 반발하듯이 말했다.

《아버지! 다신 그런 요구를 말아요. 그래 아버진 이 딸에게 너무도 가혹하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어머니가 아시면... 아버지 너무해요. 흠, 흠.》

은경은 두손으로 얼굴을 싸쥐고 흐느꼈다. 그러면서 속으로 부르짖었다.

(아버지! 아무리 환자의 눈이 귀중하기로서니 의사의 눈까지 희생하면서 고쳐주어야 한다는 법은 없지 않아요? 내 심장이 돌심장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아버지의 눈에 감히 수술칼을 댈수 있겠어요. 아버지! 제발 빌어요. 그러니 다신 나에게 그런 강요를 말아주세요.)

아버지는 무겁게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으로 다가가 이미 어두워진 밖을 얼빠진 사람처럼 내다보고있었다.

얼마나 울었을까... 은경은 애써 눈물을 거두었다.

《은경아! 날도 어두웠는데 어서 집으로 돌아가거라. 어머니에겐 말하지 말아라. 그러지 않아도 심장이 약한 어머니데... 난 환자때문에 집에 들어갈것 같지 못하구나.》

아버지는 이 말을 남기고 조용히 방을 나가버렸다.

### 3

은경은 천근만근으로 무거워진 걸음으로 어머니가 계시는 집에 들어섰다. 어머니는 난데없이 불쑥 나타난 딸애를 대하자 반가움에 겨워 어쩔줄을 몰라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나? 온다는 기별도 없이...》

《어머니가 보고싶어 왔지요 뭐.》

은경은 애써 웃음을 떠올리며 어머니와 마주섰다.

《어서 들어가자. 예그, 손이 쫘쫘 얼었구나. 무슨 사정이 있어 이 추운 날 길을 떠났느냐?》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방안에 들어선 은경은 후더운 눈길로 방안을 둘러보았다. 소박하게 꾸러진 두칸짜리 방의 가장집물은 달라진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는 먼저 창문결에 놓여있는 천연색텔레비존에 눈길을 박았다. 그 텔레비존은 은경이 열세살나던 해 위대한 장군님께서 아버지에게 보내주신 사랑의 선물이다. 세월이 많이도 흘렀지만 안파의사의 가정인 은경의 집에 제일 값진것이 있다면 바로 이 텔레비존이다. 실로 대를 두고 전해가야 할 가보중의 가보인것이다. 불시로 은경에게는 아득히 흘러간 그날의 일이 눈물겹게 떠올랐다.

...지금으로부터 34년전 설날을 하루 앞둔 늦은 저녁, 안파의사 박형기의 집으로 도당의 책임일군이 기별도 없이 불쑥 찾아왔다. 가족들모두가 영문을 몰라 덤덤해있을 때 도당일군이 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찾아온 사연을 이야기했다.

《과장동무! 기뻐하십시오. 위대한 장군님께서 동무에 대해 말씀이 계셨습니다.》

《장군님께서요?!》

아버지는 너무도 꿈만 같은 사실이었어서 몇번이고 두눈을 습벽이며 도당일군을 바라보았다.

《그렇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동무가 화상으로 두눈이 실명된 한 전공의 눈을 살려내기 위해 자신뿐 아니라 가족들의 각막을 떼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정말 애국자가정이라고 높이 치하하시며 태일이면 설날인데 가족들이 모여앉아 어버이수령님의 신년사를 청취할수 있도록 이 천원색텔레비존을 보내주자고 뜨겁게 말씀하시었습니다.》

도당일군은 갈린 목소리로 말했다.

(아, 장군님! 그게 무슨 큰일이라고... 장군님!...)

방안은 걱정의 바다로 화했다. 온 가족이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이 고마와 랑껏 눈물을 쏟았다.

(아, 세상에 이런 일도 있단 말인가. 안과의사의 본분을 지킨 그것이 무슨 큰일이라고... 그저 속보판에나 날 그런 소행을 어떻게 장군님께서 아시고 이런 사랑을 베푸신단 말인가!... 장군님! 고맙습니다!)

그 다음날인 설날아침, 가족들과 이웃들이 방안이 터져나가라 선물텔레비존앞에 모여앉아 어버이수령님의 신년사를 청취하면서 걱정의 눈물을 흘렸다...

은경은 짧은 상념에서 깨어나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텔레비존을 어루쓸었다. 근 반세기나 안과의사로 일해오는 아버지의 수고가 가슴속으로 후텁게 미쳐왔다. 영주시사람들은 이 집을 두고 입을 모아 800냥짜리 집이라고 부른다. 그것은 안과의사로 한생을 살아오는 아버지에 대한 폐찬의 부름이기도 하다. 정말이지 사람들의 눈치로에 사심없이 한생을 초불처럼 깡그리 태워오신 아버지이다. 그런 아버지였기에 한눈이 실명된 이튿날에 모르는 한 인민군군관을 위해 자신의 눈까지 서슴없이 바치려 하고있다. 하지만...

은경은 머리를 저었다.

(아니, 그럴수가 없어. 어떻게 아버지의 눈에 내손으로 수술칼을 델수가 있단 말인가. 정말 아버지는 너무 가혹한분이야.)

아버지에 대한 야속함이 온몸을 옥죄었다. 그는 아버지가 오늘을 위해 자기를 안과의사로 키우지 않았을가 하는 어망쳐망한 생각까지 해보았다. 그러니 가슴이 더 쓰리고 아파났다.

한동안 얼마간 사람마냥 서있는 딸에게 어머니가

근심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은경아, 네 안색이 좋지 않구나. 무슨 일이 있었니?》

《아니예요. 버스에서 떨어트니 그러겠지요.》

은경은 애써 어머니를 안심시키며 옷을 벗었다.

《어서 저녁을 먹어라.》

어머니는 얼른 부엌으로 내려가 저녁밥을 챙겨가지고 들어왔다.

은경은 몇술 뜨는등마는등하고 일찍 자리에 누웠다.

잠자리에 누웠어도 이리궁싯 저리궁싯 번거로운 생각이 그의 온몸을 사슬처럼 조이고들었다. 그러다 깜빡 잠이 들었는데 은경은 꿈속에서 수술장으로 들어가시는 아버지를 보았다. 분명 아버지는 위생복이 아니라 환자복을 입고있었다. 은경은 두손으로 아버지를 막아나서며 안된다고 막 소리치던 참에 흠칫 눈을 떴다. 깨어나보니 번거로운 꿈이었다. 온몸에 식은땀이 쭉 내뿜었다.

은경은 그제서야 자기가 이렇게 잠자리에 누워있는게 아니라는것을 깨달았다. 그의 눈앞에는 백포를 쓰고 수술장에 누운 아버지의 모습이 자꾸만 얼른거려 진정할수가 없었다.

(혹시 아버지가 이밤에 자기의 결심을 단행할수도 있다. 그러니 어서 병원으로 나가자.)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밤은 퍼그나 지났다. 어머니는 잠이 들었는지 기척이 없다. 그는 잠든 어머니를 깨우려하다가 마음을 고쳐먹었다. 이밤에 어디 가려는가고 묻는 어머니의 물음에 대답할 적당한 구실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래서 어머니가 깨어나지 않게 살금살금 옷을 입고 집을 빠져나왔다.

밖은 유난히도 밝았다. 밤날씨는 싸늘했지만쟁반같은 보름달이 환히 비쳐대고있어 한결 푸근한감이 들었다. 은경은 등굴에 땀이 돈게 걸음을 재우쳐 병원에 도착했다.

자정이 훨씬 지난 때이라 병원의 창가마다에 불이 꺼져있었다. 다만 2층 끝방에서만 불빛이 쏟아져내려 병원마당을 환히 비쳐대고있을뿐이었다. 혹시 저 방이 수술장은 아닌지?...

은경은 총총걸음으로 불이 켜진 방으로 찾아갔다. 다행히도 그 방은 병원초급당비서의 방이었다.

《호-》

안도의 숨이 나왔다. 방문이 빠끔히 열려져있어 안에서 들려오는 말소리를 어렵지 않게 들을수 있었다.

뜨직뜨직 석유탄의 목소리의 입자는 아버지였다.



은경은 쿵쿵 뛰는 심장에 손을 얹고 두사람이 나누는 대화를 귀에 담았다.

《…비서동지! 정말 잠이 오지 않아 찾아왔습니다.》

《나도 과장선생의 제의를 받고 너무 속이 상해 퇴근을 못했습니다. 과장선생은 당조직을 찾아와 하소연했지만 내라고 목석이 아닌 이상 어떻게 승낙해줄수가 있습니까? 이진 당조직에서 승인하고 말고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 이 사실을 아주머니가 알고있습니까?》

《모릅니다.》

《그것 보십시오. 아주머니가 알게 되면 펄쩍 펄쩍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딸은 압니다. 나도 깊이 생각하고 결심했습니다. 사실 도병원에서 안과의사로 일하는 딸에게 수술을 맡기려고 불렀습니다만 휴-》

아버지는 길게 한숨을 내그었다.

《그때 딸이 웅했습니다?》

《…》

은경은 두사람의 대화에서 자기 소리가 나오자 아예 숨소리마저 죽이고 귀를 강구었다.

《아닙니다. 딸도 이 아버지의 청을 거절했습니다. 휴-》

《그렇습니다. 사정이 이러할진대 내라고 어떻게 승인한단 말입니까. 과장선생은 딸에게 너무 가혹한 요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제 아버지의 눈에 수술칼을 댈수가 있겠습니까?》

당비서는 어성을 높였다. 그 소리에 은경은 다소나마 가늘게 숨이 나갔다.

《비서동지! 비서동지도 아시다싶이 난 이 세상 모든 의사들이 부럽도록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을 누구보다 많이 받아온 의사가 아닙니까.》

무겁게 들려오는 아버지의 숨소리와 함께 당비서의 열기띤 목소리가 다시금 들려왔다.

《웁습니다. 선생은 누구보다도 어버이수령님의 각별한 믿음과 사랑을 받아오셨지요. 지금도 저의 귀전에는 선생이 당 제6차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토론했을 때 어버이수령님께서 하셨다는 교시내용이 들려오는것만 같습니다. 그때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워 환자치료에서 높은 성과를 이룩하겠다는 선생의 토론을 들어주시고 맨 선참 박수를 쳐주시며 숨은 영웅인 동무가 도리어 숨은 영웅들을 따라배우겠다니 동무야말로 숨은 영웅의 전형이며 의사들모두가 따라배워야 할 참된 애국자입니다, 우리 다시한번 박수쳐주시다 하시며…》

당비서는 축축히 젖은 목소리로 말끝을 채 잊지 못했다. 두사람이 터놓는 뜨겁고도 열렬한 진정의 목소리가 은경의 가슴으로 쇠물처럼 흘러들었다.

이윽하여 아버지의 갈린 목소리가 다시금 귀전을 때렸다.

《비서동지! 정말이지 난 하루를 백날, 천날맞잡이로 살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래도 어버이수령님의 믿음과 사랑에 보답하지 못하고 죽을것만 같아… 비서동지! 그러니 제발 허락해주시시오. 지금 환자의 상태는 한시가 급합니다. 비서동지도 아시다싶이 그는 한생을 혁명의 군복을 입을 결심을 한 우리 당이 제일로 아끼는 군인입니다. 그런 그가 한쪽눈이 실명되어 군복을 벗게 된다면… 그리고 그는 총각군관입니다. 고향에는 실농군처녀를 며느리로 점찍은 그의 부모님들이 아들 자랑에 한껏 싸여 풍년벌을 가꾸고있습니다. 올해에도 그들은 최고수확년도를 돌파하고 땃땃하게 며느리를 맞아들이겠다고 온 한해를 벌에서 살면서 일해왔습니다. 그렇듯 순박하고 근면한 사람들앞에 어떻게 한눈이 실명된 아들을 내세울수가 있습니까. 안됩니다. 난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군관의 눈을 살려내겠습니다.》

아버지는 바위처럼 굳어진 자신의 결심을 사무실이 찡찡 울리게 표명했다. 당비서도 더 반문을 못하고 침묵을 지키고있다.

한껏 흥분된 두사람의 숨소리만이 은경의 가슴에 파고들뿐이다. 이제는 당비서도 아버지의 결심을 생나무쥘듯 하지 못하리라는것이 불보듯 명백한 사실로 되었다. 지금껏 은경의 가슴속에 맺혀졌던 어망쳐망한 사실, 그리고 가슴을 아릿하게 허비던 아버지에 대한 야속함과 원망감이 눈석이처럼 녹아내렸다.

《아버지!》

그는 잠시나마 아버지의 진정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은 자신을 타매하며 혈육의 정만이 아닌 진정 인간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어떤것임을 보여준 스승에 대한 존경심을 담아 입속말로 아버지를 불러보았다.

은경은 자신도 모르게 문을 열고 사무실로 들어섰다.

아닌 밤중에 나타난 은경을 바라보며 두사람은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두사람은 어렵지 않게 은경의 눈가에 출렁이는 격동으로 충만된 눈빛을 띄여보았다. 형기는 천천히 딸에게로 다가갔다.

《은경아!》

은경은 스스로없이 아버지의 품에 안겨들었다.

《아버지! 이 불효한 딸을 꾸짖어주세요. 흑흑.》

아버지는 은경의 눈가에서 쏟아져나오는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애야! 난 절대로 너를 탓하지 않는다. 너를 믿었거던. 그리고 이 아버지 후회하지 않는다. 난 이로써 나의 의사생활을 총화지으려다. 그래 자신있겠지?》

《!...》

은경은 눈물을 머금은채 고개를 끄덕였다.

당비서가 다가와 한손씩 두사람의 손을 잡고 감동이 첼첼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다.

《은경동문 정말 훌륭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소.》

《비서동지!》

은경이 눈물을 흘리며 무한한 긍지감에 싸여 당비서를 바라보았다.

《그래 수술은 언제 하시렵니까?》

당비서가 박형기에게 물었다.

《래일 밤에 하려고 합니다.》

《래일 밤이라... 헌데 아주머니에겐?...》

당비서가 잔근심이 많은 어머니처럼 걱정하며 물었다.

《로친도 리해는 할겁니다.》

당비서는 무겁게 머리를 끄덕이는것으로 박형기과장의 의견에 동의했다.

《과장선생! 제 당비서로가 아니라 인간적으로 부탁하는건데 래일 하루라도 집에 들어가 휴식을 하십시오. 수술이야 밤에 하지 않습니다.》

《그러겠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몸도 피로하고 머리도 무거운데 비서동지의 요구를 따르겠습니다.》

박형기과장도 꽤히 승낙했다. 이제는 삼태성도 기운 깊은 밤이다. 아버지와 딸은 조용히 당비서의 방을 나섰다.

#### 4

박형기과장이 낮시간에 집에 있어보기는 극히 드문 일이었다. 그래서선지 안해인 한복실은 실로 놀라와하면서 눈이 커졌다.

《아니, 늘쌍 병원에 나가살다싶이 하던 당신이 오늘은 웬일이슈?》

박형기는 히죽이 웃어보이며 말했다.

《그 말엔 할 소리가 없구려. 내 어제 저녁 당비서동지에게서 가정일에 너무 무관심하다고 비판을 받았소. 그래 오늘 밤에 중요한 수술도 있고해서

대휴를 좀 받았지.》

《당비서어른이 옳게 비판했구려. 그러니 오늘만이라도 꼭 쉬시우.》

한복실은 주름진 눈가에 고운 웃음을 지어보이며 말했다. 나이는 들었어도 눈매만은 처녀시절 못사람들의 눈길을 모으던 그때처럼 밝고 상냥스럽다. 눈언저리에 실주름이 그득하나 고운 마음이 엿보이는 눈동자는 머루알처럼 반짝이지는 못해도 검음을 잃지 않고 맑다.

《이보 로친, 오늘은 은경이도 왔는데 그랴 집에 있겠소. 점심에 당신과 은경이를 영주각에 초청하겠으니 그리 알고 차비를 하오.》

형기는 시뚱한 표정으로 안해와 딸에게 말했다.

《아니, 오늘은 어찌된 일이지우?》

《왜 놀라면서 그러오? 듣자니 영주각 국수맛이 세상별미라는데.》

안해는 해가 서편에서 뜬것만큼이나 놀라와하면서 남편과 은경이를 엿갈아보고있다.

《아이, 좋아.》

은경은 손뼉까지 치면서 어린애처럼 기뻐했다. 안해도 표현은 안했어도 속으로는 은경이만큼이나 좋아하는 모양이다. 눈가에 무한한 행복감을 한껏 싣고 정찬 눈길로 남편을 바라보는것이다.

그들을 바라보는 형기의 얼굴에도 일순 자책과 후회의 감정이 짙게 어려올랐다.

(여보, 미안하오. 내 당신과 함께 수십년을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식당에라고 초청해보았는데 당신은 그럴듯 고마움에 넘친 눈길로 날 바라보는구려. ... 여보, 늦게나마 당신에게 사죄하오. 그러니 오늘은 모든걸 잊고 당신이 좋아하는 국수맛도 보고 가족사진도 찍읍시다.)

얼마후 세식구는 영주각으로 향했다. 박형기는 안해와 나란히 걸었다. 한걸음 뒤떨어져 은경이 따라걸었다. 형기는 양복차림에 넥타이까지 댔고 한복실은 연보라색에 금줄로 꽃송이를 수놓은 비로도천으로 지은 치마저고리를 입었다. 이런 명절옷차림도 다 집안의 가장인 아버지의 의향을 따른것이었다.

박형기과장은 실로 오래간만에 안해와 딸을 거느리고 시내를 걸어본다. 마음은 무뎠 들었다. 지나치는 사람들마다 반가움의 인사를 보낸다.

일일이 답례를 하며 한동안 말없이 걷던 형기는 고개를 숙이고 곁에서 걷는 안해의 작달막한 모습을 내려다보았다. 안해는 고운 눈매로 웃음지어보이며 만족감을 표시하고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느라니 새각시, 새서방시절 안해와 함께 산보를 하던 때가 흐뭇하게 생각키워진다. 안해의 눈동자는 흑

진주를 박은것처럼 까맣다. 그 눈동자에 살짝 웃음을 담으면 정말이지 눈에 넣어도 씨원치 않게 아름다웠다. 사실이 그러하지만 그는 총각시절 안파의사여자인지 안해의 그 영채돌고 사려깊은 눈매에 반해 사랑을 고백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세월의 년륜마냥 눈가에 주름살이 그득하지만 그때의 그 아름다움은 지워지지 않았다. 아마 안해의 마음은 왼쪽을 가는 아이들만큼이나 들떠있을것이다. 어찌 그렇지 않겠는가. 불시에 안해에 대한 미안한 감정이 조수처럼 밀려왔다. 그때 속으로 안해와 이런 정서적인 걸음을 몇번이나 걸어보았는가 속구구해보았다. 했건만 열손가락중 다섯손가락도 다 꼽지 못했으니... 남들이 폐사롭게 가족들과 함께 식당에도 가고 들놀이를 갈 때도 고정하기 이룰데 없는 그는 늘쌍 병원에서 환자치료에만 전념했으니 말이다. 그에게는 그것이 락이고 기쁨이었다. 하지만 안해는 한번도 땀한적이 없이 신발바닥이 닳도록 남편의 밥곽을 들고 병원으로 다녔다.

안해에 대한 고마움을 떠올리느라니 불쑥 잊을수 없는 한가지 일이 려상되였다.

...지금으로부터 5년전 박형기과장은 탄광으로 이동봉사치료를 나가게 되였다. 약간 휘여질사 한 등에 색날은 배낭을 메고 집을 나서는 남편에게 안해는 조용하게 물었다.

《여보, 언제 돌아오시는가요?》

《한달은 실히 걸려야 할것 같소.》

《은경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의 70돐 생일날엔 꼭 오겠다고 말이에요.》

《바쁜 때 생일은 무슨... 후에 기회가 있을 때 가족끼리 한번 모여앉읍시다그러.》

박형기과장은 아주 무심하게 대하며 그냥 집을 떠나갔다.

본시 환자치료에 몰두하면 모든것을 잊는 그였으니 탄광에 간 후 생일날에도 그는 여느때처럼 환자치료에 드바쁜 시간을 보냈다. 며칠전에 눈수술을 받은 탄부가 봉대를 푸는 날이어서 그는 저녁밥이나 먹고는 병원으로 다시 나오려고 쟁걸음으로 탄광합숙식당으로 갔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식당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기다리고있었다.

어리둥절해있는 그를 병원초급당비서가 맞아주더니 식당에 차려놓은 70돐상앞으로 이끌었다.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선생이 이동봉사치료에서 성과를 내고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는 하면서도 오늘이 선생의 생신날인줄은 모르고있었으니...》

박형기는 그제야 소박하게 차려놓은 생일상옆에 송구스럽게 서있는 안해와 딸을 보았다. 눈곱이 저

려왔다. 정작 생일상을 마련해가지고 탄광으로 찾아온 안해와 딸을 대하니 가슴이 정한게 어떻게 고마움을 표시해야 할지 입이 떡 굳어져 열려지지 않았다. 사람들이 보는 앞이라 안해와 딸에게 고맙다는 인사말 한마디도 떠올리지 못했다.

형기는 당비서의 손을 잡고 말했다.

《비서동지! 고맙습니다. 모두가 바쁜데 이렇게 걸음을 하게 했으니...》

《선생도... 인사는 아주머니와 딸에게 해야 합니다. 자, 어서 상에 앉으십시오.》

박형기는 당비서의 손에 이끌려 안해와 함께 상에 앉아 사진 한장을 남겼다. 그때 그는 안해의 손을 꼭 잡았다놓았다하며 남모르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그날 밤 박형기는 가족들과 하루밤을 보내라는 만사람들의 청을 가볍게 뿌리치고 안해의 바램을 받으며 탄광병원으로 나갔다. 그때도 안해는 웃으면서 남편을 바래워주었다. 남편만 바래준것이 아니다. 안파의사인 딸에도 시간이 있을 때 탄부들을 돕고 아버지를 도와야 한다며 그의 등을 떠밀었다. 그리고는 혼자서 외롭게 밤을 보냈다. 그날 남편의 생일을 차려주려고 수백리밖에서 찾아온 안해를 그것도 익숙되지 않은 합숙방에 홀로 두고 병원으로 나가는 박형기의 가슴엔 안해에 대한 죄스러움보다도 훌륭한 안해를 둔 만족감과 안해에 대한 무한한 고마움이 짝 차있었다....

짧은 상념에서 깨어난 박형기는 그때처럼 안해의 작은 손을 꼭 잡았다 폼다하며 무언의 인사를 보냈다. 정말이지 성실하기 이를데없이 남편을 받들어온 안해이다. 안해의 성실성을 차곡차곡 쌓아놓았고 하면 그 높이를 쉬이 잴수 없을것이다.

박형기는 마음속으로 여생에 젊어서 못다 준 애정까지 합쳐 안해를 아껴줄 결심을 다지고 또 다졌다.

영주각의 식사차림표앞에서 안해와 형기사이 가버운 실랭이가 있었다.

《여보, 랭면을 먹읍시다.》

《날씨도 추운데 더운 료리를 먹는게 어때요? 동태국밥도 있고 소고기탕도 있는데...》

《그래도 영주각랭면이라면 전국에 소문이 나지 않았소.》

《에그, 소문난 잔치 먹을게 없다지 않소? 날씨도 쌀쌀한데 뜨끈히 소고기탕을 먹읍시다.》

《모를 소리, 사람들이 그러는데 영주각국수맛은 겨울에 먹어야 별맛이라고 하더구만.》

참으로 위하는 마음이 각별한 다툼질이었다. 은경은 그러는 부모님들을 후더운 눈길로 바라보았

다. 아버지가 청한 땀은 어머니가 특별히 좋아하는 음식이었고 어머니가 청한 소고기탕은 아버지에게 별식이었으니 말이다. 서로가 양보할 자세가 아니다. 이러다간 어느 하가에 점심을 먹을지 모를것만 같다. 시비를 가릴 사람은 은경이밖에 없었다. 은경은 웃음을 머금고 둘사이에 나섰다.

《그럼 내 의견대로 하는게 어때요?》

《?...》

《어머니, 오늘은 아버지가 우리를 청했으니 우선 손님이나 갈아요. 그러니 아버지의 의견을 따르는것이 좋을것 같아요.》

《그게 합당하리라고 보오.》

딸이 아버지의 의견에 합세하자 한복실은 더 고집을 세우지 못했다.

박형기는 으쓱해져 배를 내밀고 고기쟁반국수 네그릇을 땀다. 자기와 딸은 한그릇씩이고 안해에게는 두그릇이다. 안해는 국수라면 열기도 좋고 스무끼라도 좋아한다. 세사람은 한상에 오בות 마주앉아 국수를 먹기 시작하였다.

원래 박형기도 국수를 좋아하는 축이었다. 하지만 길진 국수오리를 입에 물기는 했어도 목이 짹메여와 꿀꺽꿀꺽 넘기지를 못했다. 은경이도 저가락을 처음으로 집어본 사람처럼 서툴게 국수오리를 말아올렸다. 아버지와 딸, 둘의 몸은 식당에 있어도 마음은 판곳에 가있었다. 두사람은 애써 웃음도 지어보이고 유모아도 떠올렸다, 제발 안해와 어머니가 기쁘고 즐겁게 이 순간을 보내주기를 간절히 바라며...

안해는 그러는 남편과 딸애의 심정을 고맙게 받아들이었는지 온화한 미소를 떠올리고 자꾸만 고기점을 남편과 딸애의 그릇에 덧놓아주고있었다.

시간이 퍼그나 흘렀지만 세사람은 종시 쟁반그릇을 다 비우지 못하고 식당을 나와버렸다.(후날 안해는 세상에 태어나 국수를 먹던중 그때처럼 아무맛을 느껴보지 못하기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식당에서 나오면서 박형기의 요구대로 그들은 가족사진을 찍었다. 박형기와 한복실이 손을 잡고 나란히 앉았고 은경은 그뒤에 서서 부모의 어깨에 다정히 손을 얹고 사진을 남겼다.

## 5

저녁상을 물리고난 박형기는 딸과 함께 서둘러 집대문을 나섰다.

한복실의 바램을 받는 두사람의 마음은 빠근해났다. 하지만 둘은 약속이나 한듯이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한시라도 빨리 그의 시야에서 벗어나야 한

다는 생각들뿐이었다.

초저녁부터 부실부실 날리던 눈꽃이 제법 탐스러운 눈송이가 되어 뿌잇한 밤하늘을 짙 덮고있다. 며칠전에 약간 눈꽃이 날린 후로는 이렇게 많은 눈이 내리기는 처음이다. 얼마쯤 왔을가, 두사람의 발걸음은 자연히 떠졌다. 한동안 말없이 걷던 두사람은 병원으로 질러가는 갈림길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질러가는 길로 들어서면 두사람의 걸음으로 10분이면 능히 병원에 당도할수가 있다. 하지만 도로를 따라 곧추가면 길은 좋으나 시간은 30분이나 걸린다. 박형기는 그믐밤이 아니면 대체로 질러가는 길로 병원으로 갔었다.

《은경아, 시간도 있는데 우리 도로를 따라 걷는게 어때냐?》

《좋아요.》

은경이도 기다린듯이 체격 응수했다.

배꽃같은 눈송이들이 길가의 가로수들과 가로등에 그리고 불밝은 아파트의 지붕위에 소복소복 내려앉았다. 어디 그뿐인가. 눈송이들은 두사람의 몸을 소복단장해줄 심산인듯 겨끔내기로 나풀나풀 날아와앉았다. 아직은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기지 않아서 숫눈길은 아니였지만 두사람은 자기들의 발자국을 선명하게 찍으며 나란히 걸었다.

박형기가 슬며시 딸애의 손을 잡았다. 은경이도 애뜻한 정을 느끼며 아버지에게 손을 맡겼다. 가슴 벅찬 사변을 앞에 두고있는 사람들이여선지 서로의 열기가 뜨겁게 느껴졌다. 한동안 말없이 걷던 박형기는 딸에게 말했다.

《은경아, 이렇게 네 손을 잡고 걸느라니 옛적일이 생각나는구나.》

은경은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떠올렸을가 하는 의문스러운 눈길로 키가 구척인 아버지를 올려다보았다.

《네가 열살이 되던 해였던가?... 그렇지, 그때가 설날을 며칠 앞둔 때였을게다. 아버지가 랑손에 어머니와 너의 손을 잡고 이 도로를 따라 병원으로 걸었드랬지, 그때도 이렇게 많은 눈이 내렸고...》

박형기는 걸음을 멈추고 은경을 바라보았다.

《아, 생각나요. 그때 아버진 눈송이들이 내려앉아 녹으면 머리칼이 젖는다며 내 머리에 털모자를 씌워주셨지요. 야, 그날엔 지금보다 눈이 더 많이 내렸어요. 그때 어머니 아버지 평양견학가셨다가 사오신 빨간 목도리를 목에 감았드랬지요.》

《그래 그래, 어머니가 네 목에 목도리를 둘러주려는걸 아버지가 얼른 털모자를 벗어 너에게 씌워주었지.》

《웁아요. 어머니 도리어 아버지의 머리가 젖는



다고 걱정을 하시고… 난 눈이 가리도록 푹 썩워진 아버지의 털모자를 쓰고 좋아라 웃고…》

그들은 아득히 흘러가버린 옛적일을 생동한 화폭처럼 편쥘편쥘 떠올리며 다시 걸었다. 이제는 삼십년도 훨씬 지난 일이다. 아무리 추억의 갈피에 두렵게 이끼가 덮였어도 어떻게 그때 일을 잊을수가 있단 말인가. 그밤에도 오늘처럼 눈이 미어지게 내려서만 잊혀지지 않는것은 결코 아니다.

박형기의 눈가에는 어느덧 축축한것이 맺혀돌았다. 그날의 일들이 눈물결계 안겨와서였다.

…그때 영주시인민병원에는 뜻밖의 일로 눈에 화상을 당한 전공이 실려왔다. 빨리 손쓰지 않으면 전공의 두눈이 실명될수 있는 실로 긴박한 정황이 조성되었다. 안과의사였던 박형기는 이 일을 두고 안타깝게 모태기고있었다. 환자의 눈을 살리자면 한두개도 아닌 여러개의 각막이 필요했던것이다. 속에 재가 앓도록 마음을 썼지만 방도가 나지 않았다.

그러던 그는 결단코 자기의 각막을 떼내어 환자의 눈에 이식해줄 결심을 내렸다.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환자의 눈을 살려낼수가 없었다. 각막이 결정적으로 모자랐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안타까운 심정에 싸여 줄담배를 태웠다. 모자라는 각막을 어디서 보충해야 할지 방도가 서지 않았다. 그때 남편의 애끓는 심정을 엿본 안해가 말했다.

《여보, 내 각막을 떼주세요. 각막이 한겹 없다고 눈을 못 보는것도 아니지 않아요. 지금 온 나라 도처에서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데 이런 때 당신을 돕지 않으면 언제 돕겠어요. 나야 안과의사의 안해가 아닌가요. 그러니 어서 결심하세요. 그래도 모자라면 은경이것도…》

꿈에도 생각지 않았던 일을 당하고보니 눈물이 나오도록 안해가 고마왔다. 이때 한쪽에서 밥상을 펴놓고 숙제를 하던 열살잡이 은경이가 뽀르르 아버지에게로 달려와 품에 안기며 말했다.

《아버지, 어제 우리 선생님이 그러는데 눈을 다친 그 전공아저씨 자기의 한몸을 내대어 나라의 귀중한 재산을 구원했대요. 그런 아저씨가 눈을 못 보면 어떻게 하나요? 나도 안과의사의 딸이에요. 그러니 나도 그 아저씨를 돕겠어요.》

박형기는 그만에야 참고참아오던 눈물을 왈칵 쏟고말았다. 아직 세상물정을 깨닫자면 장독을 몇개나 더 축내야 하는 철부지라고 생각했던 딸까지도 이렇듯 열렬히 호소하는데 목석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눈물을 아니 흘릴수 있단 말인가. 그는 딸애를 와락 품에 안았다.

《은경아, 여적 아버지 널 철부지로 알고있었구나. 정말 용타, 용해. 그래 그래, 넌 갈데없는 안과의사의 딸이다.》

대추알같은 눈물방울이 보통보통한 딸애의 두볼에 락수처럼 떨어졌다. 그가 흘리는 눈물은 누구든 쉽게 쏟을수 있는 그런 눈물이 아니었다. 피보다 더 진하고 쇠물보다 더 뜨거운 인간사랑의 기사들만이 흘릴수 있는 값비싼 눈물이었다.

그날 저녁, 박형기는 량손에 안해와 딸애의 손을 잡고 부풀어오르는 격정에 싸여 병원으로 걸었다. 그날의 눈내리는 밤길에 맛보았던 행복의 순간들은 얼마나 환희롭고 궁지로왔던가. …

박형기는 생각에서 깨어났다. 이제 5분만 걸으면 병원에 도착한다. 그가 단행하려는 일은 사사로운 감정에 포로된 연약한 심장을 가진 사람들은 도무지 성사시킬수 없는 보다 심중한 일이 아닐수가 없다. 박형기는 집에 두고온 안해보다 딸이 더 근심스러웠다. 이식수술의 성공여부는 딸에게 결정적으로 달려있다. 은경이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안과부문에서 20여년간까지 일해온 유능한 의사이다. 그러니 한결 마음이 놓인다만…

박형기는 병원이 뵈히 바라보이는 곳에서 걸음을 멈추고 딸에게 말했다.

《은경아! 생각나겠지. 그때 내가 너의 각막을 떼내려 할 때 넌 백포를 벗기며 이렇게 사정했지. 〈아버지! 체발 아프지 않게 떼주세요.〉 하고 말이다. 난 너의 머루알처럼 까만 겁먹은 두눈동자를 대하는 순간 지그시 눈을 감았다. 가슴이 활랑거리고 손이 떨려나 어디 수술칼을 잡을수가 있겠니. 눈물이 후둑후둑 떨어져 백포자락을 점점이 적셨드랬지… 난 그때 정말 힘들게 너의 각막을 떼냈단다. 은경아, 내가 무슨 연고로 이 말을 하는지 너도 잘 알리라 본다. 난 널 믿는다. 절대로 손이 떨려선 안된다. 너도 알고있겠지만 뭐니뭐니해도 수술의사는 담이 커야 한다. 그래야 어떠한 경우에도 실수가 없이 수술을 성공시킬수가 있다.》

그 어조는 격전전야에 선 지휘관처럼 굳었다.

《알겠어요!》

딸애의 대답은 명령받은 전사마냥 자신심에 넘쳐있다.

《재삼 강조한다만 수술칼을 쥔 손이 떨려서는 안된다.》

《아버지! 명심했어요.》

《자, 어서 가자.》

박형기는 다소 마음이 놓여 딸의 손을 잡고 보폭도 크게 병원정문으로 들어섰다.

병원홀에서 쏟아져나오는 불빛으로 마당은 대낮



처럼 환했다.

그들이 현관문앞에서 옷에 묻은 눈을 털려고 할 때 두사람앞으로 누군가가 다가와 우뚝 멈춰섰다. 그들은 불에라도 덴 사람처럼 화를 놀라 그 자리에 굳어졌다.

《당신이?!》

《어머니?!》

그는 분명 방금전에 대문밖까지 따라나와 자기들을 바래워준 안해이며 어머니였다. 박형기도 은경이도 꼭 꿈을 꾸는것만 같아 몇번이고 눈을 감았다 떴다. 분명 안해가 옳고 어머니가 옳았다.

《은경아, 놀랄게 있니? 이 어머니에게도 눈이 있고 귀가 있다. 예로부터 늙은이의 예감은 십중팔구 들어가 맞는다고 했다. 아무리 나이가 먹었어도 눈치는 둔하지 않다.》

어머니는 은경을 가볍게 나무라더니 얼어 굳어진 듯 서있는 남편에게로 몸을 돌렸다.

《여보 령감, 솔직히 말씀해주우다. 이 일이 정말로 내가 빠질 일이 아니라면 이제라도 돌아가겠으니 말이우다. 그래 이 로친과 근 반세기를 살아오면서 뭘 숨길게 있어 그러는가 말이우.》

박형기는 안해의 노여움에 찬 물음에 입이 딱 굳어져 한마디도 내뱉지 못하고 망두석처럼 서있기만 하였다.

은경이도 실로 따분한 처지라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망설이다가 간신히 입을 열었다.

《어머니! 사실은...》

어머니는 팔애를 밀막으며 다시 말했다.

《아서라, 난 어제밤에 네가 꿈속에서 웨치던 소리를 똑똑히 들었다. 그래 속이 조마조마해서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 이보 령감, 나도 꼬장꼬장한 안과의사와 이만큼 살아오다니 반의사는 된가보오. 그래선지 당신의 거동을 보고도 뭘 생각하는지 뜬금으로 알아맞출수 있게 됐수다. 이보 령감, 생각깊게 하는 말이니 내 말을 들어주우다. 아직은 당신의 눈이 사람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눈이니 결심을 취소하시우. 당신에게서 눈치료를 받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말하지 않소, 당신의 눈은 보배눈이라고 말이우다. 그러니 제발 단념하우다.》

박형기는 장갑을 낀 두손을 앞섶에 모두고 길게 한숨을 내그을뿐 사리가 여간 밝지 않은 로친앞에서 죄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푹 수그리고있었다.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변명할 한마디 말도 떠오르지 않는다.

《은경아, 난 결코 방해나 놓으려고 지름길로 이렇게 허위허위 달려온것이 아니란다. 난 여직껏 살

아오면서 한번도 아버지의 뜻을 거절한적이 없다. 이 어머니를 위해 그러는 아버지와 너의 심정을 내 모르는바가 아니다만... 하지만 그렇듯 장한 길을 떠나면서 한마디 말도 없이 떠나니 남남사이같은게 정말 섭섭하구나.

은경아, 아버지를 대신하여 내가 수술대에 오르겠다.》

《!...》

안해의 준절한 말마디는 박형기의 가슴을 함마로 꿰뚫어치듯 세차게 울렸다. 그는 이런 뎨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고 은경에게 되물듯 애끓는 눈길로 바라보았다. 은경이도 슬며시 고개를 돌렸다.

《내 령감의 심정을 모르는바가 아니우다. 당신과 한두해를 살았다고 모르겠소. 령감을 대신할 사람은 나밖에 없으니 어서 허락해주시우. 당신이 수술칼을 쥐면 이식수술은 꼭 성공할거우다.》

안해는 남편과 딸애의 심정은 아랑곳없이 간청하다싶이 요구했다.

(아, 이럴 뎨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박형기의 속은 쇠물가마처럼 부글부글 끓었다. 그는 안해의 결심을 쉬이 꺾지 못함을 느끼고있었다. 느끼고나니 안해에게 숨겨온 사실들이 후회가 막급했다. 안해는 간절한 기대가 실린 불타는 눈동자로 남편을 바라보고있다.

《이보 로친, 당신은 끝내 날 울리는구려...》

박형기는 손수건으로 눈굽을 찍었다. 그는 고작해서 이 말밖에 더 내뱉지 못했다. 마음속엔 안해에 대한 고마움의 정이 산같이 쌓여있는 그였다.

《됐수다. 내 당신의 마음을 알고도 남음이 있수다. 이제 우리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수. 인생말년에나마 사람들에게 쓸모가 있는 일을 했다는 그 궁지면 난 만족하우다.》

박형기는 금시라도 안해를 업고 온 시내를 오가며 《이보소, 여러분네들! 이렇듯 훌륭한 로친이 바로 내 로친이요!》하고 자랑하고싶은 심정일뿐이었다.

아, 숨이 차도록 가슴이 벅차오른다.

그는 고개를 젖히고 미여지게 눈송이를 쫓는 뿌잇한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호한진 눈송이들이 화독같이 달아오른 박형기의 얼굴에 떨어져 순식간에 녹아버린다. 저 하늘의 눈이 통채로 떨어져도 불덩이가 되버린 세사람의 몸을 식혀낼것 같지 못하다. 눈은 하염없이 내리고있었다.

2014년 12월 3일 새벽 1시

박형기는 수술하기에 앞서 수술침대에 누운 안해에게로 다가가 슬며시 백포를 벗기였다. 지그시 눈을 감고 누워있던 안해가 평온하게 웃는 눈길로 박형기과장을 올려다보고있다. 박형기과장도 빙긋이 웃으며 민음이 어린 눈으로 안해의 눈을 마주보았다. 그는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충만되고 사랑으로 불타는 안해의 두눈동자를 보았던 것이다.

이식수술은 성과적으로 끝났다. 김진혁소좌는 40시간만에 광명을 되찾고 사랑으로 가득차고 사랑으로 가꿔지는 우리의 사회주의체도의 아름다운 현실을 다시금 뜨겁게, 뜨겁게 보게 되었다.

2014년 12월 8일

김진혁소좌의 면회를 왔던 군부대지휘관들이 박형기과장에게 고마움의 인사와 함께 개봉된 한통의 편지를 주고갔다. 그 편지는 김진혁의 고향에

서 온 편지였다.

호기심이 앞서 편지를 읽으려던 박형기과장은 울렁이는 가슴을 억제하며 김진혁환자의 호실을 지나쳐 안해가 입원해있는 호실로 뛰어갔다.

《이보 로친, 총각대대장의 집에서 편지가 왔소. 내 큰소리로 읽을게 들어보소.》

박형기과장은 입원실이 떠나갈듯 큰소리로 편지를 읽었다.

《…진혁아, 어제 결산총회가 있었다. 너도 소식이 궁금하겠지. 그래 어느 분조가 이겼을것 같으냐?... 로명화분조장이 아버지분조보다 2톤 600키로그램을 더 증산하여 아버지네 분조를 앞섰다. 승부차이는 크지 않다만 로명화분조장이 군적으로 제일 앞선 분조가 되었다. 아버지도 기뻐하신다. 그래 어제 저녁 명화네 집에 찾아가 정식으로 혼사를 정했다. 진혁아, 이젠 결산총회까지 끝냈으니 다음해 농사차비에 들어가기 전까지 시간이 있다. 그래서 아버지와 토론하고 네 색시감을 앞세우고 널 찾아가려고 한다. 그러니 기다려라.…”》

편지랑독이 끝나자 아직은 눈에서 봉대를 풀지 못한 안해가 제일 선침 박수를 쳤다. 박수소리는 그치지 않고 그냥 울렸다.

## 상 식

# 박 식과 등잔기름

공상적사회주의소설로 평가된 《태양의 도시》의 저자인 토마르 캄빠넬라(1568년-1639년)는 이탈리아의 승려직업을 가진 작가, 철학자였다.

그 이름의 뜻은 이탈리아어로 《종》이라는 뜻인데 여기에는 지식의 종을 올려 사람들을 깨우치는 것을 사명으로 하려는 그의 넋이 담겨져있다.

어느 한 술집에서 진탕치듯 마신 한 패거리의 불량배들이 서로 주먹질을 하며 싸움판을 벌렸다. 때마침 술집결을 지나가던 녀인들이 이 광경을 보고 말을 주고받았다.

《미개한 야만들 같으니라구.》

《저게 다 머리통이 빈때문이지. 박식한 캄빠넬라를 좀 보지, 얼마나 존경을 받나.》

마침 싸움판에 끼여들었던 한 사람이 녀인들의 말을 듣고 정신을 차렸다.

(미개한 야만? 존경받는 캄빠넬라!)

그는 다급히 옆에 쓰러져있는 사람을 흔들어깨었다.

《여보게, 존경받는 캄빠넬라가 누군가?》

《그런 사람이 있다더군.》

《그 사람이 박식하다던데 우리 찾아가서 물어보지 않겠나? 어떻게 하면 박식해져서 존경을 받는가를!》

이렇게 되어 그들은 캄빠넬라를 찾아가게 되었다. 술주정뱅이들이 들어서자 책을 읽던 캄빠넬라는 눈이 둥그래졌다.

《미안하지만 한가지 물어볼게 있어서 왔습니다.》

《무엇인지 어서 물어보게.》

《아낙네들까지 우리를 미개한 야만이라고 비웃으면서 존경을 받으려면 당신같은 사람이 돼야 한다던데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박식합니까?》

그들의 말을 들은 캄빠넬라는 한동안 호탕하게 웃더니 《그건 내가 자네들이 지금까지 진탕치듯 마신 술량 이상으로 등잔기름을 사용했기때문이라네.》 하고 말하였다.

# 인생의 숙제



## 송재환

### 1

국가건설감독성 책임심의원 지윤경은 날아갈듯한 마음을 안고 사무실로 들어섰다.

몇해째 끌여오던 학위논문집필을 끝내고 드디어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심의에 제출하였던것이다.

문을 여니 국장이 마침이라는듯 윤경에게 말을 건넸다.

《마침 오누만. 윤경동무, 출장이 제기되었소.》

은 나라에 우후죽순처럼 솟아나는 대규모발전소와 중소형발전소건설장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이 건설감독성의 강력하면서도 협조적인 감독통제를 요구하는 현 조건을 다시 강조하면서 국장은 의논조로 물었다.

《윤경동무는 두 아이의 어머니데 남아서 내부사업을 처리하는게 어떻겠소, 학위논문심의과정에 무슨 일이 제기될지도 모르는데...》

잠시 생각해보던 윤경은 국장에게 말하였다.

《국장동지! 저도 함께 가게 해주십시오, 현실에 내려가본지도 오래됐는데... 아이들은 친정어머니에게 맡기면 되고 학위논문심의는 좀 시일이 걸릴겁니다.》

《그렇소? 동무 결심이 그렇다면 좋구만. 그럼 함께 내려가보지요.》

목적지는 북방의 어랑천발전소건설장이었다.

렬차는 마천령의 험한 산밭들을 뒤로 흘러보내며 기세좋게 달리였다.

차창너머로 다가오는 산세 험하고 날카로운 북방의 산봉우리들을 바라보는 윤경은 오래간만에 부딪

치게 되는 약동하는 현실의 숨결이 금방 와닿는것 같아 마음을 진정할수 없었다.

윤경의 일행은 기차에서 내려 다시 승용차를 타고 어랑천을 따라 험한 산밭을 넘으며 백여리길을 달리였다.

10월의 단풍이 붉게 타는 어랑천 상류 팔향골에 이르니 하늘을 찌를듯이 높이 솟은 어랑천발전소언제가 거창하게 다가왔다.

하늘땅을 진감하는 중기계들의 동음과 자행식기 중기들과 언제기중기가 연방 쏟아붓는 콘크리트혼합물을 다짐하는 진동기소리가 팔향골을 짝 메우고있었다.

강바닥 종합골재장에서는 수십갈래의 콘베아를 타고 흘러오는 막돌을 깨는 대형분쇄기소리가 요란하였고 혼합장에서 언제건설장까지의 구간에는 콘크리트혼합물을 실은 자동차들이 연방 꼬리를 물고 달리고있었다. 어랑천발전소건설장은 말그대로 건설의 대교향곡이 울리는 격전장이였다.

윤경이네는 대건설의 거창한 숨결을 가슴벅차게 느끼며 언제건설장을 돌아보다가 하나의 사실에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언제의 랑쪽 좌우바위접촉부와 물의 중력을 심하게 받는 부분들을 다 돌아보고 간간히 조사해보았는데 언제에서 물이 새는 부분을 찾아볼수 없었던것이다.

국장을 비롯한 관제부문 일군들이 믿어지지 않아 다시금 세세히 언제를 돌아보았으나 역시 물은 조금도 스며어나오지 않고있었다. 믿어지지 않는 현실앞에서 윤경은 물론 모두가 놀랐다.

지금껏 돌아본중에 다소 차이는 있었으나 일부 언제들에서 물이 새는 현상들이 나타나 나라의 만년대계창조물로서의 위용에 그들을 던지고있었다. 그런데 이곳 건설장에서는 하나의 틈도 찾아볼수 없지 않는가.

엄정하기가 그지없는 반백의 국장은 여직껏 《된다》, 《안된다》라는 말마디외에는 거의 다른 말을 할줄 몰랐다. 그런데 오늘 그는 흥분한 나머지 자신을 잃고 지금까지의 습벽을 깨뜨려버렸다.

《수고했소. 시공을 아주 잘했소. 어떻게 되어 언제에 물이 한방울도 습새지 않게 되었소?》

국장은 흥분하여 젊은 부기사장의 손까지 잡아 흔들며 물었다.

윤경은 그와 함께 15년을 일해왔으나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처음 보느라였다.

사실 국장의 그 기쁨과 물음은 일행모두의 기쁨이고 알고싶은 물음이기도 하였다.

윤경은 심중한 눈빛으로 부기사장을 쳐다보며 물었다.

《지난날 언제건설을 많이 해본 경험에서 나온 것이겠지요?》

부기사장은 머리를 흔들었다.

《우리는 처음 언제건설을 해보고있습니다.》

《네?》

윤경과 일행은 다시금 놀랐다.

《처음이라구요?...》

《그렇습니다. 우리 연합기업소는 지난날 김책제철소확장공사를 위주로 하여 산업건설을 해온 기업소입니다. 그러니 언제건설에서는 소학교 1학년생과 같습니다.》

《?...》

모두의 얼굴빛이 더욱 심중해졌다.

부기사장은 조용히 외쳤다.

《연합기사장동지가 오시면 우리가 도입한 새 공법에 대하여 물어보십시오. 새 공법의 발명가입니다.》

이때 윤경은 무산광업건설연합기업소라는 이름이 무척 귀에 익은 이름으로 안겨왔다. 하지만 그것이 왜서인지는 인츰 짐작이 가지 않았다.

윤경은 새 공법의 발명가라는 연합기업소 기사장은 어떤 사람일까 하는 호기심을 안고 그 자리를 떠났다.

## 2

해가 계산봉마루를 넘어가자 인츰 어둠이 내려앉았다.

10월이라 하지만 해발 1 200여메터의 북부고산지대라 해가 떨어지자 쌀쌀한 기운이 풍기였다. 벌써 건설장의 도처에서 건설자들의 다정한 길동무라 할

수 있는 우등불이 무수히 타오르고있었다.

연합기업소 기사장은 날이 저물도록 나타나지 않았다.

지윤경은 부기사장이 가져다준 연합기사장이 새롭게 도입했다는 《역주입법에 의한 새는 물 방지 공법》의 설제도를 다시금 하나하나 따져보았다.

볼수록 착상이 기발하고 대답하였다.

윤경의 심장은 흥분으로 하여 세차게 뛴뛰었다. 어서빨리 이 독특한 새 공법을 발명한 연합기업소 기사장을 만나보고싶었다. 윤경은 흥분을 누착히며 밖으로 나왔다.

모닥불가에서 처녀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더니 뒤이어 노래소리가 울려온다.

추억은 그 무엇을 가져다주는가  
즐거운 봄날인가 비오는 가을인가  
기쁨과 슬픔이 엇갈려있어도  
추억은 아름다운 내 생의 메아리

윤경은 처녀들이 부르는 노래를 입속으로 따라부르며 걸음을 옮겼다.

지나온 그 기슭에 남긴것 없다면  
우리 어이 웃으며 돌아볼수 있으랴  
노래는 또다시 지을수 있어도  
추억은 다시 못 짓는 내 심장의 메아리

그렇다. 추억은 얼마나 소중한것인가. 바로 그 소중한고 귀한 추억을 인생에 남기기 위하여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빛나는 삶으로 장식하려 하는것이다.

생각에 잠겨 천천히 옮기여지던 윤경의 발걸음은 저도 모르게 건설지휘부쪽으로 향해졌다.

이때 누구인가 마주왔다. 그 젊은 부기사장이였다. 그는 윤경에게 말했다.

《우리 기사장동지가 물질공사장을 돌아보고 곧 온다고 합니다.》

《그래요?》

밤이 퍼그나 깊어서야 안전모를 쓰고 콩크리트혼합물이 묻은 작업복을 입은 연합기업소 기사장이 차에서 내려 서둘러 현장지휘부로 들어섰다.

모두 그를 반기여 일어섰다.

기사장은 손님들에게 랑해를 구하며 활기있게 인사말을 했다.

《늦어서 미안합니다.》

국장이 그의 손을 짹 잡았다.

《수고했습니다.》

《우리야 뭐... 많이 도와주십시오.》

인사를 나누며 다가오는 기사장을 바라보던 윤경은 그만 흠칫하니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그가 바로 대학기간 잇을수 없는 자취를 남긴 대학동창생, 정열적이고 호방한 성격의 무산사람 현창물이 아닌가.

대학을 졸업하고 15년세월 땅속에 사라졌는가싶게 아무 소식도 없었던 그.

그 현창물이 수력발전건설력사에 남을 그 새 발명을 내놓았던 말인가.

윤경의 가슴은 뜻하지 않았던 상봉에 대한 흥분과 걱정으로 세차게 들뛰기 시작하였다. 이제 그도 나를 보면 무척 놀라고 무척 반가와할것이다.

현창물은 우선우선한 웃음을 지으며 맨 나중에 지윤경의 손을 잡았다.

《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윤경은 그만 아연해졌다. 현창물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것이다.

《안녕하십니까.》

윤경은 가까스로 인사말을 꺼냈다.

다음 윤경은 그 어떤 모욕감으로 얼굴이 뜨거워나고 칼끝으로 가슴을 찌르는듯 한 아픔을 느꼈다. 자신이 어색스럽고 무색하기 그지없었다. 전혀 알아보지도 못하다니, 이럴수가 있는가?...

허나 싸늘해지던 심장은 순간이고 점차 왜서인지 이름할수 없는 뜨거운것이 서서히 물결치며 가슴에 차올랐다.

그렇지. 이 사람은 대학때부터 늘 자기가 생각하고있는 문제에만 골몰하고 주위에는 무관심했다. 그것이 그의 장점이자 결점이기도 했지만 지윤경은 그의 그런 남성적인 성미를 존중해오지 않았던가.

선생님도 그래서 그를 탐구형의 성격이라고 칭찬했었다. 목표에만 열중할뿐 헛눈을 팔지 않는 사람... 예나 지금이나 그 성격은 변함이 없었다.

이윽고 현창물은 그들에게 《역주입법에 의한 새는 물 방지공법》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했다.

《말하자면 우물에서 착상했다고 할가요. 언제에서 새는 물을 막기 위한 지난날의 장막주입, 접촉주입법들은 언제에서 물이 새는것을 전제로 하여 방지하기 위한 때늦은 대책들입니다.

물끓이 어딘지 정확히 모르고 시추구멍을 수십개나 뚫고 콘크리트물을 싸넣는데 이것은 사실 눈먼 총알과 같고 또 이것은 언제를 뿜으면 물이 새는것은 어쩔수 없다는 낡은 기존판념의 굳어진 사고입니다.

전투승리는 전투전에 마련되어야 한다는 말과 같이 언제의 새는 물도 사전에 방지할수 있습니다.

굳어진 기성공법에 순응하지 말고 도전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기성공법들을 정통한 후에 새로운 독창적인 사고를 해야 합니다.

창조성이 생명입니다.

우리는 언제건설이 처음이지만 모든것을 자기 실

정에 맞게 하나하나 새롭게 창조해가고있습니다.

그럼 제 이제부터 〈역주입법에 의한 새는 물 방지공법〉의 기초적인 원리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한동안 시간이 흘러 현창물의 설명이 끝나자 국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기사장동무는 수력건설력사에 새로운 포성을 올렸소. 동무는 나라에 귀중한 공적을 세웠고 또 커다란 죄를 짓기도 했소.》

《?...》

현창물이뿐만아니라 모두가 국장의 근엄한 얼굴을 쳐다보았다.

국장은 그루를 박아 엄하게 말했다.

《동무는 3년째나 이 공법을 묵여두었소. 나라의 많은 수력발전소건설장들에 도입했다라면 얼마나 좋았겠소.》

《...》

현창물은 머리를 숙이었다.

《당장 박사론문을 쓰시오. 빠를수록 좋소.》

뒤이어 다른 사람들이 현창물의 손을 굳게 잡아주었다.

윤경은 감동에 젖은 눈길로 현창물을 바라보았다.

그러는 그의 눈앞에는 대학을 졸업한 후 3대혁명소조때의 일이 떠올랐다.

...지윤경은 현창물과 함께 북방의 어느 한 산골군 농촌건설대에 3대혁명소조로 파견되었다.

고난의 행군시기여서 모든것이 부족하였다.

그때 농촌건설대에서 가장 애로를 느낀것은 용접봉과 철근이었다.

용접봉 한대, 철근 몇미터를 얻어오자면 지배인이나 자재일꾼들이 군내는 물론 주변 군들과 멀고 먼 제강소에까지 신발창이 닳도록 다니다못해 그것도 빈손으로 돌아올 때가 빈번하였다.

그때 농촌건설대 사람들은 할수 없다고, 이것이 자기들에게 차려진 운명이라고밖에 볼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오래동안 굳어진 이 사고방식에 파렬구를 낸 사람은 28살 피끓는 청춘의 현창물이었다.

그는 자체로 철근과 용접봉을 만들기 위하여 고주파유도로를 만들고 연신기를 제작하자고 호소했다.

그때 윤경은 물론 농촌건설대 지배인도 깜짝 놀라서 현창물을 어처구니없어하는 표정으로 쳐다보았다. 철근 한미터, 용접봉 한대 없는 빈터에서 맨주먹으로 유도로와 연신기를 자체로 만든다는것은 그야말로 하늘에서 별을 따오는 일과 다름없었다.

그날 저녁 윤경은 창물에게 진심으로 우려가 되고 걱정이 되어 물었다.

《정말 할수 있을까요?》

현창물의 얼굴은 전에없이 심중해졌다.



《믿지 못하겠소?》

《?...》

《나의 그 호소는 대학생 현창률이 아니라 3대혁명소조원 현창률이 종업원들앞에 다진 맹세요.》

《?!》

《윤경동무, 우리는 자기의 힘을 믿지 못하고 구절을 숙명처럼 여기고있는 이곳 사람들의 그 낡은 사고방식을 깨고 바로잡아주어야 하오. 자기의 힘과 지혜, 자기의 창조성을 그들자신이 의식하고 절감하게 해야 한단 말이요.》

《...》

《그렇지 않으면 오늘의 이 고난의 행군을 이겨 내지 못하오. 고난의 행군을 맨 앞장에서 뚫고나가는 위대한 장군님의 무거운 짐을 우리 3대혁명소조가 한몫을 내대어 덜어드리고 받아들여 하지 않겠소. 마지막피 한방울이 펴 때까지 말이요.》

《!》

윤경은 현창률의 불같은 심장앞에 머리를 숙이었다.

그후 현창률은 자기를 대학으로 떠밀어보낸 무산광업건설사업소 로동계급의 사심없는 도움으로 끝내 1년안으로 유도로와 연신기를 만들어 자체의 힘으로 철근과 용접봉을 생산하고야말았다.

이렇게 되어 농촌건설대는 《구절》의 길에 종지부를 찍고 군내는 물론 도의 일부 농촌건설대들에까지 철근과 용접봉들을 생산보장하는 부자기업소로 되었다. 말하자면 혁명이 일어났던것이다.

그 《혁명》의 길에서 현창률이 북방의 엄혹한 추위에 손과 발에 동상을 입은적이 몇번이고 기차도 타지 못하고 유도로와 연신기부속을 발구에 싣고 압록강반의 사나운 눈보라를 헤쳐온 길은 또 몇백리나 되었던가....

그 나날 지윤경은 현창률이라는 인간의 불타는 열정과 의지에 매혹되었다.

현창률은 소조기간에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원의 영예를 지니었다.

윤경은 그날 들국화꽃송이를 그에게 안겨주며 말했다.

《당원이 된 현창률동지를 축하합니다.》

《고맙소. 하지만 내가 앞으로 당원이라는 그 숭엄한 이름에 흑점을 남기지 않겠는지 하는 걱정이 더 크오.》

《!》

《윤경동무, 당원이 되고보니 인생의 빛이 더 커지누만. 나를 대학으로 떠밀어보낸 무산사람들과 나를 당원으로 키워준 이 압록강반의 농촌건설대사람들을 대학교정과 함께 난 영원히 잊을수가 없소.》

《!》

윤경은 뜨거운것이 가득 피어오르는 눈길로 현창률을 쳐다보았다.

...

윤경은 현장지휘부에서 나왔다.

어쩐지 홀로 끝없이 거닐고싶었다. 소중한 지난날들의 그 추억을 되새기며 하많은 이야기를 자신과 속삭이고싶었다.

언제건설장은 밤을 모르고 불타고있었다.

그는 어랑천강변을 따라 거닐었다.

윤경의 머리에는 또다시 대학졸업전야의 일이 떠올랐다.

그때 윤경은 현창률에게 졸업후 성기관에 떨어질것을 권고했다. 실력으로 보나, 3대혁명소조기간 쌓은 현장경험으로 보나 그는 앞으로 어디서든 크게 한몫 할수 있는 재목이었던것이다.

그러나 창률은 수도에 떨어질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물리쳤다.

현창률이 드디어 평양을 떠나는 날 배낭을 메고 가방을 들고 승강대에 선 그에게 윤경은 다시 물었다.

《후회하지 않겠어요?》

《아니, 나를 키워주고 또 나에게 대한 기대가 제일 큰 사람들도 다 무산에 있소. 난 그들속에서 채찍질을 받으며 그들의 기대에 보답하겠소.》

《!》

지윤경은 애써 눈물을 삼키며 그를 바래주었다....

그렇게 헤어진 후 15년만에 이렇게 만난 그들이 다. 하건만 현창률은 지금 윤경을 알아보지도 못하고있다.

윤경은 지금에 와서 현창률이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고있는것이 야속하기보다 오히려 그가 더 돌보이었다.

박사론문감이 되고도 남을 커다란 발명을 하고도 공명과 사리사욕과는 인연이 없이 몇년째 일에만 묻혀사는 사람. 그의 명예는 어디에 있는가?...

윤경은 자기의 학위론문이 지금 이 시각에는 죄스럽게 여겨지고 부끄러워졌다. 내 논문이 현창률의 이 발명처럼 실지로 조국에 커다란 기여를 했는가?... 윤경은 자신의 심장에 물어보았다. 대답이 없었다. 아니, 할래야 할수가 없었던것이다.

윤경은 자기도 모르게 머리를 숙이었다.

### 3

다음날 밤 지윤경이네 일행에 또다시 충격적인 파문이 던져졌다.

조기조업을 위한 마지막전투인 가배수로밀폐전투가 래일 새벽부터 벌어진다는것이였다.

지금껏 수력발전소건설력사는 언제를 마지막까지

다 쌓고 조업을 하는것이 공식적인 레로 되어왔다. 그런데 조기조업이란 무슨 말인가?

어랑천발전소건설자들은 지윤경일행에게 참으로 놀라운 문제를 던지었던것이다.

모두가 호기심을 가지고 《시공조건을 고려한 가배수로 밀폐공크리타입시공법》설계도면을 놓고 마주앉았다. 이것은 수문대신 발브에 의한 밀폐이다.

현창물기사는장을 설명했다.

《언제를 30여미터 쌓은 다음 조기조업을 보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때문에 수문을 설치하자면 계속 올라가야 하는 언제에 그 거대한 수문을 설치할 공간도 애로조건이였고 그 수문을 들어서 조립할 기중기가 없었습니다. 현재 자행식기중기와 언제기중기는 그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조기조업을 보장하자면 무조건 종전판례에 매이지 않는 대담한 새 시공법을 발명하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전의 시공법을 대담하게 부정하고 발브에 의한 밀폐시공법을 새롭게 찾아내었습니다. 그 방법으로 하면 수문제작에 필요한 많은 강재들과 자재를 절약하게 되고 시공조건 역시 아주 편리하고 단순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발명됨으로써 조기조업을 위한 결정적인 돌파구가 열린것입니다.

래일 가배수로 밀폐전투가 끝나면 30여미터의 언제에 물이 차오를것입니다. 그러면 25일후에는 조기조업을 하여 수만키로와트의 전력을 생산하게 됩니다. 이것은 과학환상이 아닌 오늘의 우리 현실입니다.》

국장이 흥분된 어조로 물었다.

《조기조업을 하자고 처음 제기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책임비서동지입니다. 나라의 긴장한 전력사정을 풀자면 지난날 수력발전소건설공법을 대담하게 부정하고 조기조업을 하여 전기를 생산하면서 언제를 완공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기술자들은 당의 요구에 기술로써 대답했을뿐입니다.》

국장의 얼굴은 왜서인지 심각하게 굳어졌다.

그는 다시금 물었다.

《책임비서동무는 수력발전소건설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이번이 처음입니다. 책임비서동지는 수력건설 전문가도 아닙니다. 나라의 긴장한 전력사정이 우리 책임비서동지에게 그런 애국의 착상을 주었을것입니다.》

《?!...》

모두가 깊은 생각에 잠겨 서로 마주보았다.

이윽하여 지윤경이가 조심히 물었다.

《발브에 의한 밀폐공법은 누가 착상했습니까?》

《시공과장동무입니다.》

지윤경은 한발 나서며 재차 물었다.

《시공과장동지를 만나볼수 없을가요?》

왜서인지 현창물은 선뜻 대답이 없었다.

지윤경이 다시금 물었다.

《지금 어디 있습니까?》

어디선가 먼곳에서 들려오는듯 한 현창물의 목소리가 나직이 울렸다.

《현장에서 순직... 아니, 전사했습니다.》

《?!...》

윤경은 우뚝 굳어졌다.

고막이 징- 하고 울려왔다. 그의 마지막생을 얼마나 값있게 샀으면 전사하였다고 말하랴...

현창물의 더듬는듯 한 목소리가 조용히 흐느낌처럼 울렸다.

《시공과장동무는 이것을 완성하느라 며칠째 밤을 꼬박 패다가 연필을 꼭 잡고 굳어진채... 그의 설계탁앞에는 한술가락도 들지 않은 식은 강냉이밥이 그대로 굳어져있었습니다.》

《!》

윤경은 그만 눈물이 핑- 하니 솟아올랐다.

모두가 말없이 《시공조건을 고려한 가배수로 밀폐공크리타입시공법》도면을 눈물을 삼키며 묵묵히 내려다보고있었다.

윤경은 눈길을 들어 창밖을 깊은 생각에 잠겨 내다보았다.

언제건설장에서 무수한 용접불보라가 쏟아져내리고있었다.

윤경이네가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그 무명의 기술자의 값높은 생을 축복해서인것 같았다.

무겁게 거니는 국장의 발자국소리가 울리더니 멎었다.

윤경은 떨리는 손으로 설계도면 한장한장을 다시금 번지며 눈물을 씻었다.

이윽하여 현창물은 가배수로 밀폐전투장으로 간다며 밖으로 나갔다.

윤경이네 일행만 현장지휘부에 남았다.

한동안 서로 말없이 깊은 생각들에 잠겨있었다.

국장이 혼자소리하듯 윤경에게 물었다.

《윤경동무는 지금 무슨 생각이 드오?》

뜻밖의 물음에 윤경은 주춤했다.

어찌보면 그 물음은 자기가 모두에게 묻고싶은 질문이기도 하였다.

윤경은 솔직한 자기의 심정을 말했다.

《우리는 이 건설장에 검열을 내려온것이 아니라 자신을 검열받고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이 책상을 가볍게 울리며 흥분된 어조로 동의했다.

《그렇소. 우리는 지금 이곳 건설자들한테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검열받고있소, 애국심을!...》

그의 마지막말은 모두에게 강한 충격을 주며 자기 자신들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였다.

윤경은 오늘 이 하루동안에 자신이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커다란 정신력앞에서 몰라보게 성장하는 듯 한감이 들었다. 그럴수록 지난날의 자신이 보잘 것없이 작은 존재로 부끄럽게 느껴졌다.

이 건설장이 자기에게 던진 숙제는 파고들수록 심오한 삶의 의미가 그의 심장에 허다한 새 물음을 제기하고있었다.

밤하늘에는 무수한 별들이 빛을 뿌리며 반짝이고있다. 어찌보면 그 별들은 시공과장이라는 한 인간의 숭고한 생을 빛내어주고싶어 반짝이는듯싶었다.

#### 4

조기조업을 위한 마지막전투가 벌어지고있는 가배수로 밀폐전투장은 새벽부터 들끓고있었다.

기동예술선동대원들의 힘찬 취주악소리, 북소리...

건설자들은 콘크리트혼합물을 실은 밀차들을 가배수로로 연방 들이밀었다.

기사장 현창물은 청년돌격대원들과 함께 고무작업복을 입고 안전모를 쓰고 가배수로 콘크리트혼합물타입장에 있었다. 마치도 그는 지금 연합기업소 기사장이기보다 청년돌격대 대장인듯싶었다.

가배수로 밀폐콘크리트타입작업은 상상하기 어려운 악조건이었다.

커다란 가배수로 옷부분을 콘크리트혼합물로 다짐할 때에는 진동봉을 가슴에 안고 기여 들어가며 한치한치 하여야 했다. 옷천정이 막혔기때문이다.

현창물을 비롯한 모든 돌격대원들은 온몸이 콘크리트혼합물범벅이 되었다. 이렇게 웅근 12시간을 악전고투하여야 했다.

윤경은 배수로밖에서 돌격대원들과 함께 밀차를 밀었다. 자기의 조그마한 힘이라도 보태고싶었다.

돌격대원들은 옷이 어지러워진다고 펄쩍 뛰었으나 윤경은 그들과 함께 콘크리트혼합물을 배수로로 날랐다.

배수로안은 콘크리트혼합물을 채워넣는 삽질소리와 곤봉진동기소리로 짹 찼다.

맨앞쪽에서 콘크리트를 다짐하는 현창물의 모습이 피곳 보이기도 하고 그가 소리치는 소리도 들려왔다.

《혼합물이 묽다. 되게 하라!—》

《진동을 똑바로 하라!—》

현창물의 목소리는 지난 대학시절 축구경기장이 좁다하게 달려다니며 소리치던 정열넘친 그 목소리와 다름바 없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윤경은 팔다리와 어깨죽지가 푹 떨어져내리는듯했다. 하지만 그는 타입이 끝날 때까지 기어이 참고 견디여보자고 이발을 사려물고 밀차를 밀었다. 쓰러지기를 몇번... 허나 그는 매번 다시 일어나 밀차를 강심먹고 밀었다.

그렇게 하는것이 자기의 의지를 키우는것이고 이 영웅건설자들을 따라배우는것이 지난날의 자신과 멀어지는것이라고 생각했다.

매늦게나마 조국에 참된 량심을 묻고싶었다.

드디어 가배수로 밀폐콘크리트타입은 치렬한 12시간의 격전끝에 끝났다.

계산봉마루에서는 피보다 진한 저녁노을이 불타고있었다.

만세의 환호가 팔향골 깊은 계곡에 터져올랐다.

콘크리트혼합물범벅이 되어 사람형체조차 가려보기 힘든 돌격대원들에게 꽃목걸이를 걸어주며 건설자들은 그들을 하늘공중으로 떠올렸다.

날리는 꽃보라... 터지는 박수...

그들속에 현창물도 한사람이 되어 하늘로 날아오르고있었다.

윤경은 건설자들속에 서서 현창물에게 눈물을 머금고 박수를 보내었다.

이제와서는 현창물이 자기를 알아보지 못한것이 다행스럽게까지 느껴졌다. 무시당한 아픔은 살을 어이듯 했으나 이 하루밤, 하루낮사이에 자신이 무척 달라져 이틀전에 평양에서 내려오던 때의 지윤경이 아닌듯싶었다.

현창물은 건설자들의 목마에서 내리자 그만 그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했다.

만 12시간을 허리도 못 펴고 꼬부리고 기여가며 곤봉진동기를 다지느라 온몸이 강직되어 움직일수가 없게 된것이다.

부기사장이 소리쳤다.

《답가!》

현장치료대가 담가를 들고 달려왔다.

건설자들이 현창물을 들어 담가우에 올려놓았다. 현창물은 참기 어려운 고통을 이겨내느라 얼굴을 찌프리면서도 누구에게라없이 룡을 던졌다.

《동무네들은 내가 이렇게 되니 좋겠지?》

《네?》

《래일 축구경기가 있는데 이 꼴이 됐으니 말이야.》

《хах하하...》

웃음이 터졌다.

누구인가 환성을 올리듯이 소리친다.

《종구나. 통돼지는 우리거다!—》

와— 다시 웃음이 터졌다.

현창물은 담가에 실려가면서 계속 소리쳤다.

《통돼지를 뺏길것 같아? 의사선생, 내 다리를 책임져주겠지요?》

진담인지 통인지 너의사가 말했다.

《책임 못 집니다. 이젠 몇번쩍니까?》

《영?》

《하하하...》

터지는 즐거운 웃음.

《통돼지는 우리거다!—》하고 하늘높이 뛰어오르며 웨치던 청년이 담가에 다가오더니 너의사의 손을 잡고 진심으로 부탁했다.

《선생님, 기사장동지의 다리를 꼭 낫게 해주십시오. 우린 경기에서 저도 좋습니다. 부탁입니다.》

윤경은 울컥 눈물이 솟구쳐올랐다. 건설자들과 한마음한뜻이 되어 어울려 돌아가는 현창물...

윤경은 솟구치는 눈물을 씻으며 멀어져가는 담가를 뜨겁게 바라보았다.

현창물이 실려가는 담가엔 건설자들이 벌떼처럼 몽치며 웅위하듯 따라가고있었다.

그날 지윤경은 떠나기 앞서 창물을 찾아가보려고 몇십번이나 바재이다가 그만두었다. 이제 빈말로 그를 만나면 모든것이 허위이고 자신이 자기를 기만하는듯싶었다. 그리하여 그는 현창물을 만나보지 않고 떠나기로 강심먹었다.

그는 가방의 책을 정리하다가 무엇인가 마음에 걸려 내려가지 않는것이 있을듯 하여 잠깐 생각해 보았다.

그렇다. 설계도면을 그리던 연필을 꼭 잡은채 굳어져 전사했다는 그 사람! 그 시공과장에 대하여 무엇인가 더 물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강냉이밥 한순가락조차 들지 못하고 그대로 남겨둔채 생을 마친 무명의 아름다운 인간의 숨결을 더 새겨안고 떠나고싶었다.

윤경이가 젊은 부기사장을 찾아 일어서는데 마침 그가 들어섰다.

《매일 아침에 떠나시렵니까?》

《네, 그런데 한가지 구체적으로 알고싶은것이 있습니다.》

《어서 말씀하십시오.》

《〈발브에 의한 가배수로 콘크리트타입〉 공법을 발명했다는 시공과장동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

부기사장은 왜서인지 선뜻 대답을 않고 생각에 잠겼다. 이어 그는 조용한 눈매를 들고 대답했다.

《사실 그 발명도 기사장동지가 했습니다.》

《네?!...》

《기사장동지는 시공과장동지의 그 생의 고귀한 마무리가 너무 귀중하고 아름다웠기때문에...》

《?!》

《우리 기사장동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

윤경은 푹 고개를 숙이었다. 아! 뜨거운 인간의 숭고한 정신세계...

윤경의 가슴속에서는 걱정의 파도가 길길이 솟구쳤다.

그의 눈앞에는 15년전 평양역두에서 떠나는 북행 열차의 승강구에 배낭을 메고 가방을 들고 서있던 현창물의 모습이 의미심장하게 떠올랐다.

《후회하지 않겠어요?》

《아니, 나를 키워주고 또 나에게 대한 기대가 제일 큰 사람들도 다 무산에 있소. 난 소박한 그들의 곁에서 채찍질을 받으며 함께 고생한 그들의 기대에 보답하고싶소.》

《!》

...

그때 그 말의 의미가 오늘은 몇갑절 큰 새로운 의미를 띠고 윤경의 심장을 울렸다.

현창물은 그때 한 자신의 언약을 실천한 인간이다. 그는 3대혁명소조기간 압록강반의 군농촌건설대에서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당원의 참모습으로 꿋꿋이 살아가고있었다.

그날 밤 윤경은 밤새껏 《시공조건을 고려한 가배수로 혼합물타입》 시공도를 연구하며 새날을 맞이했다.

새벽노을에 불타는 팔향골의 단풍이 류달리 더 붉어보이었다.

그날 오후 열차에 몸을 실은 윤경은 단풍이 붉게 타는 먼 산발너머 어랑천발전소건설장을 바라보았다.

그러노라니 현창물의 서글서글한 불타는 눈길이 다가왔다.

콩크리트혼합물범벅이 되어 사람형체조차 가려보기 힘들던 그 모습!

열차는 그 모습을 뒤로 남기며 멀어져간다.

지윤경은 승강구에 그린듯 서서 그리움에 젖어 자꾸 건설장쪽을 바라보았다.

이때 산골이에서 갑자기 까만색승용차가 나타났다.

승용차는 경적을 울리며 열차를 향해 달려왔다.

시창을 열고 손을 흔드는 젊은 부기사장의 모습이 보이였다.

《?...》

이어 앞시창을 열고 현창물이 손을 흔들며 소리치지 않는가.

《윤경동무!—》

《아!...》

급기야 윤경의 두눈에서는 눈물이 소녀애처럼 왈칵 흘러내렸다.

《창물동지!》

《나를 용서하오—》

그의 대답소리를 안고 열차는 굴간으로 들어갔다. 요란한 차바퀴소리가 윤경의 심장을 두드렸다. 아마 부기사장이 현창물에게 사연을 다 설명해준

# 날 개

—원산구두공장에서—

박 성 일

수천년을 짚신으로 걸어온  
그 흔적이 멀지 않은 이 나라 인민에게  
그리고 아름다운 꿈 없애주며  
갖가지로 즐지어 흘러나오는 구두여

우리 원수님 환히 웃으시며 달아주신  
그 이름도 《매봉산》상표

승리해온 인민이 받아안을것이어서  
매봉산을 구두에 새겨주셨거나  
높은 산도 훨훨 오르는 날개가 되라  
멋들어진 상표로 안겨주셨거나

안아 두손에 안아 쓸어보니  
가슴뭉클 안겨오는 후더움

이것이였구나  
우리 수령님 백두밀림 눈보라속에  
설피 신고 싸우시며 그려보신것  
유격대엔 발이 날개라시며  
대원들의 언발 감싸안고 간절히 바라신것

이때문이 아니나

우리 장군님 뒤통수는 신발을 고쳐신으시며  
평범한 인민으로 사시였던 날과 달들이  
뜨거움으로 맺혀있는것은

오늘은 우리 원수님  
수령님과 장군님의 그 념원  
다 풀어주셨으니  
참매의 날개와도 같아라  
억센 준마의 등자와도 같아라

은혜로운 해살로 엮은  
사랑의 《매봉산》나래를 펴고  
대지를 활보할 이 땅의 사람들은  
얼마나 아름다울것인가  
강산은 또 얼마나 눈부실것인가

걸으리라  
별처럼 꽃처럼  
날마다 펼쳐지는 꿈과 리상  
대지위에 하나하나 새기며  
반만년의 소원 풀어준  
고마운 해빛의 무늬  
또렷이 자욱으로 찍으며...

모양이였다.

렬차가 차굴에서 벗어났을 때에는 벌써 현창물  
이 탄 승용차가 멀리 개울가언덕우에서 하나의 점  
으로 보일뿐이였다.

이제는 그 점마저도 사라졌다.

윤경은 눈물을 씻으며 속으로 외쳤다.

《창물동지! 동진 저에게 생의 아름다운 속제를  
남기였어요. ...》

목멘 기적소리가 윤경의 가슴속에 메아리쳐왔다.

×

평양에 돌아온 윤경은 자기의 학위논문본론을 거  
부하였다.

그는 국장에게 후날 자기가 조국에 바친 창조물  
이 오늘의 자신을 변론해줄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시공조건을 고려한 가배수로 콩크  
리트타입》 학위론문을 현창물의 의견을 참고로 삼  
으며 시공과장의 이름으로 집필하였다.

1년후 현창물과 순직한 시공과장은 높은 학위학  
직을 수여받았다.

2004년 12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또다시 어랑천  
발전소건설장을 찾아주시였다.

장군님께서는 이곳 건설자들이 대중적영웅주의  
를 발휘하여 어려운 시련을 이겨내며 전해에 왔을  
때보다 몰라보게 많은 일을 하였다고 높이 평가해  
주시였다.

그 소식을 들으며 윤경은 굳어졌다.

자기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솟구쳐 랑볼로 흘  
려내렸다.

현창물이며 부기사장, 젊은 돌격대원들과 함께  
현장에서 순직한 낮모르는 시공과장의 모습까지 눈  
에 선히 안겨왔던것이다.

윤경은 발전소건설자들의 대군상, 언제와도 같은  
거대한 인간세계가 푸른 산줄기와도 같이 자기의  
눈앞에 거연히 솟아오르는듯 했다.

윤경은 빠근한 감개속에 뇌이였다.

(아! 어랑천, 어랑천!...)





한 은 희

1

정현주는 잠에서 깨어났다.

침대머리맡에 놓인 자명종시계를 집어든 그는 조짐기를 재빨리 풀어버렸다.

그러지 않았으면 정각 5시에 야무진 짜르릉소리가 집안의 고요를 깨뜨려놓았을것이다.

푸릿한 어둠속에서 현주는 소리없이 웃었다.

지금껏 그는 종소리가 없이도 자명종소리가 체시간에 울리듯이 5시면 어김없이 잠에서 깨어나곤 했던것이다.

그래서 화력발전소의 책임기사인 남편의 출근과 올해에 대학생이 된 딸딸 그리고 초급중학교 3학년생이 된 둘째딸의 등교까지 착실히 준비해주곤 했다.

그러던 현주가 지난밤에는 다름아닌 자기자신을 위해 자명종을 맞춰놓았던것이다.

어제 밤 아이들 책상우에 놓여있는 시계를 가져다가 시간을 맞추고는 침대머리맡에 세워놓는 엄마를 본 둘째딸 흥이가 옆에서 캐득캐득 웃으며 《엄만 꼭 첫 등교하는 1학년생같구나.》하고 재잘거리던것이 생각났다.

꼭 잠잘 때만 조용해지는 둘째딸의 도르릉도릉— 코고는 소리를 즐겁게 들으며 현주는 남편을 바라보았다.

항상 그렇듯이 현주쪽으로 모로 누워 시름없이 자고있는 남편의 머리를 베개우에 바로놓아준 그는 살그머니 침대에서 내려 방을 나왔다.

전실을 지나 부엌으로 나가려던 현주는 주춤을 멈추었다.

그의 시야에 전실의 차대우에 놓인 책들과 원고지뭉음이 안겨들어왔다.

막내딸의 말대로 오늘의 첫 《등교》를 위해 준비해놓은 참고서들과 벌써 한해남짓이 《장기휴가》를 받고있는 논문초고였다.

《희귀조류번식의 새로운 생태조건과 먹이사슬관계연구》

첫장에 찍여진 제목을 읽느라니 문득 가슴뭉클떠오르는 모습이 있었다.

현주에게 바로 저 논문의 주제를 잡아준 박세빈교수.

그는 참으로 잊을수 없는 스승이었다.

단발머리 대학시절 초빙강의를 나왔던 동물학연구소 조류연구사 박세빈교수와 처음 낯을 익힌 후 졸업하고 연구소로 현실체험나갔을 때 얼마나 반가웠던가.

길지 않은 현실체험기간 교수에게서 논문지도를 받으면서 과학자로서의 교수의 모든 사업과 생활, 심지어 사말사에 이르기까지 가까이에서 목격하며 결심한대로 그는 동물학연구소 조류연구실에 배치

받았던것이다.

그만큼 교수는 과학적신조가 굳세고 지성이 있고 일상생활에서도 남다른 인간미를 보여준 사람이었다.

그중에서도 특히 정현주를 감동시킨것은 박세빈 교수가 가슴속에 안고있는 남다른 사연이었다.

박세빈교수는 우리 나라 조류학계의 개척자이며 원로인 원홍구선생의 손녀사위였다.

민족분열이 가져다준 고통으로 세 아들과 생리별을 하고 슬하에 외동딸 하나만을 키워온 원홍구선생은 박세빈이 가장 존경하는 스승이었다.

원홍구선생에게서 조류학을 배우며 성장한 박세빈이 자기의 학문을 자식에게 넘겨주지 못하는것때문에 늘 속을 태우는 스승의 그 마음을 알고 자신이 스스로 그의 아들맞잡이 손녀사위가 된것은 벌써 수십년전의 일이었다.

단지 자식구실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승이 한생 심혈을 다 바쳐온 학문을 이어받아 내 조국강산을 풍성하게 하는데 자기의 모든것을 깡그리 다 바칠 결심을 한것이었다.

그 사연을 알았을 때 박세빈에 대한 현주의 감동은 더욱 커졌었다.

불현듯 현주의 얼굴에 알릴듯말듯 한 미소가 어렸다.

생활이란 참으로 이상야릇한것이 아닌가.

자신이 논문집필을 중단하고 종당에는 연구소를 사직할 결심을 내린것도 바로 박세빈교수때문이 아니었던가...

그때 현주는 어느때없이 무거운 짐을 지고 남달리 바쁜 나날을 보내고있었다.

박사의 학위를 목표로 한 논문이어서 많은 정력과 시간을 바쳐야 하는데다가 불치의 병으로 자리에 누운 시어머니의 병구완까지 겹쳐 그의 정신육체적부담은 곱절로 컸다.

특이한 생태환경과 먹이사슬관계에 국한되어있는 것으로 하여 우리 나라 희귀조류들의 번식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과학기술적, 실천적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것이 바로 현주의 논문과제였다.

수백권의 기술도서들을 열람해야 했고 적지 않은 현지답사와 취재를 동반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였다.

그런 속에서 현주는 석달은 실히 걸려야 할 논문집필을 단 두달사이에 끝냈다.

론문을 제출한 다음에는 과중한 피로로 하여 쓰러지고말았다.

며칠간 치료를 받고난 후 출근하니 책상우에 부피 두툼한 자기의 논문이 놓여있었다.

론문의 첫페이지사이에 색다른 종이장이 끼워져있는것을 발견한 현주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뽑아들었다.

너무도 낮이 익은 교수의 필체가 한눈에 안겨왔다.

《갑자기 출장이 제기되어 차민호선생과 함께 떠나오.》

한순간 안도의 숨이 나오는듯싶었으나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

《돌아와서 다시 토론하겠소만 논문이 잘되지 않았다고 보오. 본질적의견으로는...》

가슴속에서 무엇인가 와르르 무너져내리는것 같은 소리가 났다.

론문이 잘되지 않았다고 본다!...

원래 직선적이고 무리한 표현을 삼가하는 교수인 까닭에 그것은 벌써 의심할바없는 혹평이었다.

현주는 텅기면 끓길듯이 헤워진 기타줄같은 긴장을 안고 그 다음글줄들을 읽어내려갔다.

...구체적이고 가치있는 자료들이 매우 불충분하다.

중요한것은 현실성이 없는것이다.

전면적으로 재검토할것!...

다리땀이 아니, 온몸의 힘이 스프르 빠져나가는것을 느끼며 현주는 자리에 주저앉았다.

아- 결국 전면부정이 아닌가.

뜨거운 눈물이, 억제할수 없는 눈물이 논문우에 떨어져내렸다.

현주는 두손으로 얼굴을 싸쥐었다.

캄캄하고 막막해진 눈앞에 고열로 허덕이는 자기의 머리맡을 지키고있었던 남편의 불만스러운 표정이 떠오른다.

그때 남편은 어떻게 말했던가.

《...난 당신이 이제는 진정으로 한가정의 주부가 되고 어머니가 되었으면 하오.》

《그건...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야 그만하면 연구성과도 적지 않지, 학위도 받았지, 이제는 좀 편안히 가정일을 돌봐도 되지 않겠소? 꼭 이렇게 간난신고를...》

그때까지만 하여도 현주는 자신감을 잃지 않았다.

그는 불만이 력력한 남편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말했었다.

《난 쉽게 쓰러지지 않아요. 한가정의 주부구실

도, 사회앞에 지닌 의무도 훌륭히 수행해나갈거예요.》

하지만 토론에 대한 교수의 전면부정은 그의 마지막행적을 깎그리 허물어버리고말았다.

만약 교수의 쪽지편지에 믿음이 가는 그 어떤 다른 말이라도 있었으면 그렇게까지 실망하지는 않았을것이였다.

그런데 교수의 의견은 너무도 행정하고 객관적인것이였다.

고민과 모순으로 몸부림치던 현주는 박세빈교수의 출장이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의 병구완을 조건으로 사직을 제기하고야말았다.

그때로부터 몇달이 지난 올해 초봄에 시어머니가 생을 마치고 또 반년이 흘러 오늘에 이른것이였다.

정현주는 이제는 가장자리가 누렇게 퇴색한 논문묶음을 다시한번 바라보고나서 부엌에 들어섰다.

때맞추어 고성기에서 아침방송개시음악이 은은히 울려나오기 시작하였다.

아침밥이 거의 다 되었을 때에야 방안에서 인기척이 났다.

누군가 방문을 열고 전실에 나서는데 귀기울여보니 남편의 발자국소리였다.

발자국소리 두세번만에 별안간 전실이 조용해졌다.

정현주는 보지 않고도 지금 남편이 차대우의 《등교》준비품들을 일별하고있다는것을 확연히 느낄수 있었다.

어떤 표정일가... 호기심이 솟구쳐올랐다.

하지만 내다보고싶지는 않았다.

잠시후 남편이 부엌문가에 나타나 현주를 바라보았다.

무척 진중한 기색과 호기심 비슷한것이 함께 어린 미묘한 표정이였다.

현주는 방금 뻥 행주를 살근살근 잡아당기며 말없이 남편을 마주보았다.

《기어이 박사메달을 받겠다는거요?》

표정과는 달리 어딘가 야유조의 물음이었다.

현주의 손에서 반듯이 찢었던 행주가 다시 뭉그러져 그의 줌안에 꼭 잡혔다.

가정을 이룬지 스무해를 가까이 하며 남편의 속내까지 말끔히 알고있는 현주로서도 딱히 확신할수 없는것이 바로 지금의 남편의 태도였다.

자기가 다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것을 기꺼워하

는것인지 아니면 마땅치 않아하는것인지, 방금 던진 물음도 단순한 궁금증인지 아니면 야유인지 분간할수 없었다.

남편의 애매모호한 태도보다도 그것을 무엇이라 꼭 짚어 확신할수 없는 자신의 사고에 화가 나기도 했다.

《그건 두고봐야 할 일이에요. 하지만 모든걸 우선 좋게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어쩌면 다른 사람도 아닌 세대주가 사회에 이바지하고싶어하는 안해의 진정을 〈박사메달을 받고싶어서이다.〉라는 한마디 말로 결론해버릴수 있는가 말이에요.》

안해에겐 세대주의 지지와 고무가 제일 큰 힘으로 된다는걸 그래 모르는가요? 정말 모르는가 말이에요.》

불쑥 나간 말이였다.

하지만 지금껏 품고있던 감정을 로출시킨것이나 같았다.

이때 갑자기 남편이 덴접한 소리를 질렀다.

《가만, 거 국이 졸지 않나?》

《어마나, 내 정신!》

하지만 국은 이제야 끓기 시작하는중이었다.

현주의 악의없는 눈흘김을 등위로 받으며 남편은 세면장으로 향했다. 그러면서 또 한번 안해의 심리를 자극했다.

《좋은 일이지, 우리 집에서 박사가 나고... 그때면 우리 발전소구내에도 희귀한 새들이 훨훨 날아들게 될거고. 좋은 일이지...》

그러자 현주는 세면장으로 다가가 때를 만났듯 꼭진한 어조로 말했다.

《그날을 앉아서 기다리지만 말고 나무를 많이 심어야 해요, 나무를.》

## 2

초가울의 아침은 유난히 쾌청하였다.

구름 한점없이 건듯 들리운 하늘이며 서늘하게 불어오는 바람과 한잎두잎 노란 물이 들기 시작한 은행나무잎사귀들에서 가을은 한껏 무르녹고있었다.

지하역에 내려선 현주는 전동차에 몸을 실었다.

출근직전에 전화를 걸어왔던 대학동창생의 목소리가 지금 그의 귀전을 쟁쟁히 울리고있었다.

대학시절 현주와 가까웠던 그 동창생은 지금 어느 작지 않은 기업소의 부직일군으로 사업하고있

었다.

누구에게선가 현주가 다시 연구소에 나가기로 결심했다는것을 알고 전화를 걸어온 모양이었다.

《야, 때마침 첫 출근날이었구나? 검사해서 축하를 보낸다. 그리고 너의 그 논문이 꼭 성공하기를 바래, 응?》

현주가 직장을 그만두었을 때에도 그는 논문 소리부터 했었다. … 《아니, 야, 너의 그 논문은 어찌구? 그보단 너의 그 이악과 야심은 어디 가구?》…

그도 한해전 그날이 기억나는듯 호호 웃으며 말했다.

《내 글씨 우리 이악쟁이 정현주동무가 내쳐 동면만 하고있지 않을줄 알았다니깐. 하여튼 꼭 성공하기를 바래. 박사학위를 받는 그날엔 나한테 제일 먼저 알려줘야 해.

야, 우리 동창생들의 마음을 내가 대변한다, 응?》

《동창생들》이라는 말까지 듣고보니 심신에 이상야릇한 긴장감이 배어들었다.

현주의 동창생들로 말하면 가정주부로 집에 들어앉은 녀인들도 없지는 않았지만 사회생활을 하는 동무들은 모두 제나름대로의 성공과 명예의 만족감을 맛보고있었다.

한개 기업소의 책임일군도 있었고 부교수도, 박사도, 한다하는 이름난 기자도 있었다.

대학시절 동급생들중에서 으뜸으로 공부를 잘한 현주였기에 지나간 한해가 헛된 시간처럼만 느껴지고 이제 다가올 앞날을 두고 은연중 조바심이 솟구쳐오르는것이였다.

문득 전동차가 몇어서는 바람에 현주는 생각에서 깨어났다.

급히 내리는 사람들, 내린 사람들로 하여 생겨난 빈자리에 새로이 비집고 들어서는 사람들. …

전동차는 다시 달리기 시작하였다.

어쩐지 아까보다 달리는 속도가 느려진감을 느끼며 현주는 어깨우의 가방끈을 추슬러올렸다.

잠시후 전동차는 종착점인 락원역에 멎어섰다.

많지 않은 승객들속에 끼워 현주는 밖으로 나왔다.

초가울의 싱그러운 공기를 한껏 들이키며 걷는 현주의 눈앞에 아늑하고 한적한 숲속에 자리잡고있는 연구소가 예전그대로의 낮익고 정다운 모습으로 안겨들었다.

아직은 이른 출근시간인지라 정문앞은 조용했다.

입직수속으로 몇번 드나들 때 낮을 익힌 경비원 아바이가 그의 인사를 받으며 반겨맞아주었다.

《아— 오늘이 첫 출근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정문앞마당이 환해지도록 활짝 웃으며 인사하는 현주에게 아바이도 정답게 말을 건넸다.

《첫 출근날에 맨 먼저 출근했구만.

아참, 그게 아니지. 벌써 나온 사람이 있는걸…》

자기 말을 수정하며 아바이는 연구소구내 왼쪽모퉁이로 눈길을 보냈다.

정말 그쪽에서 사박사박 비자루질소리가 가락맞게 들려오고있었다. 아마 선참으로 출근했다는 그 누군가가 마당청소를 하고있는 모양이었다.

아바이에게 눈인사를 하고난 현주는 호기심으로 눈을 빛내이며 비자루질소리가 나는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누구이길래 저렇듯 부지런할가싶은 생각이 들어 저절로 발걸음이 빨라지는데 청사앞마당에서 누군가 몸을 수긋한채 밤사이에 떨어져내린 락엽을 쓸어모으고있는것이 보였다.

현주는 우뚝 걸음을 멈추었다.

백발머리에 회색복가을옷을 단정히 입은 체격 큰 사람, 허리를 구부정하고 천천히 락엽을 쓸어가는 저 로인.

분명 그 로인은 박세빈교수였다.

(아, 교수선생님이구나!)

순간 가슴속에서 엇갈리는 반가움과 죄스러움…

현주가 연구소를 사직하고 집에 들어온지 며칠이 지난 어느날 출장지에서 돌아오는 걸음으로 집에까지 찾아왔었던 교수였다.

《현주동무, 어떻게 이렇게 모든걸 쉽게 포기할수가 있소?》

《선생님, 전 결코 쉽게 결심한것이 아닙니다. 선생님의 의견을 받고 정말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럼 내가 너무 지나쳤는가.

난 현주동무가 분발하기를 바래서, 논문이 웅당한 결실을 맺게 되길 바래서 요구성을 높였을뿐이요.》

《아니, 전 선생님을 탓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요구성에 따라서지 못하는 저자신이 한스러울뿐입니다. 용서하십시오.》

《용서라… 그게 문제가 아니지. 현주가 포기한것이 단지 하나의 논문이 아니라… 그래, 난 보다 더 크고 귀중한것을 포기한것이 아닌가 걱정되어 그러는걸세.》

현주는 아무 말도 못하고 손톱여물만 썰며 앉아 있었다.

그날 현주는 종시 교수가 바라는 대답을 하지 못했다.

사실 현주는 논문을 포기하고 집에 들어오긴 했지만 연구소에 대한 미련은 날이 갈수록 커지기만 했다.

모든것을 단념하고 가정에 들어오면 주부구실 하나만은 제대로 하게 될줄 알았는데 지내보니 그것도 아니었다.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살이 내리는 고민과 한숨속에 흘러보낸 길지 않으면서도 무척 기나긴 나날이었다....

가방을 두손에 모아친 현주의 얼굴에 파스한 웃음이 어렸다.

모든것을 포기했던 자기가 다시금 희망을 안고 연구소로 나오게 된것도 결국은 저 박세빈교수때문이 아니었던가.

얼마전 차민호에게서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을 때 현주는 얼마나 크나큰 희망에 가슴부풀어올랐던가.

현주가 사직한 이후에 실장으로 임명받은 차민호는 안부를 물을 새도 없이 성급하게 말했었다.

《현주동무, 새로 배치받은 한 연구사가 말이요. 며칠전에 동무가 중단한 논문과 똑같은 주제로 학위론문을 쓰겠다고 제기했소.》

한참나 가슴이 서늘해지고 눈뿌리가 화끈 달아올랐다.

자신의 마음이 어디론가 아스랑게 사라져버리는 것만 같은 그 순간 차민호의 다음말이 정신을 번쩍 들게 했다.

《그런데 박세빈교수선생이 강경히 반대했소, 절대 안된다고. 이유가 뭔지 아오?》

그게 무엇인가. 그 이유는 과연...

교수자신이 나에게 정해준 과제여서?...

《리유는 단 한가지요.

현주동무가 그걸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것이라는 거요, 알겠소?》

《?》

현주는 자리를 차고 일어났다.

그 다음일은 마른 솔잎에 불달리듯 빠르게 번져서 바로 지금 현주가 친정집과도 같은 연구소구내에 서있는것이였다.

현주가 가까이 다가서는줄도 모르고 교수는 그냥 비자루질을 하고있었다.

마치도 한입두입 락업을 끌어모으는 그 일에 자기의 온 심혈을 다 쏟아붓고있는것만 같았다.

교수의 등뒤로 다가간 현주는 조용한 목소리로 불렀다.

《교수선생님!》

한순간 일손을 멈추었던 교수가 천천히 허리를 폈다.

그다음엔 역시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넓고 번듯한 이마아래에서 사색어린 눈빛이 현주를 찬찬히 이속토록 바라본다.

성큼한 코날이며 두툼한 입술이며 옛모습 그대로인데 별로 수척해지고 병색이 도는듯 한 얼굴에 어쩔수 없는 세월의 년륜인듯 깊숙한 주름살이 패여있었다.

그 얼굴에 마침내 환한 웃음이 피어올랐다.

《아니, 이게 누군가? 현주가 아닌가.》...

《예... 교수선생님!》

현주는 눈물이 글썽해지는것을 느끼며 목메인 소리로 불렀다.

파스한 햇빛이 나무일사이로 가닥가닥 비쳐내리고있어 주위는 한결 더 청신하였다.

청사앞의 나지막한 긴의자에 스승과 제자는 나란히 앉았다.

지나간 날의 불유쾌한 추억은 애당초 되새겨볼수도 없는 분위기가 흐르고있었다.

그만큼 교수의 기색은 혼연했고 현주 또한 잠깐 헤여졌다가 다시 만난 스승인듯 반갑기만 했다.

《현주가 다시 나온다는걸 난 엿저녁에야 알았네. 쉽지 않은 결심을 했구만. 아무튼 용해.》

문득 교수는 현주가 안고있는 책보따리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현주는 보따리를 내밀어보이며 말했다.

《그때 중단한 그 논문입니다.》

말해놓고보니 얼굴이 달아올랐다.

사실 따져보면 중단이 아니라 포기했던 논문인 것이였다.

《아, 그때... 그 논문이구만.》...

교수가 손에 들었던 비자루를 긴의자옆에 세워놓고 책보따리우에 손을 얹었다.

자못 감회깊은 표정이 주름진 얼굴에 질게 어려있었다.

《그래, 성사시켜야지. 이걸 사실 주목할만 한 가치를 가지고있는 논문이야.

벌써 완성되었어야 하는건데...

어쩌겠나, 시어머니의 병세가 심해서 그렇게 됐



던걸. …」

교수는 위안조로 말하며 고개를 끄덕이었다.

현주는 다시금 달아오르는 얼굴을 다소곳이 숙였다.

교수의 말이 옳았다.

희귀조류들의 서식과 번식에 매우 가치있는 자료를 제공할수 있는 현주의 논문이었다.

느닷없이 가슴이 아릿해지는것을 느끼며 현주는 젖어드는 눈길로 교수를 쳐다보았다.

《지난 한해동안 어느 하루도 잊은적이 없는 논문입니다.

전 사실 선생님의 그 엄한 질책이 아니었다면 다시 연구소로 나올 결심을 못했을겁니다.》

교수가 조용히 미소지으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 그보다는 달리는 될수 없는 과학자의 지조가 현주를 이끌어냈겠지.》

별안간 현주는 교수앞으로 바투 다가앉아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선생님, 제 이제는 주저않지 않겠습니다.

대학시절 그때처럼 선생님에게서 논문지도를 받고 싶습니다.

그러니 요구성을 더 높여주십시오.》

그것은 현주의 진심이었다.

이제는 그 어떤 가혹한 의견앞에서도 주저않지 않을 자신이 있었다.

《고맙네, 고마워. 난 현주를 믿었어.

우리 힘을 합쳐서 꼭 논문을…》

문득 교수는 말끝을 맺지 못하고 저으기 무거운 숨을 내쉬었다.

그 순간 현주는 교수의 얼굴에 스쳐지나는 한줄기 어두운 그림자를 보았다.

그 어떤 번민과도 같은, 달리 보면 생리적고통 비슷한 표정!

무엇때문일까?…

### 3

현주의 의문이 풀리기까지는 그닥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현주가 방에 들어와 청소를 시작했는데 복도에서 저벅저벅 성급한 발자국소리가 나더니 문이 벌컥 열렸다.

《누가 벌써 출근했는가?… 아—》

파장기어린 환성을 울리며 들어선 사람은 차민호실장이었다.

《역시… 내 짐작이 맞았지. 현주동무로구만.》

차민호의 등글넙적한 호인형의 얼굴에 반가움의 파도가 출렁거리고있었다.

갓 신고개에 들어선 차민호 역시 현주의 동창생이다.

제대군인인 까닭에 현주와 대학시절의 동급생이였고 더우기는 그 시절 현주에게서 학습방조를 특독히 받아온 차민호는 언제나 그를 동갑나이의 동창생처럼 각별히 대해오고있었다.

이번에 현주가 다시 연구소로 나오겠다고 했을 때 누구보다 반가와한 사람도 차민호실장이었다.

《대학때 학습방조받은 신세를 톡톡히 갚겠소.

물론… 학술적실력측면에서야 내가 현주동무를 도울만 한게 없을거구… 그밖의 모든 문제들에 한해서는 얼음우에 박밀듯 이 실장이 쪽 밀어주지, …어쩔소?…》

엇그제 수속을 마감하는 날 차민호가 한 말이였다.

《역시 부서엔 너자가 있어야겠구만.》

구석구석 깨끗이 정돈되어있는 방을 만족한 얼굴로 한참 휘돌러보고있는 차민호에게 바투 다가간 현주는 자기의 의문을 내비쳤다.

《저… 그런데 박교수선생님 말이에요. 어딘가 이상해보이던데… 무슨 일이 생겼는가요?》

차민호는 대답대신 창문결의 책상으로 머리를 돌렸다.

책 한권 없이 반반한 저 책상, 분명 현주의 눈에 익은 박교수의 자리였다.

《현주동문 언제 선생님을 만났소?》

차민호가 의아한 기색으로 물었다.

《아까 출근해서…》

《뭐? 벌써 출근하셨단 말ियो?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소? 이상해보인다는건 또 뭐요?》

호기심어린 차민호의 눈길이 현주의 입을 지켜보고있었다.

잠시 망설이던 현주는 자기의 논문소리는 빼고 박세빈교수의 이상한 표정에 대해 느낀 소감만을 이야기했다.

차민호는 그제야 리해가 되는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럴수 있지, 박선생은 지금 몸도 마음도 다 편치 않은 상태이니까.》

이상야릇한 불안감을 느끼며 현주는 다급히 물

었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차민호가 스적스적 자기 책상으로 다가가 그우에 아직까지 들고있던 가방을 올려놓았다.

《현주동무, 사실 박세빈선생의 출근은 오늘이 마지막이요.》

《예? 그건 무슨 소린지...》

《선생은 년로보장을 받았소. 수속은 다 했소.

이미 그랬어야 하는건데 참고 견디며 출근했었지. 고질적인 허리병이 다리에게까지 뻗쳐 이젠 걷기도 힘들어하오.》

원래 한번 말을 시작하면 상대방과의 교감에 신경쓰지 않고 끝까지 뱉다 말해버리는 차민호였다.

《?》

한순간 현주는 눈을 꼭 감았다.

가슴속에 뻥하니 그 어떤 공간이 생겨나는것만 같았다.

참, 얼마나 공교로운 우연인가.

교수의 허리병은 현주자신도 이미 오래전부터 잘 알고있는것이였다.

젊지도 않은 시절 산세들의 생존조건과 생태환경을 연구하기 위해 심산속을 누비다가 낭떠러지에서 굴러떨어져 다친 허리였다.

《교수선생님자신이 사직서를 냈는가요?》

현주는 산란한 마음을 다잡으며 물었다.

《그런셈이지. 우리가 권고하기도 했고 선생님자신이 불편한 몸으로 부서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는것이 미안하다며 이젠 그만 연구소를 떠나야겠다고 자주 말씀하기도 했소.》

차민호의 대답을 들으니 다시금 마음이 심란해졌다.

그러한 교수더러 집에 들어가자 말아달라고 발목을 잡을수는 없는 일이다.

어쩌면 집에 들어가자마자 병석에 누울수도 있는 교수를 찾아가 논문지도를 받는다는것은 더욱더 할수 없는 일이다.

느닷없는 외로움에 현주는 마음이 서글퍼졌다.

혹 오늘날 자신의 선택과 결심이 잘못된것은 아니었을가 하는 두려움과 당혹감이 매운 연기처럼 마음속에 떠올라있었다.

저으기 활기쁜 차민호의 목소리가 그의 상념을 깨뜨렸다.

《참, 떠나는 선생님의 걸음을 다소나마 가볍게 해줄수 있는 일이 생겼소.》

《?》

아직도 번거로운 마음을 수습하지 못한 현주는 아무말없이 차민호를 쳐다보았다.

기분좋은 때면 늘 그러듯이 차민호는 두손을 깎지껴 힘주어 주무르며 말했다.

《박세빈선생이 발기하고 선생이 주집필자가 되어 우리 부서에서 공동편찬한 〈우리 나라 조류지〉가 마침내 빛을 보게 되었던 말이요.》

《〈우리 나라 조류지〉요?》

《그렇소. 최근 수십년동안에 전지구적인 온난화와 세계적인 공해로 하여 본래의 자기 서식지를 리탈한 새들이 우리 나라에 많이 정착했다는건 현주동무도 잘 알지 않소.

조사한데 의하면 새로 80여종이 더 늘어났소.

우린 그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켜 새들의 서식과 번식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게 하는 한편 종래의 조류지에 비할바없이 혁신적이고 종합적인 조류지를 편찬해냈소.》

현주는 무척 멀리에서 들려오는듯 한 그 말을 들으면서 기계적으로 고개만 끄덕였다.

차민호는 잠시 숨을 돌리고나서 말을 이었다.

《어제 최종심의에서 통과됐소.

이제 남은건 편집과 출판뿐인데 아마 국제조류학회의 학보로 당당히 등록될거요. 심사원들의 한결 같은 의견이었으니까.》

그동안 동무들은 참 많은 일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잃어버린 지난날에 대한 아쉬움과 합쳐져 현주의 마음을 아릿하게 했다.

인츰 그것은 일종의 반발에 가까운, 전신을 뻥뻥하게 하는 분발심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이번 공동편찬에서도 박세빈선생님이 제일 수고가 많았소. 젊은 사람들과 똑같이 현지답사도 하고 밤도 함께 새우고... 요구성은 또 얼마나 높은지. 수은주 한눈금만 한 에누리도 허용하지 않았으니까.

아마 교수선생의 병세가 이번 편찬기간에 더 악화되었을거요.》

《그래요?》

조용히 반문했으나 현주의 마음속에는 전에 없었던 굳세고도 예리한 의지가 솟구쳐오르고있었다.

그렇다, 하면 된다....

나도 할수 있다.

교수선생님이 발휘한 의지와 노력의 절반만큼이라도 기울인다면...

난 반드시, 무조건 성공할거야.

현주는 호- 긴숨을 내쉬고나서 박세빈의 책상앞

으로 다가갔다.

아까 깨끗이 닦아내서 먼지 한점 없었지만 현주는 다시한번 힘주어 걸레질을 했다.

더 일하지 못하는 아픈 마음을 안고 연구소를 떠나게 된 선생님. 하지만 무척 좋은 결실을 맺은 조류지로 하여 다소나마 마음편히 떠날수 있게 된 교수선생님...

조류지, 그것은 진정 교수로 하여금 연구사로서의 한생을 아쉬움없이 마감하게 해주는 참으로 훌륭한 열매였다.

어찌보면 현주자신도 가벼운 마음으로 선생님을 배려드릴수 있게 된 다행한 계기라고 말할수도 있었다.

결심은 단단히 했으나 묵직한 중압감만은 어쩔수 없이 현주는 다시한번 긴숨을 내쉬었다.

그런데... 교수선생님은 지금 어디에 가셨을가. 아까 인차 뒤따라 들어가겠다면 현관앞에서 헤어졌는데 왜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는것일까...

#### 4

조용히 문이 열리면서 박세빈이 들어섰다.

《선생님!》

현주가 먼저 목메인 소리로 불렀다. 그 목소리는 떨리고있었다.

《선생님, 어디 가셨습니까?》

차민호가 궁금한 기색으로 물었다.

차민호의 물음에는 대답없이 그는 먼저 현주에게로 다가섰다.

《실장동무에게서 다 들은 모양이구만.》

따끈해지는 눈길을 내리깔며 현주는 입속말처럼 중얼거렸다.

《어쩌면 제가 첫 출근을 하는 날 선생님은 마지막출근을...》

《마지막... 출근이란 말이지...》 왜서인지 그 말을 뇌여보고난 교수는 조용히 말했다.

《자, 다들 앉자구.》

박세빈은 천천히 걸어가 자기 자리에 앉았다.

《어쩌겠나, 나이란 속일수 없는것이고 로쇠란 생리적인 법칙인걸. 좀더 일할수 없는것이 한스럽네.》

현주는 교수의 책상앞으로 다가섰다.

《아닙니다. 선생님, 선생님은 지난 수십년간 참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년세가 일흔을 가까이하고있지 않습니까?》

차민호가 제격 뒤를 이었다.

《웁습니다. 그 누가 보아도 선생님은 연구사업에 여한없는 한생을 바쳤습니다. 자책만은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교수의 굳어진듯 한 표정은 풀리지 않았다.

무엇때문일까. 늙은이의 상심일까, 아니면 석별의 아쉬움때문일까, 그렇지 않으면 육체의 생리적 고통때문일까...

박세빈의 표정을 주의깊게 살피던 현주는 일부러 활기던 어조로 즐거운 화제를 끌어들었다.

《참, 선생님, 그래도 선생님은 훌륭한 결실을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나라 조류지〉말입니다.》

순간...

현주는 푹푹히 보았다, 교수의 흰눈썹이 파르르 떨리고 입귀에 깊숙한 주름살이 패이는것을...

창밖의 단풍든 나무숲에서 까치가 야단스럽게 우짚었다.

잠시후 박세빈이 눈길을 들어 차민호를 바라보았다.

《실장선생, 난 지금 연구소 책임일군들을 만나고오는 걸음이요.》

어찌보면 차민호의 물음에 대한 대답인것 같으나 그 어조가 얼마나 심각하였던지 알지 못할 이상한 예감으로 하여 현주의 심장은 방망이질을 했다.

혹시 선생님이 사직을 취소한건 아닐가...

첫 순간 현주의 마음속에서는 막연한 희망과 기대, 까닭모를 불안과 위구가 한데 뒤섞여 소용돌이치고있었다.

아니, 그럴수 없어. 방금전에 분명 더 일하지 못하는것을 한스러워하지 않았는가. 내가 왜 또 이런 생각을...

현주는 저도 모르게 민망해지는 자신의 심리를 모질게 꾸짖으며 입술을 꼭 옥물었다.

현주와 차민호를 번갈아 바라보던 교수가 마침내 차민호를 향해 입을 열었다.

《실장선생, 난 〈우리 나라 조류지〉의 출판회부를 보류해줄것을 제기했소.》

《예?》

차민호의 입에서 마치도 비명같은 소리가 새어나왔다.

맑은 하늘에서 벼락이 쳤다 한들 그렇게까지 놀랄것 같지 않았다.

현주의 놀라움도 마찬가지였다.

그 귀중한 창조물을 왜 보류해달라고 제기한단 말인가.

《선생님, 그거야 이미 최종심의까지 받은 도서가 아닙니까. 그러구 모두들 손색없이 편찬되었다고 한다던데...》

아연실색해져 입을 반쯤 벌린채 굳어져있는 차민호를 대신하여 현주가 말했다.

교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각이한 수종의 나무숲에서 각이한 새들의 지저귐 소리가 다투어 울리고있었다.

《지난해와 올해에 금수산기념궁전(당시) 수목원에 남방기원계통의 희귀조류들이 나타났었다는 건 실장선생도 아는 사실이요. 중백로와 밤물까마귀가 그 대표적새들이지...》

남방기원계통의 조류란 열대, 아열대와 같은 남쪽지방을 기본서식과 번식지대로 한 새들로서 우리나라에 나타난 자료를 보면 1930년대초에 조선중부지대에 밤물까마귀가 한번 날아왔었다는 분명치 않은 기록이 있을뿐이었다.

중부이남에도 몇년만에 기껏 한번정도씩 나타나곤 했었다.

최근에는 급속히 더해가는 지구온난화와 공해현상으로 하여 생태환경이 좋은 북쪽으로, 즉 온대성중부지대로 적극적으로 침투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좋은 수림이 없으면 아무리 온화한 곳이라도 절대로 접근하지 않는 조류들이었다.

하기에 위대한 장군님의 수령영생위업이 현실로 꽃피나 나날이 율창해지는 금수산기념궁전수목원에 남방기원계통의 조류들이 날아들었다는것은 참으로 주목할만 한 희귀한 현상이었다.

하다면 그 새들을 이번에 새로 편찬한 조류지에 넣지 않은것때문에 보류를 제기했던 말인가.

그러나 현주의 짐작은 빗나간것이었다.

그사이 정신을 수습한 차민호가 교수의 다음말을 기다리지 않고 성급하게 뒤를 이었다.

《선생님, 그래서 이번 조류지에 그 새들에 대한 자료도 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서?...》

현주가 놀란것은 더 말할것도 없었다.

그렇다면 무엇때문에?...

창가에서 돌아선 박세빈이 왜서인지 차민호를 외면하고 현주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물론 넣었지. 그런데 바로 그것이 우리의 잘

못이었어.》

《?》

《?》

두사람은 말없이 서있기만 하였다.

《혹독하게 분석하면 우린 진실을 쓰지 않았소... 중백로와 밤물까마귀는 아직은 우리 나라 조류가 아니요. 왜서인가... 한계절을 타고 날아왔었을뿐이지 자기의 서식지로 정한것은 아니거던.》

현주는 가슴이 서늘해지는것을 느끼며 마른침을 꿀작 삼켰다.

《위대한 장군님의 수령영생위업의 크나큰 구상에 의해 금수산기념궁전수목원이 마련된지도 10여년이 지났소. 그 기간에 참으로 많은 조류들과 야생동물들이 수목원을 찾아왔지.

오늘은 남방기원계통의 희귀조류들까지 부러워 넘겨다보고있소. 그런데 아직은...》

《미안합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중단시켜서...》

현주가 급히 입을 열었다.

교수가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현주를 마주보았다.

《그렇다고 하여... 설마하니 선생님은 중백로와 밤물까마귀를 조류지에서 빼자는건 아니겠지요? 그렇다면 무슨 생각으로?...》

미소지은 얼굴로 현주를 바라보던 교수는 차민호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실장동무, 난 중백로나 밤물까마귀와 같은 희귀조류들이 우리 수목원에 완전히 깃들이고 자기의 보급자리를 편 다음에 조류지를 완성하자고 제기했소.》

명하니 교수를 바라보던 차민호가 안타까운 어조로 말했다.

《그게 과연 언제입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말입니다.》

교수는 빙그레 웃었다.

《기다려서는 안되지. 우리가 연구를 더 심화시켜 그것들의 생존과 생태에 맞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하요.》

《선생님, 그거야 우리가 할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본분이야 조류연구가 아닙니까?》

차민호가 불만이 력력한 어조로 하는 말이였다.

교수가 근엄한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실장동무, 내 나라를 아름답게 하고 내 나라의 재부를 창조하는 일에 어떻게 네일내일이 따로 있을수 있겠나. 그가 누구든, 어디에서 무엇

을 하든 스스로 주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말이요. ...

난 언젠가 현지에 나갔다가 참 많은걸 생각해 하는 광경을 목격했소.

글쎄 동발목을 받으러온 탄부들이 림지에 도착하자마자 먼저 산에 올라가 나무부터 심더라 말이요.》

교수는 긴숨을 한번 내쉬고나서 다시 차민호를 마주보았다.

《실장동무, 난 연구소당위원회에 제기했소. 연구소는 그만두었지만 연구사업은 계속하겠다고 말이요. 그러고보면 오늘이 나의 마지막출근날은 아닌셈이지.

이제부터 나의 일터는 금수산기념궁전수목원이고 나의 연구과제는 중백로와 밤물까마귀를 그 누구도 부인할수 없는 우리 나라 조류로 정착시키는 것이요.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그 책에는 직업적의 무감은 있어도 진정 깨끗한 량심은 깃들지 못했소.》

현주는 눈을 꼭 감았다.

언제인가 자기 논문의 부족점을 지적하였던 교수의 글줄이 떠올랐다.

현실에 부합되는 구체적인 과학적론거를 위해 그 자신이 온 나라의 방방곡곡을 다시한번 편답해보고 높은 산, 험한 령을 수없이 넘어야 했다.

그러나 녀성이라는 나약한 론거를 앞세우며 그 힘겨운 걸음을 내질지 못하고 지난날의 낡은 자료와 경험, 기성의 리론들에 매달려 순수 학위를 위한 논문을 내놓을수밖에 없었던것이였다.

문득 현주는 소스라치는듯 한 놀라움속에 눈을 번쩍 떴다.

과연 그것이 리유의 전부였던 말인가.

자신이 녀성이라는 론거?... 학위를 갈망하여 조급해진 심리?...

자신을 무섭게 채찍질하며 아프게 저려드는 마음속에 다시금 교수의 목소리가 울리고있었다.

《...진정 깨끗한 량심은 깃들지 못했소.》

...

바로 그것이였다.

자신의 심장속에서는 그러한 뜨겁고 열렬한 지향이 불타고있지 않았었다.

그래서 진정한 창조물이 태어날수가 없었던것이였다.

가슴아픈 회오와 자책과 함께 현주는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새롭고도 열렬한 감정을 맛보고 있었다.

《교수선생님!》 현주는 목메인 소리로 불렀다.

차민호도 마음속 깨달음과 감동이 력력한 표정으로 교수를 바라보고있었다.

잠시후 현주와 박세빈은 단풍든 나무숲이 설레이는 연구소구내길에 나섰다.

구름 한점 없이 맑고 깨끗한 가을하늘에서 햇빛이 눈부시게 쏟아져내리고있었다.

《선생님, 절 꾸짖어주십시오. 전 정말이지... 리기적이고... 량심없는...》 현주는 말끝을 채 맺지 못했다.

눈곱에 뜨거운 물기가 슬며시 고여올랐다.

박세빈이 현주의 손을 가볍게 잡아쥐었다.

《현주!》

교수는 잠시 말없이 현주를 정면으로 마주보았다.

한없이 웅심깊고 빛나는 눈빛이였다.

거기에는 로쇠도, 병마의 고통도 비껴있지 않았다.

굳세고 강의한 의지가 그 눈빛속에서 불타고있었다.

《현주, 난 이렇게 생각하네. 이 땅에 태를 묻고 사는 매 사람들의 창조물들에 가장 깨끗하고 진실한 애국심이 깃들어야만 그것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참된 재부로 될수 있다고 말일세.》

교수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벧쫑 쪼르릉... 비-비-삐찌, 삐찌-찌...

단풍든 숲속에서 청고운 새소리가 유정하게 울리고있었다.

그우엔 티없이 맑고 깨끗한 하늘이 펼쳐지고...

교수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우리 함께 힘을 합쳐 그 논문을 꼭 완성하자구. 학문과 실력을 담기 전에 저 하늘처럼, 이 공기처럼 깨끗하고 순결한 애국심을 담아서 논문을 훌륭하게 완성하자구.》

《교수선생님!》

×

그때로부터 세월은 다시금 여러해의 년륜을 수놓았다.

해마다 봄과 가을에 남편과 함께 심어 무성해진 화력발전소구내의 나무들에 갇가지 새들이 둥지를 틀고 즐거운 노래를 부르는 좋은 계절에, 사연많은



조류지도 출판을 눈앞에 둔 뜻깊은 때에 현주는 박사의 학위를 수여받았다.

그날 남편은 시간을 내어 수여식장앞에까지 와서 기다리고있다가 안해를 맞아주었다.

현주가 내미는 박사증을 이속토록 바라보던 남편은 안해의 손을 꼭 움켜잡았다.

《여보, 이 박사증을 보니 박세빈선생이 생각나누만. 얼마나 기뻐하겠소.》

교수가 연구소를 떠나가던 그날 저녁에 현주의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감동에 젖었던 남편이었다.

그날부터 지금까지 기회가 생길 때마다 안해와 함께 수목원에 나가 교수를 도와온 그였다.

그들은 어깨나란히 수목원으로 향했다.

합장강어구에 이르자 짙은 록음이 자아내는 신선한 공기가 폐부깊이 흘러들었다.

어서 오라 부르는듯 수목원의 울창한 숲에서 흰새들이 너울너울 깃을 치며 날아오고있었다.

금수산태양궁전수목원에 영원히 자기의 정든 요람을 꾸민 아름다운 중백로들이었다.

푸른 하늘과 푸른 숲사이에 한폭의 그림을 수놓으며 즐거이 날아에는 아름다운 흰새들...

얼마전 논문집필을 끝내고 교수의 집을 찾았을 때의 일이 현주의 눈앞에 삼삼히 떠올랐다.

남방기원계통조류에 가장 적합한 먹이인 개구리 서식을 위해 수년간 아글타글 애써온 교수, 수천마리의 개구리가 좋아라 물장구를 치는 아담한 서식장으로 제나름의 속구구를 안고 찾아오는 무역일군들을 단마디로 《문전박대》하여 쫓아버린다고 웃으며 말하던 교수의 부인...

《글쎄, 그 령감 개구리가 아무리 귀한들... 제 손주보다 더 귀애하니 원, 참...》

어조는 푸념같으나 기꺼운 진정이 숨배인 말이였다.

해마다 그 개구리를 1만여마리씩 길러 수목원에 놓아준 그 노력속에 부인의 지성도 적지 않게 깃들여있음을 너무도 잘 알고있는 현주였다.

어쩌면 무심한 저 새들도 뜨거운 사랑과 정으로 충만된 인간의 마음을 온 세상에 전하고싶어 저렇듯 끝없이 날아오고있는지도 모른다.

《아, 이거 현주네가 아닌가?》

등뒤에서 들려오는 석싹한 목소리.

놀라 돌아보니 어깨에 삼을 둘러멘 교수가 싱글벙글 웃으며 다가오고있었다.

《선생님!》

만났다 헤어진지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무척이나 오랜만의 상봉인듯 서로 반가와하는 그들이였다.

그새 교수의 얼굴은 더 그슬려지고 이마의 주름고랑도 더 깊어진듯싶었다.

하지만 생의 보람과 희열에 넘쳐 더욱 젊어진듯한 모습이었다.

《선생님, 이젠 새들이 날아들었는데 좀 쉬셔야하지 않겠습니까.》

현주가 꼭진한 어조로 말하자 교수는 갑자기 두 사람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환희에 넘쳐 말했다.

《참, 기쁜 일이 생겼네. 기쁜 일이...》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해진 두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교수는 성급히 말을 이었다.

《오늘 새벽 이름모를 새 다섯마리가 또 나타났다. 가만히 관찰해보니 역시 남방기원계통새들이더군.

그놈들도 여기로 이사오고파 정찰온게 분명해. 허허허. 이 땅이 좋아서 찾아든 새들인데 보금자리를 잘 꾸며줘야지? 온 세상 새들이 다 찾아오게 말아야.》

와아— 나무잎을 흔들며 바람이 불어온다.

복반은 새들의 지저귂소리가 흥분된 가슴들을 흔들어놓는다.

그러니 교수의 출근길은 끝나지 않은것이다.

샘물처럼 깨끗하고 순결한 그 애국의 한생에는 정녕 마지막출근이란 없을것이다.

현주는 만시름을 다 잊고 환히 웃는 교수를 바라보고나서 남편에게로 눈길을 돌렸다.

(여보, 언제면. 난 언제면...)

그 마음을 읽은듯 남편은 눈을 습벅이며 머리를 끄덕였다.

현주가 내민 박사증을 보물처럼 받아들고 마치도 처음보는 물건인듯 보고 또 보던 교수가 싱긋이 웃으며 남편을 돌아보았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다.

《기쁘겠구만.》

《예... 정말 기쁩니다. 이 박사증보다 오늘처럼 달라진 우리 집사람을 보는것이 더 기쁩니다.

그리고보면 난 참 색시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마나!》

현주는 기쁘고 행복한 웃음을 지었다.

《그래, 색시복이 있지. 그런데 내 보기엔 현주의 남편복이 더 큰것 같구만. 응?》

# 평양사람의 긍지로!

황 명 성

해맞이 대동강반  
봄빛 물든 통라도 푸른 기슭에 서서  
선경의 창전거리며 문수물놀이장을  
내 눈시울 뜨거이 안아보며  
걱정으로 설레는 가슴 달랠수 없구나

감회깊은 추억들을 불러  
격전장을 방불케 하던 그날에 서보는 마음  
밤하늘 태우던 용접의 불보라 눈에 어리어  
언 땅을 파헤치던 굴착기의 동음 귀전에 울리어  
내 한껏 소리높이 웨치고싶구나

나는 건설자 평양사람  
해뜨고 별이 돋는 낮과 밤이 따로 없었다  
겨울의 추운 계절도 모르고 지났다  
당의 부름에 물불을 가리랴!  
백날천날맛잡이로 래일을 앞당기며  
내 삶의 위훈으로 떨치던 건설의 나날들...

성실한 로동의 피와 땀만이 아니었다  
기초의 암반에 혼합물과 함께 다진것  
기둥의 휘틀에 철근과 함께 엮은것  
원수님의 문명강국건설의 설계도  
불멸의 그 작전도우에  
결사옹위의 녀를 목숨으로 새겼기에  
결사관철의 정신을 피가 뛰는 삶으로 정했기에

단숨에!

그 기상으로 땅을 박차고 솟아올랐다  
아름다운 강반에 닻을 내린  
교육자들의 살림집 행복의 보금자리  
육아원 애육원 아이들의 왕궁이  
우리가 잘되지 않기를 바라는  
제국주의악마들의 기를 눌러버리며  
인민사랑 후대사랑의 화원을 펼쳤나니

나는 본다 평양사람의 긍지로  
여기 유서깊은 대동강기슭에  
꿈처럼 황홀히 눈부시게 솟아나는  
미래과학자거리며  
쑥섬을 짝 채우는 과학기술전당

우리는 안고가리라  
탄길을 모르고 오직 한길 곧바로  
원수님의 의지와 리상으로  
문명강국을 향해 질풍치며 노도치며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쫓피우는 이 길이  
우리 인생의 목표이고  
우리 투쟁의 보람이기에

오, 달리는 살수 없는 평양사람  
원수님의 숨결이고 진군의 보폭인  
평양정신 평양속도의 발구름높이  
최후승리 총공격의 앞장에서 달려가리라  
거창한 선군시대의 대기념비들을 일떠세우고  
경사로운 10월의 경축광장에 들어서리라!

두사람의 가운데 선 교수가 즐겁게 웃으며 말했다.

《하하하.》

《호호호.》

높고 푸른 하늘가에 세사람의 웃음소리가 랑랑  
히 울려퍼졌다.

그길로 세사람은 금수산태양궁전광장으로 향

했다.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의 숭고한 도덕의리심에  
떠받들려 태양의 성지로 더 높이 솟아오른 궁전광  
장에서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리었다.

가없이 맑고 푸른 내 나라의 하늘에서 태양은 찬  
란한 빛을 한껏 뿌리고있었다.

## 네명의 대대

레오네드 쏘볼레브

서진혁 역

전투는 미하일 네그레바의 락하로 시작되었다.  
락하직전에 네그레바는 전우들을 비집고 비행기  
출구쪽으로 다가갔다.

첫 락하여서 속이 좀 떨리기도 했다.

네그레바는 어둠속에서 퍼그나 많이 산을 펼치  
지 않고 락하한 다음에야 락하산고리를 잡아당기리  
라 결심하였다.

혹시 비행기꼬리에 락하산이 걸리지나 않을까 하  
는 걱정이 가슴을 조였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락하산은 순조롭게 펼쳐졌다.

네그레바가 린접에서 락하하는 자기의 친구 꼬롤  
료브를 볼수 있었더라면 이렇게 말했을것이다.

《여하튼 우리 뜻대로 되었구만!》

두주일전에 쉼바스포뿔에서 지원병락하산부대가  
편성되었다.

꼬롤료브와 네그레바는 물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들을 담화하던 군관이 이전에 락하훈련을 해  
보았느냐는 물음에 두 랑만주의자는 거침없이 대  
답하였다.

《물론입니다. 항공구락부에서 일곱번이나 락하  
해보았습니다.》

담화군관의 믿음을 얻기 위해 스무번을 락하해보  
았다고 대답할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대답했다라면 틀림없이 그들을 혼  
련지도원으로 임명했을것이며 그들은 자기들의 경  
솔한 대답에 후회막급하였을것이다.

그들이 처음으로 락하산을 받아들였을 때 그 신  
비스러운 물건을 한동안이나 뒤적거리지 않을수 없  
었다.

마치도 제대로 접어 개지 못한것을 자기들의 경  
험에 비추어 나무람하는척 하면서 남들이 그것을  
어떻게 착용하며 결박하는 어떻게 조이는지 눈동냥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럭저럭 그 모든것을 눈에 익혔고 오늘은 네그  
레바가 어두운 밤하늘을 날수 있게끔 된것이였다.  
어느덧 그들은 적들의 포화력이 미치는 상공에 이  
르렀다.

내려다보이는 오데싸주변은 온통 일제사격의 화  
광에 휩싸여있었고 바다에서는 해군륙전대의 상륙  
을 엄호하는 함포사격이 진행되고있었다.

후방에서 날아오는 이 락하산병들은 바로 그 해  
군륙전대와 합세해야 했다.

도시는 그 어디나 피빛불길이 기승을 부리며 어  
둠을 밀어던졌건만 그들이 착륙해야 할 지점은 먹  
물을 뿌린듯이 캄캄하기만 하였다.

그러던것이 잠시후에는 그곳에서도 불꽃들이 반  
짝이기 시작하였다.

마치도 그것은 함선갑판에서 여러 사람들이 급  
히 빨며 번쩍이는 담배불을 마스트에서 내려다보는  
듯 한 느낌이었다.

여기가 바로 전선이었다.

그 전선을 넘어 적후에 착륙해야 했다.

네그레바는 배운대로 락하산줄을 당겨 전투장을  
향해 사선으로 비스듬히 락하였다.

그런데 착지하고보니 전투장에서 너무 먼곳에 내  
렸다. 그리하여 어둠속에서 기여가기 시작하였으나  
거의 한시간이 되도록 개미 한마리 얼씬하지 않았  
다. 그러던것이 갑자기 무엇인가 그의 목을 톡 치  
는 느낌이 들어 그는 단검으로 보이지 않는 적수를  
힘껏 타격하였지만 손은 허공을 그리였다. 더듬어  
보니 통신선이 목을 스친것이였다.

네그레바는 배낭에서 뺨찌를 꺼내어 통신선을 몇  
군데 자르면서 계속 기여갔다.

통신선을 따라가면 적진에 가닿을수 있고 적진에  
가닿으면 자동총화력으로 적들에게 굉장한 혼란을  
일으킬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그의 뇌리를 쳤다.

한시간남짓이 기여가니 통신선이 키높은 떨기나  
무덤불이 끝나는 곳에 이르렀다.

새벽의 미명속에서 네그레바는 세필의 말과 보조  
병을 발견하였다.

말들이 인기척을 느끼고 투레질을 시작하자 네그  
레바는 말투레질이 멎을 때까지 오래동안 숨을 죽  
이고 었디여있어야만 하였다.

그동안 네그레바는 주위를 살펴보면서 보조병의  
말을 타고 마을로 질주하면서 기관단총사격을 퍼부  
을수 있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왼손에는 기관단총을, 오른손에는 단검을  
잡고 은밀히 보조병을 향하여 기여갔다.

그런데 갑자기 오른팔이 구멍이에 빠지면서 무엇  
인지 부드러운것이 피부에 닿았다.

흠칫 놀란 그는 그 자리에 굳어진채 바짝 긴장되

여 귀를 강구었다.

어딘가 땅속에서 웅글은 말소리가 들려왔던 것이다. 알고보니 그 부드러운 물건은 갱도의 환기구멍을 막아놓은 모포였고 그 환기구멍으로부터 도이취 말소리며 구두징소리, 타자기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다. 네그레바는 단점으로 조심스레 모포를 찢어 갱도안을 들여다보았다.

아마도 대대나련대의 참모부인듯 장교들이 탁상에 펼쳐놓은 지도둘레에 빙 둘러서있는 것이 보였다. 오래동안 면도를 하지 않아 코수염이 시꺼멓게 자란 중년의 장교가 성급하게 지도의 어느 지점을 가리키고있었다.

구석쪽에는 교환수들이 무릎을 꿇고있었는데 그들중 한명이 누군가를 찾자 장교가 그에게 다가가 송수화기를 들고 무엇이라고 소리치기 시작하였다.

그 소리를 들으며 네그레바는 수류탄을 꺼내들었다.

수류탄 한개로는 부족하겠다고 생각되어 수류탄 세개를 꺼내어 하나로 묶었다.

그가 수류탄묶음을 환기구멍안으로 막 던져넣으려는데 다급한 말발굽소리가 들려왔다.

두명의 말탄 장교가 갱도를 향해 달려오고있었다. 네그레바는 수류탄묶음을 그대로 손에 쥔채 그들을 통과시키고는 자기의 처사에 만족을 느끼었다, 죽어야 할 놈이 또 늘었으니까.

갱도안의 장교들이 긴장하여 차렷자세를 취한것으로 보아 방금 들어선 두놈중에 한놈은 고위급의 상관인듯싶었다.

네그레바는 수류탄묶음을 환기구멍안으로 던져넣고 재빨리 잡초덤불속으로 굴러내려갔다.

순간 보초병의 웨침소리가 들려왔으나 뒤이어 갱도안에서 폭음이 울리고 보초병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져버렸다.

얼마후 네그레바가 적들의 전호를 지나 적후에 들어갔을 때는 벌써 날이 푸름푸름 밝을무렵이었다. 그는 건초더미속에 엎드려서 기회를 엿보기 시작하였다.

이때 기마병 한놈이 말의 목덜미에 머리를 바싹 가져다대고 주위를 살피며 패속으로 질주해오고있었다. 무척 조심스러운 놈 같았다.

네그레바가 기마병놈을 조준하는 순간에 어디선가 가까이에서 런발사격이 가해지고 기마병놈은 마침내 말에서 떨어져 나당굴었다.

아군락하산병이 자기가 가까이에 있다고 생각한 네그레바는 무척 기뻐했다.

적후에서 듣게 된 기관단총소리는 자기를 찾는 전우의 목소리마냥 반가웠던것이다.

네그레바는 기관단총소리가 울린 얼마 멀지 않은 떨기나무숲속으로 한치한치 기여갔다.

그런데 갑자기 떨기나무숲변뒤리로 박격포탄이 연이어 날아가 터지기 시작했고 기관단총이 숨을

죽이였다.

때를 같이하여 저쪽 좁은 골짜기에서 적들이 나타나더니 아군락하산병이 있는 떨기나무숲에 일제히 총을 쏘아댔다.

네그레바의 성난 총이 불을 뿜기 시작했다.

그의 총에 맞아 몇놈이 쓰러지자 나머지놈들은 황황히 뺄소니치고말았다.

이제는 멀리서 이따금 총소리가 들려올뿐 사위는 조용해졌다.

네그레바는 다시 떨기나무숲으로 기여갔다. 그는 거기서 박격포탄의 파편에 부상당하여 쓰러져있는 레온찌예브를 찾아냈다.

네그레바가 그를 부축하자 레온찌예브는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미하일, 총으로 나를 쏘아주게. 나는 살... 살아...서 전선을 넘어 돌...아갈수 없네...》

밀랍같이 창백해진 그의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네그레바는 모든것을 깨달았다.

자기 혼자서는 그를 업고 전선을 넘어갈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를 여기에 남겨두고 혼자 갈수도 없으며 더우기 그의 말대로 전우를 쏠수도 없었다.

결국 이 떨기나무숲속에서 모든것이 결정되어야 했다. 네그레바는 뒤늦게야 온 자신을 꾸짖었다.

(몸이 성하고 기력이 왕성한 내가 이미전에 여기로 와 레온찌예브를 구원해야 했어.)

이런 때 고무적인 말을 해야했는데 신통한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네그레바는 어느때처럼 ऐसा롭게 말했다.

《이것 보게, 우선 봉대를 감고 급한 고비를 넘기자구. ... 두사람이니 외롭지 않을거네.》

그가 부상자의 상처를 처매주는데 봉대꾸레미 두개가 다 들었다.

봉대를 감아주자 레온찌예브는 상처의 동통이 덜어진 모양인지 한결 편안해했다.

네그레바는 그의 손에 기관단총을 꼭 쥐여주며 위로하였다.

《단검을 놓고 이걸 잡게. 방아쇠를 당기기만 하면 될게 아닌가. 맥을 놓지 말라구. 아군이 가까이 왔네.》

그의 말을 증명해주듯 적들의 전호 건너편에서 맹렬한 총소리가 하늘땅에 맞붙으며 들려왔다.

아군의 육전련대가 적들을 공격하는 소리가 분명했다. 하지만 그 공격은 두 락하산병들을 더욱 어려운 처지에 빠지게 할수 있었다.

왜냐면 아군의 드센 공격앞에서 적들이 퇴각하는 경우 그들이 있는 이 떨기나무숲이 바로 놈들의 퇴각로로 되기때문이었다.

그런즉 그에 대처할 준비를 해야 했다.

네그레바는 자기앞에 수류탄들과 기관단총 예비탄창을 꺼내놓고 레온찌예브에게 물었다.

《자네 수류탄이 있지?》

《있네, 세알이나 있지. 수류탄은 주겠네만 예비 탄창은 못 주겠네. 나도 쓸수 있으니까... 미하일, 적들이 몰려오기 전에 준비해야지?》

《물론이지.》

네그레바가 웃으며 대답하는 순간에도 격전의 시각은 한치한치 다가오고있었다.

적아간의 총소리는 점점 그들에게로 바싹바싹 다가왔다.

벌써 해살이 퍼지고 땅우에서는 파스하고 싱그러운 풀냄새가 풍겨왔다.

그들은 자기들의 마지막격전과 최후를 기다리는 이 순간이 괴로웠다.

사방을 둘러보니 그들의 옆으로 300미터가량 떨어진 곳에 있는 깊은 골짜기가 보였다.

거기라면 적을 익측으로 타격하기가 제격일것 같았다. 하지만 거기까지 부상자를 업고 갈수가 없었다.

네그레바는 이제 곧 적들이 나타날 정면골짜기를 바라보았다.

그는 어서빨리 놈들이 나타나기를 바랐다.

더이상 기다리기가 고통스러웠던것이다.

레온찌예브를 이 떨기나무숲속에 숨겨놓고 자기 혼자서라도 저 골짜기로 기여가서 퇴각하는 적들을 쓸어눌히고싶었다.

그때 뜻밖에도 레온찌예브가 말하였다.

《아군이 우리뒤에도 있네. 저 총소리가 들리지 않나?》

기관단총소리가 간간이 울려오지만 아군이라고 믿기에는 어려웠다.

그러나 레온찌예브는 전선감각으로 확신있게 말했다.

《틀림없어. 가만...》

귀를 강구던 레온찌예브가 몸을 뒤척이며 낮고 갈린 목소리로 웨쳤다.

《해병들!... 여기로!...》

네그레바의 눈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레온찌예브의 행동이 그에게는 전투충격으로 인한 후가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미치었다.

《자네 분명 해병들을 보았나?》

《틀림없어. 우리 줄말(해병)들이야.》

이때 놀랍게도 저편 떨기나무숲사이로 검은 해병모가 눈에 띄었다. 그결에 또 하나의 해병모가 보였다.

레온찌예브는 가까스로 허리를 펴며 손을 흔들면서 소리쳤다.

《해병들!... 빼레렐리짜.》

그의 웨침소리를 듣고 두 락하산해병이 떨기나무숲속으로 달려왔다.

빼레렐리짜와 꼬찌꼬브였다.

그들이 달려와 떨기나무밑에 엎드리자 네그레바는 퇴각해오는 적들을 익측에서 타격하자는 자기로서의 방안을 제기하였다.

《여기는 진지로서는 적합치 않소. 내가 엄호할테니 동무들은 레온찌예브를 후송하오.》

꼬찌꼬브와 빼레렐리짜가 부상병을 부축할 때 적진에서 총성이 울리더니 적들이 달려들었다.

그들은 적들을 보기 좋게 답새기고나서 골짜기로 내려갔다.

그런데 뜻밖에도 골짜기에서 또 한명의 락하산병리뎀첸코를 만났다.

자기앞에 수류탄을 무독히 쌓아놓고 엎디어있던 리뎀첸코가 너무 기쁜 나머지 몸을 벌떡 일으키며 전우들을 포옹했다.

《난 여기서 결사전을 할 결심이였네. 이젠 식구가 불었으니 숨이 나가누만. 내가 적을 칠테니 동무들은 쉼세기나 하오.》

리뎀첸코가 으쓱하여 말할 때 부상병 레온찌예브를 찾는 네그레바의 다급한 목소리가 울렸다.

레온찌예브가 그만 의식을 잃었던것이다.

잠전에 네그레바가 처매준 봉대에 피가 질벅하게 내배여있었다.

네그레바는 레온찌예브를 흔들며 말했다.

《이것 보라구. 레온찌예브, 이제는 우리가 몇명이나 되는가. 우린 꼭 전선을 넘어갈수 있네.》

레온찌예브는 대답없이 눈을 반쯤 떴다 감을뿐이었다.

이때 적들의 동정을 살피고있던 빼레렐리짜가 낮은 소리로 웨쳤다.

《저결 보게, 적들이 퇴각하고있네.》

아닌게아니라 방금전까지 그들이 있던 떨기나무숲쪽으로 적들이 달려가고있는것이 보였다.

《친구들, 저놈들을 좀 도와주는게 어떨가?... 런발사격이 아니라 조준사격으로 말이야.》

네그레바가 이렇게 말하며 팔소매를 걷어올리더니 권총을 휘두르고있는 적장교놈을 겨우러뜨렸다. 골짜기에 있던 다른 동무들은 적들을 익측에서 조려냈다.

그들이 몇명 안된다는것을 알아차린 적들은 미친듯이 총을 쏘아대며 달려들었다.

네그레바의 조준사격이 런발사격으로 바뀌었다.

그야말로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다.

그들은 적의 공격을 두차례나 물리쳤다.

적들은 골짜기에 술한 시체들을 남겨놓은채 물러갔다.

빼레렐리짜는 전투장을 둘러보고나서 조용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이제 린집에 있는 적들이 또 올거요. 그런데 탄약이 얼마 남지 않았소.》

이때 네그레바가 다른 골짜기로 이동하여 퇴각해오는 적들을 다시 익측에서 치자고 말하였다.

그러다가 부상당한 레온찌예브를 보는 순간 자기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잠시후 네그레바가 침묵을 깨며 말했다.



《어찌겠소. 아마도 여기서 싸워야 할것 같소. 총알은 전선을 돌파할 때 썬야 하니 아껴야 할게요. 접근해오는 놈들에게는 수류탄을 먹입니다.》

이때 레온찌예브의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베레벨리짜가 네그레바에게 해군사프를 던져주며 말했다.

《자네 줄말을 부러워했지. 이걸 입으라구. 공짜 주는건 아니야. 전투가 끝나면 벗어줘야 하네. 꼭 자네 손으로 말이야.》

《물론이지.》

이어 베레벨리짜와 네그레바는 힘껏 포옹했다.

이윽고 적들이 골짜기로 파도처럼 밀려왔다.

적들은 은밀히 산개대형으로 약진하면서 그들에게로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있었다.

백여명은 실히 잘돼보였다. 이제는 땀에 젖고 공포에 이지러지고 수염이 텅수룩한 낮짜마저 가려볼 정도였다.

좀더 가까이 다가온 놈들에게서는 역한 땀냄새까지 풍겨왔다.

적들은 일제히 골짜기로 달려들었다.

이때 해군사프를 입은 네그레바가 왼손에는 기관단총을 쥐고 오른손에는 수류탄을 들고 적들을 맞아나갔다.

《이놈들아, 이 해병아저씨의 선물을 받아라!》

그가 내던진 세알의 수류탄이 켜이어 골짜기로 날아갔다.

폭음이 울리고 적들이 무리로 쓰러졌다.

비칠거리며 옆으로 달아나는 놈들도 있었다.

잠시후에 네개의 수류탄이 또다시 날아가 터지고 돌파구가 열렸다.

그러자 베레벨리짜가 웅쳤다.

《네그레바, 둘다! 레온찌예브를 데리고!》

그의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그들은 한손에는 총을 잡고 다른 팔로는 부상병을 끼고 돌파구로 달려나갔다.

레온찌예브는 질풍같이 달려나가는 바람에 심한 동통을 참느라 이를 악물었다.

그들이 적진의 한복판을 통과하였을 때 추격해오는 적들을 발견한 레온찌예브가 베레벨리짜에게 애원하였다.

《나를 내려놓소. 내려놓고 가오.》

그러나 베레벨리짜는 줄곧 달려나가면서 그를 꾸짖었다.

레온찌예브는 입을 다물수밖에 없었다.

그러는 동안 적들이 바싹 꼬리를 물고 따라왔다.

수적으로 우세한 적들은 불과 다섯명밖에 안되는 그들의 형편을 간파하고 사로잡으려고 작정한것 같았다.

마침내 키작다리 적병 한놈이 베레벨리짜에게 달려들어 총창으로 찌르려는 순간에 레온찌예브를 들쳐업고 뛰어가던 꼬찌꼬브가 그를 내려놓고 적병놈

의 뒤통수를 쏘았다.

그러자 또 다른 놈이 달려들었다.

베레벨리짜는 쓰러진 놈의 총을 재빨리 집어들고 총창으로 달려드는 적병 세놈을 켜이어 무찌르고는 허리에 찌던 수류탄을 뽑아 뒤따르는 놈들의 한복판에 던졌다.

잠시후에 수류탄벼락을 면한 놈들이 었디여 총을 쏘아대기 시작했다.

적탄알이 해병들의 귀전을 스치며 울부짖었다.

그때 베레벨리짜가 땅우에 었디며 웅쳤다.

《둘이서 부상병을 호송하오. 내가 꼬찌꼬브와 함께 적을 견제하겠소.》

풀숲에 었디여 적들에게 총탄을 날리던 네그레바와 리뚱첸꼬가 포복전진으로 레온찌예브를 끌며 나갔다.

베레벨리짜는 꼬찌꼬브와 함께 그들 뒤로 기여가면서 정확한 단발사격으로 적들을 쏘아눴다.

이윽고 적들은 더이상 그들을 추격하지 못하고 서둘러 퇴각하였다.

앞에 아군이 있는것이 분명하였다.

그들이 얼마간 더 전진해나가니 뜻밖에도 텅 빈 적의 전호가 나졌다.

그안에 들어선 다음에야 비로소 그들은 꼬찌꼬브가 한쪽팔에 판통상을 입었고 베레벨리짜는 넓적다리에 두발의 탄알을 맞았으며 리뚱첸꼬 역시 총상을 입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모두 군복을 벗어두고 그것을 찢어내어 상처들을 싸맸다.

적들은 이미 저 멀리 떨기나무숲속으로 사라진 뒤였다.

그들은 레온찌예브를 전호에 편안하게 눕혀놓고 물을 떠다 입술도 추겨주고 얼굴도 닦아주었다.

그리고 그의 곁에 전호에서 얻은 자동총과 수류탄들을 놓아주었다.

레온찌예브는 그러는 그들을 보면서 맥없이 미소를 지었다.

눈물이 글썽한 그의 두눈이 입으로는 다 할수 없는 많은 말을 하고있었다.

네그레바는 어쩐지 레온찌예브에게 죄스러운감을 느꼈다.

그는 일어서서 어딘가 툭한 어조로 말하였다.

《량해하게. 우리가 자벌 거칠게 다루었어. 더이상 고통을 주지 않겠네. 이제 곧 담가를 보내주지. 지금 당장 아군을 찾아서 말이네.》

네사람이 약속이나 한듯 허리를 쭉 펴고 일어섰다.

옷은 온통 피투성이가 되었고 봉대대신 군복을 찢어 상처를 치렀으나 억센 기상은 금시라도 수백명의 적들이 육질거리는 적진을 뚫고 또다시 진격할수 있다는 각오로 충만되어있었다.

그들자신도 자기들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사실에 자못 놀라움을 금치 못해하였다.

## 오, 통분하구나

김택영(1850-1927)

최홍록 역

우리 나라 《합병》의 재앙은 경술(1910)년 7월 25일(음력)에 있었다. 그 비통한 소식을 듣고 나는 애통한 심정을 누를 길 없어 상복을 지어 사흘간 몽상을 입었으나 그 울분을 풀수 없었다. 그래서 한편의 시를 지었는데 그 제목은 《오, 통분하구나》라고 하였다. 그 시는 다음과 같다.

오, 통분하구나!  
동서남북 둘러보아도  
짓밟히지 않은 땅 없으랴  
내 어이 살아가랴  
이 땅은 아득한 옛적부터 오늘까지  
태평시절 보냈건만  
내 어이하여 이런 때를 당하느뇨  
하늘을 불러 물어보아도  
하늘은 입다물고 말이 없구나  
오, 하늘은 묵묵히 나에게 대답없으랴

가슴헤치고 진실을 터놓거늘  
이 세상에서 오직 우리만 순박했더냐  
저저마다 나라지켜 백성을 편안케 하려고  
신분의 높고낮음 묻지 않았건만  
허나 저 사대부들 술의 빛갈과 주정만 론하다가  
끝끝내 나라를 빼앗겼구나  
황포한 범과 이리떼 미친듯 달려들건만  
긴창이 짧다고 걱정하고  
광활한 령토 좁다고 근심만 하누나

슬프구나 이 나라가 그리도 작다더냐  
이럴적엔 재능이 무슨 소용이라  
세상을 등지고 스스로 재앙 피하누나  
나라위해 내 무엇을 할수 있다더냐  
이 몸은 조롱속에 갇힌 신세이거늘

어찌 그렇게 말하랴  
충신은 심심산골에서 종노릇해도  
나라의 운명두고 심신 다 바치거늘  
하늘이 낸 영웅은  
살수에서 횡포한 외적을 몽땅 수장시켰고

바다건너 쪽발이들 거북선에 뱃을 잃었으랴

오, 통분하구나 슬프구나  
나라가 망하여 이 지경 되었으니  
그 누가 우리 임금의 치욕 씻으려  
사나운 범을 맞받아 제 목숨 바치랴  
이 몸도 하나의 고기덩이 불과하거늘  
내 어찌 하찮은 목숨 구걸하며  
잔명을 부지한단 말인가

오, 오늘의 세계는 너무도 불공평하구나  
공정하게 법을 지켜 따져보면  
마땅히 저절로 살아갈수 있거늘  
비록 힘이 약해 국권이 상실되었으나  
그 어찌 우리 임금 어질지 못한탓이라  
이는 하늘의 의사가 아니다  
간교한 외세에게 몰락된것이리

악귀같은 만행 겹쳐치우랴  
동풍이 용을 쓰며 몰아치누나  
바다가 폭풍치고 대지가 분노한다  
비분에 송두리채 뿔고있는 인왕산아  
오열에 목메여 울부짖는 광화문의 종소리여...  
어느놈이 선대의 위업 망쳤느냐  
어느 외적이 이 땅을 삼켰느냐

오, 분통하구나! 오, 슬프구나!  
우리는 귀신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다  
신성한 이 땅의 이름없는 유생이거늘  
마침내 의로운 장사 안중근이 나섰다  
그 씩씩한 기개 림름하여라

그 누가 이 나라 기맥이 진했다고 하느냐  
걸출한 영웅이 내려  
이 땅을 반드시 굶어살피리랴  
오, 마가울 란초를 꺾으며  
내 강기슭에 서있노라  
그날을 애타게 기다리며

이윽고 빼레헨리짜가 말하였다.

《해병 한사람은 대원 한명에 불과하오. 하지 만 두사람은 한개 소대, 세사람은 한개 중대맛잡 이요... 우리는 네명이요. 넷이서 한개 대대력량

과 맞서 싸웠소. 자, 내 구령을 들으시오. 대대, 앞으로 갓!》

(1942년)

# 컴퓨터의 첫 개발자

지금 쓰이는 수자식컴퓨터를 세계에서 처음으로 개발한 사람은 미국사람이 아니라 도이칠란드사람인 주체(1910—1995)였다.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하여 미국과 영국, 일본 등은 서로 앞을 다투어 컴퓨터 개발에 나섰다. 당시 베를린에서 건축학을 공부하던 주체는 수없이 반복되는 수자계산을 좀더 빨리 해낼 수 없겠는가를 생각하던중 2진법과 계전기를 사용하여 컴퓨터를 만드는 방법으로 이를 해결할수 있지 않겠는가를 하는것을 착안하였다. 1938년에 완성된 이 컴퓨터 《제트1》은 실패로 잘라내어 이어붙인 나무판과 양철조각, 수백개의 전기스위치로 구성된 불품없는 모양이었지만 2진법을 사용한 첫 수자식컴퓨터였다. 이 컴퓨터는 한번도 제대로 동작해보지 못한채 미완성품으로 끝나고말았다. 그것은 《제트1》을 완성하는 작업을 한창 벌리고있던 1939년에 주체에게 징집령장이 내려왔기때문이었다. 주체의 친구들은 이 컴퓨터를 리용하면 지금보다 훨씬 빨리 항공기 등을 개발할수 있다고 히틀러정부의 고위관리들에게 제기하였지만 그들은 《히틀러총통이 필요로 하는것은 전쟁을 이기겠다는 병사들의 충성한 사기이지 컴퓨터가 아니다.》라고 뻥뻥하게 잘랐다고 한다. 그후 항공기제작성원으로 선발된 주체는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포탄소리를 들으며 컴퓨터 개발을 계속하여 1941년에 진공관 2 000여개를 리용한 컴퓨터 《제트3》을 완성하였다. 영국에서도 암호해독용 기계식컴퓨터인 《폴로수스》가 같은 해에

완성되었지만 성능에서는 주체가 개발한 《제트3》에 비교도 되지 못하였다고 한다. 3년후인 1944년에 나온 IBM의 《마크1》과 1945년에 미국정부가 수백만US\$를 들여 개발한 《에니아크》도 이 컴퓨터에 비해볼 때 수준이 떨어졌다고 한다. 그후 1950년대 중반기에 《제트3》수준의 컴퓨터가 만들어졌는데 이 컴퓨터에는 오늘날 컴퓨터에 채용된 기본기술이 리용되었다고 한다. 히틀러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런 보물이 자기 나라 사람에 의하여 개발되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있었다. 상업용컴퓨터를 처음으로 개발한 영국의 모리스 윌크스는 《주체는 잘못된 시대에 불행한 나라에서 태어난 숙명때문에 평생 고통속에서 살았다.》고 개탄하였다. 1945년에 컴퓨터의 원형이라고 할수 있는 18 000여개의 전자관이 들어가고 질량이 30여톤이나 되는 《에니아크》계산기가 나왔다. 실용적인 프로그램내장형컴퓨터는 1949년에 제작되었으며 첫 상업용컴퓨터 《유니마크》는 1950년부터 리용되기 시작하였다. 1958년에 반도체소자를 리용한 《1401》이라는 컴퓨터가 나왔다. 1964년에 집적회로의 발명으로 컴퓨터기술은 보다 높은 단계으로 발전하였다. 이와 함께 체계프로그래밍기술이 발전하고 여러가지 프로그램작성언어들이 개발되었다. 컴퓨터는 초기에 《계산하는 도구》로부터 오늘은 론리적연산과 함께 자료, 음성, 영상을 비롯한 정보통신 및 정보처리를 고속으로, 대량적으로 할수 있는 전자장치로 발전하였다.

조선문학 주체104(2015)년 제8호 (루게 제814호)

## 편집위원회

|     |                    |
|-----|--------------------|
| 낸 곳 | 문 학 예 술 출 판 사      |
| 인쇄소 | 평 양 종 합 인 쇄 공 장    |
| 인 쇄 | 주체104(2015)년 8월 1일 |
| 발 행 | 주체104(2015)년 8월 5일 |

ㄱ — 56198

© Korea Literature & Art Publishing House 2015  
D P R Korea  
ISSN 1727—9437